

## 속표지



## 머리말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어원 원장 권재일입니다. 올해도 국립국어원과 SBS에서는 방송 언어의 발전을 위해 함께 생각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립국어원과 SBS는 지난 2005년 방송 언어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협약을 맺은 이후로 이미 네 차례에 걸쳐 ‘방송 언어의 경어법’,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 언어’, ‘방송 언어의 품격 향상을 위한 아나운서 국어 사용 연구’, ‘방송에서의 외래어·외국어 사용 실태’ 등을 주제로 공동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방송 언어와 국어 교육’을 주제로 하여 다섯 번째 공동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매체 언어의 성격, 매체 언어와 사회·문화, 매체 언어의 수용과 생산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매체 언어 교육의 중요성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 언어와 국어 교육’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방송의 공공성과 파급력 때문에 방송 언어가 국민의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국립국어원과 SBS가 방송 언어의 발전을 위해 5년간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를 알차게 진행해 온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글날에 즈음하여 국립국어원과 SBS가 올 한해 함께 애쓴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학계의 학문적 논의뿐만 아니라 국립국어원 연구원과의 방송 현장 관계자의 의견이 어우러진 산학연 공동 연구는 방송 언어의 품위 향상과 청소년 언어 교육을 위한 대안 마련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그동안 공동 연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SBS와 5년 동안 꾸준히 수고를 아끼지 않은 SBS 손범규 아나운서, 그리고 충실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충남대 이선웅 선생님을 비롯한 공동 연구진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립국어원 원장  
권재일

## 머리말

안녕하십니까? SBS 대표이사 사장 우원길입니다. 564돌 한글날을 기념해서 열리는 SBS와 국립국어원의 발표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올해로 우리나라의 방송은 83년이라는 긴 역사를 갖게 됐습니다. 오랜 방송의 역사만큼이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방송 언어도 우리 국민들의 언어 사용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 언어의 중요성만큼이나 방송 언어의 역기능에 대한 지적도 많습니다. SBS와 국립국어원은 언론과 언어정책기관이 담당해야 할 바른 언어 사용의 책임감으로 2005년 방송 언어의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맺고 올해로 5년째 공동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결실을 보았던 ‘방송 언어의 경어법’, ‘시청자와 함께 하는 방송 언어’, ‘방송 언어의 품격 향상을 위한 아나운서 국어 사용 연구’, ‘방송에서의 외래어, 외국어 사용 실태’ 연구는 두 기관이 함께 방송 언어의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방송 언어와 국어 교육’이라는 주제로 바른 방송 언어의 사용을 통해 국민들의 국어 교육 방법을 찾아보는 실용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언어 교육의 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SBS는 그동안 국립국어원과의 방송 언어 공동연구 외에도 ‘찾아가는 우리말 교실’ 강의나 자체 심의 기준 강화 등을 통해 바른 우리말 사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BS는 국민 언어생활의 공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방송사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BS와 국립국어원의 공동 연구가 5년째를 맞아 더욱 구체적이고 활용 방안이 가능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국립국어원의 권재일 원장님과 공동연구원들, 충남대학교 이선웅 교수님을 비롯한 학계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SBS 대표이사 사장

우 원 길

# 목 차

□	- 권재일(국립국어원 원장)	
	- 우원길(SBS 사장)	
□	- 이선웅(충남대) .....	1
□	- 손범규(SBS) .....	13
□	- 이준환(국립국어원) .....	27
□	- 문병열(홍익대) · 최혜림(SBS) .....	49
□	- 김한샘(국립국어원) .....	67
□ TV	-	
	- 이보라미(국립국어원) .....	79
□ TV	-	
	- 정희창(국립국어원) .....	96



# 국어 교육에서의 방송 언어 활용

이 선 응 (충남대)

## 1. 머리말

이 글은 새천년에 들어와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매체(media)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해 왔음을 7차 교육 과정(1997년, 2000년 시행), 2007 개정 교육 과정, 2009 개정 교육 과정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고, 각 교육 과정에서 밝힌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방송 언어 텍스트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국어 교육 현장에서 방송 언어의 중요성을 상기함과 함께 그에 따라 방송 언어가 국어 교육에 적합한 언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지하듯이 국어 교육은 양대 축, 곧 내용 교육의 축(문학 교육, 문법 교육)과 기능 교육의 축(화법 교육, 독서 교육, 작문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통적으로 방송 언어는 화법 교육(듣기+말하기)의 작은 부분으로만 활용해 왔으나 2007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아예 매체 언어 교육 영역을 따로 설정할 정도로 국어 교육에서 각종 매체를 의사소통의 보조 수단이 아닌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어 교육 현장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매체는 영화와 광고로서 그것들은 화법 교육뿐만 아니라 쓰기 교육에까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영화와 광고는 완결된 텍스트로서의 작품성까지 갖춘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송 언어 텍스트를 활용하여 화법 교육, 특히 말하기 교육의 목표를 구현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이고 적절하다.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방송 언어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방송 언어는 접근이 용이하다(available). 현재 한국 사회에서 TV나 라디오를 접하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므로 학교 교육 현장에서 방송 언어의 예를 활용하였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은 거의 없을 것이다.

만약 학생들이 접하지 못한 방송 언어 텍스트라면 과제를 통해 해당 방송을 확인하게 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없다.

둘째, 방송 언어는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갖고 있다(wide-spread). 방송은 그 매체의 경제적 속성상 전국적 단위 혹은 도(광역시) 이상의 단위에 대해 같은 내용이 전파되므로, 원칙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초·중·고 교과서에서 방송 언어를 활용한 교육이 용이하다.

셋째, 방송 언어는 전형적이다(typical). 방송 언어에서는 다소 옛말 투의 격식적 언어도 들을 수 있고 현대의 세련된 예절을 갖춘 언어도 들을 수 있으며 젊은 세대의 유행어도 들을 수 있고 특정 방언도 들을 수 있다. 또한 뉴스, 교양, 예능, 토론, 대담과 같은 다양한 장르는 일상생활의 여러 대화 상황을 대표하는 구실도 한다. 한마디로 방송 언어는 우리나라 사회 언어의 집결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어 교육 현장에서 방송 언어는 교육의 목적에 따라 이질적인 종류의 텍스트를 적절히 이용하는 데 매우 좋은 자료를 제공한다.

넷째, 방송 언어는 새로운 언어적 특성의 근원지적 성격을 갖고 있다(original). 방송 언어는 접근이 용이하고 파급 효과가 광범위하게 미치기 때문에 방송에서 어떤 언어적 특성이 나타나면 언중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인다. 물론 요즘은 인터넷 통신 언어도 그러하고 실제로 인터넷 언어가 방송 언어에 역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문자언어 혹은 젊은 세대의 언어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언어적 특성을 보이는 근원지로서의 방송 언어는 여전히 중요하다.

## 2. 국어 교육에서의 매체 환경의 중요성 인식

1997년에 마련되어 2000년부터 적용된 제7차 교육 과정<sup>1)</sup>에서는 ‘국어 생활’ 과목에서 최초로 ‘국어와 매체 환경’이라는 내용 영역을 설정하였다. 국어와 매체 환경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교육부 2000:108-111).

- (1) 가. 현대인의 언어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매체의 작용을 이해한다.
- 나. 지식 정보 사회에서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의 특성을 이해한다.

---

1) 7차 교육 과정은 현재 진행형이다. 2007년의 개정 교육 과정이 발표되었으나 시행은 되지 않은 채 곧바로 2009년에 재개정되었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서는 아직 재개정된 교육 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쓰고 있지 않다.

- 다. 여러 가지 매체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텍스트를 이해하고 감상한다.
- 라. 대중 매체로 표현된 국어 사용 현상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 마.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국어 생활을 한다.

이들 중 방송 언어와 가장 관련성이 큰 것은 (1가, 라)이다. 전통적으로 (1라)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곧 방송 언어에서의 비속어, 어문 규범 위배, 사회적 공정성을 잃은 표현에 대해서 많이 다루어져 왔다.<sup>2)</sup> (1라)와 관련된 연구가 주류였기 때문에 (1가)에 대해서도 주로 부정적 영향이 언급되어 왔다. 즉, 방송에서 유명 연예인이 비속어를 남발하여 청소년들의 정서에 악 영향을 끼친다는 등의 내용이 많이 언급되었다.

하지만 ‘틀린 것’은 두드러지게 언급되어서 그 비중이 실제보다 커 보일 뿐이지 실상은 ‘맞는 것’이 더 많다. 가령 토론 프로그램의 경우, 패널들의 언어 사용이나 토론 태도에 문제가 없지 않더라도 주제 설정, 진행 절차, 토론의 주제 등에서 가치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만한 내용이 많다. 라디오 대화나 토크쇼 류의 예능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긍정적인 면의 실례를 적절히 제시하여 익히게 하거나 과제 활동으로 학생들 스스로 긍정적인 면(학생에게는 ‘배울 점’)을 찾아내게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육부(2000:110)에서는 규범성으로부터의 탈피를 언어적인 것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중 매체로 표현된 국어 사용 현상 비판은 흔히 규범적으로만 접근하기 쉬움을 언급한 후, 그것을 넘어서서 국어 사용의 합리성, 소비주의에 함몰되지 않는 사회적 성찰, 문화적 생산성 등을 모두 고려하는 비판 활동을 해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7차 교육 과정의 총론에서는 위와 같은 선언만 하고 구체적인 매체 언어의 활용은 유도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7차 교육 과정의 공통 과정 중 10학년, 곧 고등학교 1학년의 말하기 교육에서 제시한 다음과 같은 교육 목표<sup>3)</sup>를 (1가~마)와 연관시키면 7차 교육 과정에서 추구했던 매체 언어 활용의 숨겨진 구체적 모습을 알 수 있다.

2) SBS와 국립국어원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송 언어 개선 사업의 1회~4회 발표문의 대부분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다.

3) 7차 교육 과정에서 제시한 말하기 교육 목표(교육부 2000:34-39) 중 방송 언어의 실례를 적절히 활용하여 달성할 만한 목표만을 제시하였다.

(2)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말하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안다.

(2)는 말하기 교육을 거시적으로 보인 목표이다. 말하기의 여집합 요소로 보이는 반언어적 표현 및 비언어적 표현의 중요성부터 인식하는 일을 교육 목표의 처음으로 내세우고 있음이 특이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현경(2007)에서도 논의한 비언어적 표현을 살펴보자.<sup>4)</sup>

(3) 비언어적 표현

가. 신체적 행위: 몸동작, 표정, 자세, 시선, 고갯짓과 같은 신체 행위  
나. 신체적 외양: 용모, 의상, 머리모양과 같은 외양

(4) 반언어적 표현: 말 속도, 발음의 정확성, 띄어 읽기, 억양, 음높이, 음색, 목소리 크기

이현경(2007)에서는 위와 같은 요소가 TV 뉴스의 공신력/신뢰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설문 조사의 통계 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표정이나 고갯짓과 같이 그동안 그 영향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못하였거나 과소평가되어 왔던 요소를 재발견하였다는 것이다.

7차 교육 과정에서는 이에 이어서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어긋나서 오해가 일어난 예를 찾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식적인 말하기와 일상적인 말하기를 비교하고, 공식적인 말하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알아보도록 하고 있다. TV 뉴스와 같은 대표적인 공식적 방송과 일상 대화의 동영상상을 비교·대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이현경(2007)과 같은 통계 처리 작업을 할 수는 없겠으나 모둠 활동을 통해 비언어적 표현과 반언어적 표현의 효과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5) 상황의 변화에 따라 내용을 적절하게 생성하여 말한다.

(2)와 마찬가지로 (5)도 단지 방송 언어에만 국한되는 교육 목표는 아니다.

---

4) 이현경(2007)에서 말하는 비언어적 전달 행위란 교육 과정에서 말하는 비언어적 표현과 반언어적 표현을 포괄한다. 반언어적 표현은 이현경(2007)의 유사언어(paralanguage)에 해당한다.

그러나 머리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방송에서는 여러 장르가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언어 텍스트는 (5)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적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모든 텍스트는 그 종류에 따른 가장 훌륭한 전달 방식이 있다. 가령 뉴스 보도는 ‘앵커 멘트(제목 자막) - 기자 리포트 - (앵커 멘트)’의 구조로 짜여 있다. 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그러한 순서를 바꾸어 가면서 전달 효과를 평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그러한 구조의 효율성을 체득하게 된다. 장소원 외 3인(2007나)에서는 뉴스 제목(보도 내용 요약) 자막, 앵커 멘트의 요건을 (6)과 같이 정리하였다.

- (6) 가. 뉴스 제목: 중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기사의 핵심을 요약, 다른 기사와의 관련성을 고려, 올바른 표현을 사용, 제목과 내용의 조화
- 나. 앵커 멘트: 정확한 정보를 전달, 기자 리포트와 조화를 이루게, 과장된 표현 자제, 가장 논리적으로

위의 내용 중 제목 쓰기와 관련하여 몇 가지 흥미로운 예를 보도록 하자.

- (7) 가. 온통 물바다
- 나. 수확 앞두고……

(8) “생선·채소 사기 겁난다.”...6년 만에 ‘최대 상승’

(9) 폭염에 선풍기도 ‘열받는다’...밤새 켜놨다 활활

(7)은 장소원 외 3인(2007나:53)에서 제시한 예이고 (8)은 본 발표집의 다른 글에 수록된 예<sup>5)</sup>이다. (7가)와 (7나)는 각각 독립적인 보도 기사로서 연속적으로 방송된 것의 제목들이고 (8)은 한 보도 기사의 제목이다. (7)에 대해 장소원 외 3인(2007나)에서는 (7나)의 제목이 비록 부족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7가)에 이어서 방송되는 맥락을 고려할 때 오히려 간결성을 추구한 제목 제시 방법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런데 (8)에 대한 설명에서는 한 화면의 자막으로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생선·채소 사기 겁난다.”와 같은 제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보의 부족을 지적한 것이다.

5) (8)은 SBS 2010년 8월 2일 뉴스에서 (9)는 8월 6일 뉴스에서 인용함.

미시적으로 보면 (8)과 같은 제목보다는 ‘물가 비상, 큰 폭 상승’과 같은 제목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지만, 텍스트 맥락을 고려한 장소원 외 3인(2007나)의 거시적 시각에서 보면 (8)과 같은 제목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소비자의 심리와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라는 두 개의 정보를 동시에 전달하는 긍정적인 제목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7가)와 (9)도 마찬가지이다.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려는 주관적 표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7가) 수준으로는 인정할 것인지 (8) 수준으로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이다.

뉴스 보도의 성격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판단 결과가 정해질 것인데, 그러한 관점 차이는 국어 교육 현장에서 매우 좋은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있고, 그러한 토론을 통해 학생들은 텍스트 제목의 요건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기자 리포트 역시 (6)에서 제시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기자 리포트는 제목이나 앵커 멘트보다 훨씬 긴 텍스트이므로 그 짜임새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3. 매체 언어의 교육 대상화

2007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매체언어 교육’이 선택 과목으로 신설되었다. 또한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도 매체언어 내용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6영역의 교육 내용으로 녹여 내고자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2008다:15)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담화와 글의 수용과 생산 능력 신장을 목표로 삼고 있는 국어과에서 매체 담화·글의 수용과 생산을 국어과의 주요 교육 내용으로 다루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매체 담화·글의 창의적, 비판적 수용을 강조함으로써 국어 교육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매체 언어를 마치 문학, 문법과 거의 동등한 교육 대상으로 간주하는 관점으로서 기존의 매체 언어를 다른 내용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서 인식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2008다:453)에서의 (10)과 같은 설명과도 부합한다.

(10) ‘매체 언어’ 과목은 매체를 단순히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도구나 수단의 의미로 축소하여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관점을 취한다. 같은 생각이나 느낌이라 하더라도 다른 매체를 통해 표현하게 되면, 사용하는 매체 언어의 차이

때문에 의미가 구성되는 방식이나 사유의 구조화 방식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매체 언어 교육의 비중은 7차 교육 과정과 비교할 수도 없이 커졌다. '매체 언어' 과목은 고등학교 선택 과목이므로 아래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우선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에 제시된 학년별 목표 중 방송 언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11) 6학년 듣기: 라디오, 텔레비전 등에서 보도하는 뉴스

가. 성취 기준: 뉴스를 듣고 정보에 관점이 반영됨을 안다.

나. 내용 요소의 예: 뉴스의 담화 구조 이해하기, 사건의 개요 파악하기, 서로 다른 시각이 반영된 뉴스 비교하기, 뉴스의 사회적 기능 이해하기

(11나)의 교육 내용 요소 중 '사건의 개요 파악하기'는 매체 언어를 텍스트 짜임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그것은 반드시 TV 뉴스만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다. 매체 언어를 문학, 문법과 같은 교육 내용으로 보는 것은 '뉴스의 담화 구조 이해하기', '서로 다른 시각이 반영된 뉴스 비교하기', '뉴스의 사회적 기능 이해하기'이다. 뉴스가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동시에 정보에 대한 관점을 드러낸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지도하고 뉴스의 관점 반영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도록 지도한다는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8가:131). 뉴스 텍스트를 언어적 텍스트로 보는 동시에 사회·문화적 텍스트로 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회·문화적 텍스트로 보기 때문에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나 학생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뉴스를 다루어 학생들이 스스로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뉴스의 내용과 관점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역 방송의 뉴스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학생은 같은 사건을 다룬 성인의 뉴스와 학교 방송사의 어린이 뉴스를 비교하여 관점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TV에서 뉴스를 시청하여 (11나)와 같은 활동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12가)와 같은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과 (12나)와 같이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을 연계 활동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송 언어 텍스트의 활용이 입체적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른 학년의 매체 언어 활용 활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2) 가. '뉴스의 사회적 기능 이해하기'와 연계한 읽기 활동: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를 파악한다.

나. '사건의 개요 파악하기'와 연계한 읽기 활동: 다양한 매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요약하는 글을 쓴다.

방송 언어 텍스트 활용은 8학년 듣기 과정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 8학년 듣기 과정에서는 방송 언어 텍스트를 통한 화법의 핵심적 내용을 교육하도록 짜여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3) 8학년 듣기: 두 사람 이상의 진행자나 참여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가. 성취 기준: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고 진행자의 말하기 특성과 효과를 평가한다.

나. 내용 요소의 예: 라디오 프로그램의 특성 이해하기, 진행자의 말하기 전략 분석하기, 진행자의 반언어적 표현 효과 평가하기, 다른 매체 프로그램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과 비교하기

8학년의 주된 활동은 담화 분석이다. 담화 분석은 몇 가지 관점에서 수행할 수 있다. 담화 텍스트의 구조에 따라 분석할 수도 있고, 담화 전략에 따라 분석할 수도 있으며, 담화 텍스트의 종류(인터뷰, 토론, 구연, 말놀이, 소개, 대화 등)에 따라 분석할 수도 있다. 위의 교육 목표에서는 둘째 담화 전략에 따른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학년의 활동에서도 (14)에서 보듯이 영역 간 통합 활동을 강조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8나:54).

(14) 가. 7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다양한 매체에 나타난 언어 사용 방식의 차이점을 파악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나. '진행자의 반언어적 효과 평가하기'는 8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인 '드라마의 인물이 되어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14나)는 매우 흥미롭다. 국어 교육 현장에서 방송 언어 텍스트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상 그 범위는 뉴스 보도, 다큐멘터리, 토론 프로그램

정도의 범위 안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14나)에서는 연극 활동과 연계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은 격식적 상황보다는 비격식적 상황에서 그 의미가 더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활동 유도는 다른 장르(예컨대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 등)로 교육 대상의 폭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제 10학년의 활동을 살펴본다. 10학년(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6학년에서와 마찬가지로 방송 보도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6학년에서의 활동이 ‘이해’ 활동이었다면 10학년에서의 활동은 ‘표현’ 활동인 것이 달라진 점이다.

(15) 10학년 말하기: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송 보도

가. 성취 기준: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취재하여 보도한다.

나. 내용 요소의 예: 방송 보도의 특성 이해하기, 문제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취재 내용 선정하기, 문제가 잘 드러나도록 보도 내용 편집하기, 방송의 특성을 살려 보도물 제작하기

고등학교 학생이 멀티미디어 및 컴퓨터 기기 활용 능력이 초중등 학생보다 뛰어남을 고려하여 지정한 활동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15)와 같이 보도 과정의 완전한 체험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학생들이 방송사의 기존 보도 내용을 재구성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활동은 물론 선행 학년에서 방송 보도의 특성을 이해하였다는 전제 아래에서 가능한 것이다. 단순히 과제를 통한 학생의 활동만을 유도할 것이 아니라 방송사 견학과 같은 체험 학습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10학년의 활동에서 제시한 영역 간 통합 활동은 (16)과 같다(교육과학기술부 2008다:34).

(16) 가. 8학년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 ‘글을 쓰는 목적에 맞게 정보를 재구성하여 기사문을 작성한다.’

나. 9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시사 문제에 대한 심층 보도를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다. 10학년 읽기의 성취 기준 ‘면담 기사를 읽고 질문자의 질문 의도, 질문 전략, 질문 태도 등을 평가한다.’

11학년(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국어 선택 과목을 지정하여 학습하게 된다. 2007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매체 언어’ 과목을 독립시켰는데, 이것이 정당한지는 더 깊이 논의할 여지가 있으나 적어도 방송 언어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방송 언어를 통한 효율적 국어 교육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효용이 있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그러한 독립이 오히려 방송 언어 활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먼저 ‘매체 언어 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을 보기로 한다.

<p>매체 언어의 성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체 언어의 개념과 특성</li> <li>○ 매체 언어의 역할</li> <li>○ 매체 자료의 유형</li> </ul>	<p>자료 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 전달과 설득 : 뉴스, 칼럼, 광고와 사진, 기획물 (다큐멘터리, 특집) 등</li> <li>○ 심미적 정서 표현 : 영상물, 대중가요, 사이버 문학, 만화, 오락물 등</li> <li>○ 사회적 상호 작용 : 온라인 대화 등</li> </ul>
<p>매체 언어와 사회·문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체 언어와 정보 사회</li> <li>○ 매체 언어와 대중문화</li> <li>○ 매체 언어와 인간관계</li> </ul>	
<p>매체 언어의 수용과 생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체 자료의 비판적 수용과 심미적 향유</li> <li>○ 매체 자료의 창의적 변용과 생산</li> <li>○ 매체 언어를 통한 사회적 소통과 문화 참여</li> </ul>	

위에서 보듯이 매체 언어 교육이 포괄하는 교육적 목표 및 교육 자료의 범위는 매우 넓다. 그런데 그중 방송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고 그나마도 주로 뉴스 보도와 다큐멘터리 정도로 한정되어 있다. 이는 초등·중학교에서보다 고등학교에서 자신이 직접 참여하는 매체(인터넷), 자신이 직접 접할 수 있는 매체(사이버 문학, 만화, 오락물), 자신이 직접 조작할 수 있는 매체(멀티미디어, 동영상 제작기) 활동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그러한 매체들을 우선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설령 방송 언어 텍스트를 고등학교에서 강조했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선택 과목의 특성상 내실 있는 교육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그러므로 방송 언어 텍스트를 활용한 교육은 사실상 국민 공통 과정에서 끝난다고 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 4. 매체 언어 교육의 초점 목표 설정: 화법과 작문

2007년 교육 과정이 개정되고 2년 만에 2007년의 교육 과정과는 매우 다른 체계로 재편된 교육 과정이 발표되었으나, 2009년의 새 교육 과정의 매체 언어 교육의 내용에 큰 변화는 없다. 다만 선택 과목으로서의 ‘매체 언어 교육’은 사라지고 국어 교육의 다른 분야에 퍼져 들어가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2009년의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화법과 작문의 I(기초 과정), II(심화 과정) 속에서 매체 언어를 활용한 교육을 강조하게 된다. 독서와 문법, 문학의 기초 과정과 심화 과정에서 제시되었던 구색 맞추기의 매체 언어 교육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매체 언어 교육의 내실을 강화하였다. 외연의 과도 팽창보다는 초점 목표에 집중하고자 하는 실질 중심 사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 5. 맺음말

위에서 국어 교육 현장에서 방송 언어 텍스트의 어떤 내용을 활용하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 과정에서 방송 언어 텍스트를 활용한 활동이 결코 적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뉴스 보도, 담화의 구조와 전략에만 치우쳐 있음은 다소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은 교육 내용이 어느 정도 정형성과 일반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학교 현장의 특성에서 기인한 면도 있다. 그러나 이 앞서 4년 동안 개최되었던 발표회와 올해의 발표회에서 관심을 두는 대상에서 보듯이 더욱 다양한 장르와 상황으로 교육의 지평을 넓혀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 대상의 국어 교육에서 방송 언어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방송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국어 교육의 자료 텍스트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방송인은 어문 규범 준수는 물론이고 모범적인 담화 구조를 생산할 수 있도록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08가),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Ⅲ) 국어, 도덕, 사회』.  
교육과학기술부(2008나),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국어, 도덕, 사회』.  
교육과학기술부(2008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② 국어』.  
교육부(1997), 『국어과 교육 과정(제7차 교육과정)』  
교육부(2000),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 ② 국어-』  
교육인적자원부(2007), 『국어과 교육과정』.  
김광해 외 2인(2003), 『고등학교 화법』, 형설출판사.  
이주행 외 8인(2003), 『고등학교 화법』, 금성출판사.  
이중구(2004), 『고등학교 화법』, 세기문화사.  
차배근(2003), 『고등학교 화법』, 지학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 『2009년 개정 고교 국어 선택 과목 교육과정 시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0),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연구 개발』.

### 【논저】

- 김대행 외 3인(2001), 「급변하는 사회의 방송 언어문화 향상 방안 연구」, 방송위원회.  
김대행 외 7인(2006), 『하이퍼텍스트의 언어문화 이해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정우(1998), 「미디어 교육과 국어 교육 - 미디어의 의미 작용과 비판적 의사 소통에 관하여」, 『목원국어국문학』 5집, 목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인기 외 8인(2000), 『국어 교육과 미디어 텍스트』, 삼지원.  
윤여탁 외 4인(2008), 『매체언어와 국어 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이창덕 외 4인(2010), 『화법 교육론』, 역락.  
이현경(2007), 「비언어 전달 행위가 뉴스 앵커에 미치는 영향」, 제2회 국립국어원·SBS 방송 언어 공동 연구 발표집,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 언어』.  
장소원 외 3인(2007가), 『방송 화법』, 커뮤니케이션북스.  
장소원 외 3인(2007나), 『방송 글쓰기』, 커뮤니케이션북스.

# 방송 언어의 저품격 언어 사용 실태 연구

손 범 규 (SBS)

##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다른 어떤 언어보다도 방송 언어<sup>1)</sup>가 가지는 영향력은 크다. 또한 최근에는 방송 언어가 사회의 언어를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의 언어생활을 좌우하기도 한다.<sup>2)</sup> 이처럼 방송 언어는 국민들의 바른 언어생활과 표준어의 보급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실제 사용은 많은 우려와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그 우려만큼의 사용 실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또한 현재 국어 연구의 현실이다.

방송 언어는 또한 이중적인 특성을 지닌다.<sup>3)</sup> 방송이라는 매체의 공공성 때문에 보수적이기도 하고, 매체의 소비자를 유도하기 위해 유행에 민감하기도 하다. 최근에는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나 선정성이 짙은 연예·오락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후자가 더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방송 언어가 일반 언어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 방송 언어는 공적인 언어이며 다른 어떤 언어보다도 규범성을 지켜야 한다.

---

1) 방송 언어의 정의에 대해 박갑수(1996)은 방송 언어는 어떤 특수한 말이 아니요,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일상어라고 밝히고 있지만, 박갑수 외 8인(2001)에서는 넓은 뜻, 좁은 뜻, 좀 더 좁은 의미로 방송 언어의 정의를 세분화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넓은 뜻의 방송 언어는 일상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좁은 뜻의 방송 언어는 아나운서 및 이에 준하는 출연자의 발언으로 한정되고, 좀 더 좁은 의미의 방송 언어는 뉴스 방송에 한정된다. 이 글에서는 방송 언어를 일상어와 같은 개념, 즉 넓은 의미의 방송 언어로 정의한다. 더 많은 방송 언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김상준(1997), 민현식(2000), 차재은(2003)을 참조할 수 있다.

2) 방송 언어는 특히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 코미디 프로그램의 유행어나 말투 등이 순식간에 전파되는 사례는 일일이 사례를 들 수 없을 만큼 흔한 일이다.

3) 김한샘 외(2006), 62p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출연자들의 발화에 대한 연구는 다른 어떤 연구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의 언어생활의 교육 매체이기도 한 방송에서 나타나는 언어표현의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이 글은 현재 방영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의 언어 사용 실태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개선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 프로그램 분석은 국립국어원에서 2010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연구의 자료를 사용한다. 11월까지 이루어질 연구의 1차 과정을 정리하고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저품격 방송 언어의 유형을 분석 기준에 맞추어 제시함으로써 이 연구가 실제 방송을 제작하는 제작진에게 바른 방송 언어 사용의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2. 연구 자료와 분석 기준

본 연구는 국립국어원에서 2010년 4월부터 7월까지 분석한 방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프로그램은 4월은 방송 3사의 주말 드라마 24회분, 5월 일일드라마 59회분, 6월 체험 예능프로그램<sup>4)</sup> 11회분, 7월 일반 예능프로그램 12회분으로 자세한 내용과 분석 기준은 아래와 같다.

---

4) 체험 예능프로그램이란 기존의 예능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다수의 출연자가 스튜디오가 아닌 야외에서 일정한 과제를 체험하며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리얼 버라이어티(real variety)프로그램이라고도 하는데 영어의 리얼리티(reality)와 버라이어티(variety)의 합성어로서 대한민국 예능프로그램의 한 분야로 자리잡은 프로그램의 형식이다. 대표적인 특징으로 기존 예능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짜여진 각본이 없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일정한 프로그램의 주제나 간략한 녹화 진행 상황을 설명한 큐시트(Q-sheet)는 있지만 자세한 대본에 의존하지 않고 출연자들의 즉흥적인 진행을 위주로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케이블 방송을 통해 해외 리얼리티쇼가 들어와 인기를 얻으면서 국내에서도 제작되기 시작하였는데 2006년 MBC의 '무한도전'을 그 시작프로그램으로 들 수 있다.

1) 4월, 주말드라마 24회분

방송사	프로그램 이름
KBS-2TV	수상한 삼형제
MBC-TV	민들레 가족
SBS-TV	이웃집 웬수

2) 5월, 일일드라마 59회분

방송사	프로그램 이름
KBS-2TV	바람불어 좋은 날
MBC-TV	황금 물고기
SBS-TV	세자매

3) 6월, 체험 예능프로그램 11회분

방송사	프로그램 이름
KBS-2TV	해피선데이 - 1박 2일
MBC-TV	무한도전
SBS-TV	일요일이 좋다 - 패밀리가 떴다 2

4) 7월, 일반 예능프로그램 12회분

방송사	프로그램 이름
KBS-2TV	해피선데이 - 1박 2일(4회)
MBC-TV	무한도전(4회)
SBS-TV	일요일이 좋다 - 패밀리가 떴다 2(3회)

5) 분석 기준 : 방송 언어의 품격 관련 사항

- 차별적 표현(성별, 연령, 지역, 인종, 민족, 장애인, 기타)
- 인격 모독 표현(외모, 성격, 학력, 재력, 기타)

- 폭력적 표현
- 비속어
- 욕설
- 기타

### 3. 주말 드라마

4월 한 달간 방송된 주말 드라마에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비속어와 차별적 표현 등의 사용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차별적 표현, 인격 모독 표현, 폭력적 표현, 비속어, 욕설 등을 대분류로 삼아 총 429 건의 저품격 방송 언어 표현을 확인하였다. 비속어가 71%로 가장 많았고, 차별적 표현이 24%로 뒤를 이었는데 차별적 표현의 72%가 성별, 20%가 연령과 관련된 것이었다. 인격 모독 표현이나 폭력적 표현, 직접적인 욕설은 비교적 드물게 나타났다.

방송사	제목	차별적 (성별)	차별적 (연령)	차별적 (지역)	차별적 (기타)	인격모독 (학력)	인격모독 (기타)
KBS	수상한 삼형제	36	10	0	4	2	6
MBC	민들레 가족	13	0	2	0	0	2
SBS	이웃집 웬수	24	10	0	2	1	0
합계		73	20	2	6	3	8
비율		17.0	4.7	0.5	1.4	0.7	1.9
순위		2	3	9	5	8	4

방송사	제목	비속어	폭력적	욕설	기타	합계	순위
KBS	수상한 삼형제	171	3	1	2	235	1
MBC	민들레 가족	62	2	3	0	84	3
SBS	이웃집 웬수	73	0	0	0	110	2
합계		306	5	4	2	429	
비율		71.3	1.2	0.9	0.5	100	
순위		1	6	7	9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비속어**

-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있냐? (수상한 삼형제 50회)  
→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냐?
- 낫살이나 치떡이 갖고 그걸 어떻게 해. (수상한 삼형제 53회)  
→ 낫살이나 먹어 갖고 그걸 어떻게 해.
- 어떻게 뭐든지 생까고 넘어가는지. (수상한 삼형제 54회)  
→ 어떻게 뭐든지 무시하고 넘어가는지.
- 애는 아파 누워 있는데 넌 거기 가서 자빠졌어? (이웃집 웬수 9회)  
→ 애는 아파 누워 있는데 넌 거기 가서 누워 있어?
- 저 성질 지랄 같아요. (이웃집 웬수 10회)  
→ 저 성질 아주 나빠요.
- 그날 우리 아버지 온 동네에 개망신 당했어! (민들레 가족 19회)  
→ 그날 우리 아버지 온 동네에 크게 망신당하셨어!

◎ **차별적 표현**

- 성별: 건강인 밖에서 일하고 넌 집에서 살림이나 해. (수상한 삼형제 52회)
- 성별: 하늘 같은 서방님이 사업을 하시겠다 하면 급전이라도 내서 하시게 해야 그게 도리지! (민들레 가족 20회)
- 연령: 쥐방울만한 게 영악해서는 심통을 부리는 거지 뭐. (이웃집 웬수 10회)
- 연령: 비린내 풀풀 나는 어린 남자한테 사심 따위 가질 것 같아요? (이웃집 웬수 10회)

#### 4. 일일 드라마

5월 한 달간 방송된 방송 3사의 일일 드라마를 분석한 결과 비속어와 차별적 표현 등의 사용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일드라마에 사용되는 이러한 표현들이 국민들의 일상 언어생활에서 실제 쓰이는 표현이라 하더라도 방송의 공공성과 파급력을 감안할 때 적어도 지상파 방송에서만큼은 피해야 할 저속한 언어 표현이 상당수 조사되었다.

방송사	제목	차별적 (성별)	차별적 (연령)	차별적 (기타)	인격모독 (외모)	인격모독 (재력)	인격모독 (기타)
KBS	바람불어 좋은 날	10	1	1	0	2	5
MBC	황금물고기	6	6	0	1	0	7
SBS	세자매	6	1	0	0	4	6
합계		22	8	1	1	6	18
비율		12.3	4.5	0.6	0.6	3.4	10.1
순위		2	4	8	8	5	3

방송사	제목	비속어	폭력적	욕설	기타	합계	순위
KBS	바람불어 좋은 날	38	3	1	0	61	2
MBC	황금물고기	47	1	2	0	70	1
SBS	세자매	28	0	1	2	48	3
합계		113	4	4	2	179	
비율		63.1	2.2	2.2	1.1	100	
순위		1	6	6	7		

주말드라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차별적 표현, 인격 모독 표현, 폭력적 표현, 비속어, 욕설 등을 대분류로 삼은 분석에서 총 179건의 저품질 방송 언어 표현이 나타났다. 비속어가 63%로 가장 많았고 차별적 표현이 17%로 뒤를 이었는데 차별적 표현의 29%가 연령, 14%가 성별과 관련된 것이었다. 인격 모독 표현은 14%였으며 폭력적 표현, 직접적인 욕설은 비교적 드물게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 비속어

- 새빠지게 찾을 근데 갖다 줘라.(바람불어 좋은 날 70회)  
→ 힘들게 찾을 근데 갖다 줘라.
- 차라리 나이트에서 그냥 죽돌이로 있던 시절이 그림다.(바람불어 좋은 날 75회)  
→ 차라리 나이트에 자주 가서 놀던 시절이 그림다.
- 넌 얼마나 유식하셔서 하늘같은 선배를 똥으로 보냐!(황금 물고기 2회)  
→ 넌 얼마나 유식하셔서 하늘같은 선배를 앞잡아 보냐!
- 벌써 종난 거야?(황금 물고기 8회)  
→ 벌써 끝난 거야?
- 내가 또 딱 핸드폰 한번 때려줘야지.(세 자매 14회)  
→ 내가 또 딱 전화 한번 해줘야지.
- 이거랑은 쥘도 안 돼요.(세 자매 29회)  
→ 이거랑은 비교도 안 돼요.

◎ 차별적 표현

- 성별: 하늘같은 남편을 갖다가 이따위로 개무시를 해!(바람불어 좋은 날 78회)
- 성별: 남자도 아니고 무슨 떡살을 잡고 그래, 넌!(바람불어 좋은 날 67회)
- 성별: 삼 년 동안 입 막고 귀 막고 버텨야 된다 그거야, 며느리들은.(황금 물고기 6회)
- 성별: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여우한테 흘러도 유분수지.(세 자매 21회)
- 연령: 나이도 든 양반이 뭘 그렇게 몸을 사리시나?(바람불어 좋은 날 66회)
- 연령: 쪼그만 게 어찌나 속이 깊은지.(바람불어 좋은 날 78회)
- 연령: 지금은 이빨 빠진 노인네일 뿐이야.(황금 물고기 10회)
- 연령: 내가 그 정도 할머니 하나 요리 못할까봐?(황금 물고기 10회)

## 5. 체험 예능 프로그램

체험 예능 프로그램은 주로 3개 방송사의 주말 프로그램이다. 주말 가족들이 함께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방송 언어의 공공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겠지만 시청률경쟁이라는 제한에서 드라마보다 많은 저속한 표현이 사용되었다.

방송사	제목	유형	인격모독 (외모)	인격모독 (재력)	인격모독 (기타)	비속어	폭력적 표현	욕설	기타
KBS	1박 2일	자막	8	3	1	23	0	0	23
	(4회 방송분)	대사	4	1	3	45	0	0	27
MBC	무한도전	자막	59	5	26	68	4	7	44
	(4회 방송분)	대사	59	3	21	73	5	6	36
SBS	패밀리가 떴다	자막	10	0	3	58	3	4	74
	(3회 방송분)	대사	11	0	4	62	3	2	27
합계		자막	77	8	30	149	7	11	141
		대사	74	4	28	180	8	8	90
		전체	151	12	58	329	15	19	231
비율		자막	17.7	1.8	6.9	34.2	1.6	2.5	32.3
		대사	18.1	1.0	6.9	44.1	2.0	2.0	22.1
		전체	17.9	1.4	6.9	39.0	1.8	2.3	27.4

방송사	제목	유형	차별적 (성별)	차별적 (지역)	차별적 (장애인)	차별적 (연령)	차별적 (기타)	합계1	합계2	합계3 (조정)	순위 1	순위 2
KBS	1박2일	자막	0	0	0	0	1	59	140	140	3	3
		대사	0	0	0	0	1	81			3	
MBC	무한도전	자막	1	1	0	1	0	216	423	423	1	1
		대사	3	0	0	1	0	207			1	
SBS	패밀리가 떴다	자막	9	0	0	0	0	161	281	374	2	2
		대사	10	0	1	0	0	120			2	
합계		자막	10	1	0	1	1	436				
		대사	13	0	1	1	1	408				
		전체	23	1	1	2	2	844				
비율		자막	2.3	0.2	0.0	0.2	0.2	52				
		대사	3.2	0.0	0.2	0.2	0.2	48				
		전체	2.7	0.1	0.1	0.2	0.2	100				

앞서 두 프로그램에서의 분석과 같은 대분류의 기준에서 총 844건의 저품질 방송 언어 표현이 나타났는데 이는 대사 436건, 자막 408건<sup>5)</sup>을 합한 수치이다. 비속어가 39%로 가장 많았고 인격 모독 표현이 26%로 뒤를 이었는데, 인격 모독 표현의 68%가 상대방의 외모를 비하하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 비속어

- (대사) 나 몰라라 쌩까면 어떡하라는 거예요.(1박 2일)  
→ 나 몰라라 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 (대사) 무슨 눈 뜨자마자 무슨 고기를 구워 쳐먹고 그게 들어가? (1박 2일)  
→ 무슨 눈 뜨자마자 무슨 고기를 구워 먹고 그게 들어가?
- (대사)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되지.(무한도전)  
→ 힘 안들이고 차지하려고 하면 안 되지.
- (대사) 썩은 미소를 날리는(무한도전)  
→ 씩씩한 미소를 보내는
- (자막) 빵빵 터트리고 간 예능돌 형제!(패밀리가 떴다 2)  
→ 큰 웃음을 주고 간 예능돌 형제!
- (대사) 이것들이 지들끼리 떠들고 자빠졌어.(패밀리가 떴다 2)  
→ 애들이 지들끼리 떠들고 있어.

### ◎ 인격 모독 표현

- 외모: (대사) (몽을 보며)생긴 거는 풀 뜯어먹게 생겨 가지고.(1박 2일)
- 외모: (대사) 김 선생이 제일 배고프게 생겼으니까.(1박 2일)
- 외모: (대사) (유재석을 보고) 제수씨 저 얼굴 보고 어떻게 결혼을 했나?  
(무한도전)
- 외모: (자막) (민머리인 길 머리를 안고 사진 찍으라며) 완벽한 새알  
(무한도전)
- 외모: (대사) (분장한 정준하를 보고)시체 같아, 시체.(무한도전)

---

5) 최근에는 방송에서의 자막 사용의 중요성과 함께 남용을 지적하는, 방송 언어 자막의 바른 사용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즉 TV 방송의 자막이 구 차원에서 문장 차원으로 발전하면서 담당 기능이 커지자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필요해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주행(1999)와, 이동석(2003)을 참고할 것.

- 외모: (자막) 뭐야! 이 노비 같은 X는!(패밀리가 떴다 2)
- 기타: (대사) 이것 좀 어디다가 치우면 안 돼요?  
→ 애 좀 어디다가 보내면 안 돼요?

◎ **폭력적 표현**

- (대사) (길이 꼴찌를 면하자 정형돈이)애 되게 안 죽는다(무한도전)  
→ 애 되게 잘 버틴다.
- (대사) 부숴버리겠어!(패밀리가 떴다 2)

## 6. 일반 예능 프로그램

7월 조사의 분석 대상 프로그램은 일반 예능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들에서도 비속어와 인격 모독 표현, 차별적 표현 등의 사용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총 627건의 저품격 방송 언어 표현이다. 이는 대사 320건, 자막 307건을 합한 수치인데 비속어가 37%로 가장 많았고 인격 모독 표현이 13%, 차별적 표현이 11%로 나타났다.

방송사	제목	유형	인격모독 (성격)	인격모독 (외모)	인격모독 (재력)	인격모독 (기타)	비속어	폭력적 표현
KBS	해피투게더	자막	0	10	1	0	12	0
		대사	0	16	1	2	51	3
MBC	놀러와	자막	6	13	1	7	30	0
		대사	2	15	1	4	52	0
SBS	강심장	자막	0	4	0	1	32	2
		대사	0	1	0	0	54	3
합계		자막	6	27	2	8	74	2
		대사	2	32	2	0	157	6
비율		전체	8	59	4	8	231	8
		자막	2.0	8.8	0.7	2.6	24.1	0.7
		대사	0.6	10.0	0.6	0.0	49.1	1.9
		전체	1.3	9.4	0.6	1.3	36.8	1.3

방송사	제목	유형	차별적 (성별)	차별적 (지역)	차별적 (연령)	기타	합계 1	합계 2	순위 1	순위 2
KBS	해피투게더	자막	9	0	0	15	47	165	3	3
		대사	17	0	0	28	118		1	
MBC	놀러와	자막	4	3	2	24	90	183	2	2
		대사	7	1	2	9	93		3	
SBS	강심장	자막	19	0	0	112	170	279	1	1
		대사	7	0	1	43	109		2	
합계		자막	32	3	2	151	307			
		대사	31	1	3	80	320			
		전체	63	4	5	231	627			
비율		자막	10.4	1.0	0.7	49.2	49			
		대사	9.7	0.3	0.9	25.0	51			
		전체	10.0	0.6	0.8	36.8	100.0			

이 같은 수치는 체험 예능 프로그램 언어 분석 결과와 비교할 때 전체적인 경향은 비슷하지만 차별적 표현이 일반 예능 프로그램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야외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체험 예능 프로그램과 달리 일반 예능 프로그램은 스튜디오 안에서 다수의 연예인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과정에서 성별이나 연령 등을 이유로 비하하는 표현들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체험 예능 프로그램에서 욕설이 19건이나 여과되지 않고 방송된 데에 비해 일반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욕설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 비속어

- 네 이년!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씨부리냐!(해피 투게더 3)  
→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떠드느냐!
- 제가 만약에 여자친구였잖아요? 아주 아작을 냈어요.(해피 투게더 3)  
→ 제가 만약에 여자친구였잖아요? 아주 가만두지 않았어요.
- 엠시몽 씨, 뽕 뜯긴 거예요?(놀러와)  
→ 엠시몽 씨, 돈 뺏긴 거예요?
- 선생님이 너무 고맙다고 안고 그래 가지고 뒤지게 패고(놀러와)  
→ 선생님이 너무 고맙다고 안고 그래 가지고 심하게 때리고

- 꼬장, 테이블이 두 개뿐!(강심장)
  - 행패, 테이블이 두 개뿐!
- 그냥 뭐 대기실 이렇게 기웃기웃 대 뭐 주서 처먹을 거 없나 하고(강심장)
  - 그냥 뭐 대기실 이렇게 기웃기웃 대 뭐 주워 먹을 거 없나 하고

◎ **인격 모독 표현**

- 외모: 목 없는 사람 접어.(해피 투게더 3)
  - 목 짧은 사람 접어.
- 외모: 얼굴이 처음에 눈도 별로 없었고. 코도 그때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놀러와)
  - 얼굴이 처음에 눈도 많이 작았고. 코도 그때 많이 낮았던 것 같고.
- 외모: 나보다 더 할머니 같애.(강심장)

◎ **차별적 표현**

- 성별: 여자가 서른 넘으면 요괴가 된다고.(해피 투게더 3)
- 연령: 어떤 느낌? 애늬은이같은 느낌(놀러와)
  - 어떤 느낌? 너무 철이 일찍 든 것 같은 느낌
- 연령: 나이 들어서 뭐 하는 짓이야.(강심장)

## 7. 맺음말

이 글에서는 방송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저품격 언어 사용의 실태를 4개월여에 걸친 국립국어원의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저속한 표현이 넘쳐나고 비속어의 남용이 있으며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인격 모독 표현이 많아 심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1분에 1번 이상 저속한 표현이 쓰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그 동안의 방송 언어 연구가 사례 수집에서만 끝난 경우가 많았기에 이번 연구에는 각각의 프로그램의 저품격 언어 사용 실태를 종합해서 2차 연구와의 비교를 목표로 한다. 또한 이 결과물을 적극 홍보하고 새로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번 연구가 지난 4년간 국립국어원과 SBS가 공동으로 진행한 방송 언어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기에 그 동안의 성과를 정리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 첫 번째 제안으로 국어 교육적 관점에서 국민의 언어생활을 바르게 이끌어 가기 위한 방송 언어의 전범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방송인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교육프로그램의 마련이다. 이는 기존의 방송인과 잠재적인 방송인을 대상으로 보다 정확한 방송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규범교육으로는 불가능하며 방송의 전체적인 제작 체계와 방송인들의 역할에 대한 연구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방송인 개인에 대한 언어 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방송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일 수 있고 국민의 언어 교육매체로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방송 언어의 품격있는 사용, 더 나아가 국민들의 언어생활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모든 방송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인 언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정기적인 재교육, 자가 점검 기회의 부여 등이 이루어질 때 방송 언어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표준어'라고 하는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방송사와 제작 가이드라인 지침 마련 같은 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 일례로 SBS는 건전한 방송을 만들기 위한 제작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건전한 방송문화를 만들고 시청자 정서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프로그램 소재의 선택 및 표현, 방송 언어 및 자막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이다. 특히 소재의 선택에 있어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세밀한 묘사나 배설물·욕설 등 민망한 소재, 소년 출연자의 지나친 선정적 퍼포먼스를 금지했고 자막도 표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 제공을 제외하고는 막말·비속어·은어·혐오어는 자막으로 강조하는 것을 자제토록 지시했다. 또한 출연자간의 인신공격적 표현이나 타인 비하 발언도 제한된다. SBS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SBS 심의팀·예능제작국 자체 심의결정에 따라 상습적인 반말, 비속어 사용자에게는 주의, 경고 처분을 내리고, 3회 위반시 예능국 특별심의위원회에 회부해 규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제제안까지 마련했다. 이에 앞서 KBS는 지난해 12월 '미녀들의 수다'에서 '루저 발언'이 논란이 된 후 '방송의 소재 및 표현에 관한 예능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의도는 좋았다는 평가지만 실효성 여부에는 부정적인 시선이 더 많다. 즉 SBS의 경우처럼 실질적인 제제방안도 마련이 되어야 한다.

## 〈 참고문헌 〉

- 박갑수(1996), 《한국 방송언어론》, 집문당  
박갑수 외(2001), 《방송화법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김상준(1997), 《방송언어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민현식 외(2000), 《방송화법》, 역락출판사  
차재은 외(2003), 《방송언어와 국어연구》, 월인  
김한샘(2006), 경어법의 변화 양상 분석, 국립국어원. SBS

# 방송 프로그램 종류별 자막 언어의 특징

이 준 환 (국립국어원)

## 1. 들어가며

본래 방송 자막은 부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자막 기술의 발달과 그 효용으로 인해 어떤 형식의 프로그램에서도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진행해 가는 데에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서 제시되는 자막의 형태에는 차이가 있고 그것에 담긴 언어의 특성에도 차이가 있다. 즉 뉴스, 교양, 연예, 오락, 스포츠 프로그램 등에 나타나는 자막 언어의 특징이 다르다.

그간 방송 자막에 대해서는 형태적 특징과 언어적 특징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자막의 형태적 특징과 기능, 서사성과 의미, 이를 이용한 텔레비전의 서술 방식, 자막 언어의 문제점, 프로그램 종류별 자막 언어의 특징, 자막의 작성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여러 프로그램을 비교하면서 자막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그곳에 쓰인 자막의 특성은 어떤지 비교하는 과정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프로그램의 성격, 제작 목적, 주 시청자층, 시청 목적, 출연자의 성격, 출연자의 수 등과 관련을 지어 자막 언어의 특징을 비교하여 고찰한 작업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면에 주목하여 프로그램별 방송 자막의 형태, 제시 양상, 표기, 어휘, 문장 등의 양상 및 기능을 살피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방송 자막이 어떤 언어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요즘 널리 쓰이는 인터넷 통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만화 등에 쓰인 언어와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주 분석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SBS에서 제작된 뉴스, 교양, 연예, 오락 프로그램에 한정한다. 이를 위해서 선정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표 1] 분석 대상 프로그램

프로그램 종류	프로그램 이름	방송 날짜	프로그램 목적	주 시청자층	딱딱함 정도
뉴스	8시 뉴스	2010. 7. 12.	정보 전달	성인	+
교양	출발 모닝 와이드	2010. 9. 30.	정보 전달	성인, 주부	↑
연예	한밤의 TV 연예	2010. 7. 18.	정보 전달, 오락	청소년, 젊은층	↓
오락	패밀리가 떴다	2010. 7. 11.	오락	청소년, 젊은층	-

## 2. 자막의 분류와 기능, 자막 언어를 보는 태도

### - 선행 연구 검토를 겸하여

자막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 다른 접근이 이루어졌다. 가장 먼저 고려될 수 있는 것은 자막의 형식에 따른 분류인데, 이는 자막이 어디에 놓이고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는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막은 ①어깨걸이 자막, ②하단 자막, ③홀림 자막으로 나뉜다.

다음으로 속성에 따른 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방식에 따르면 ①매체를 기준으로 하여 영화 자막과 텔레비전 자막으로 나뉘고, ②대상과 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에 대한 자막과 주체를 위한 자막으로 나뉘고, ③표현 형식을 기준으로 하여 문자 자막과 그래픽 자막으로 나뉘고, ④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타이틀, 설명자막, 발화 자막, 진행 자막으로 나뉜다. 그리고 사용 목적에 따라 ①정보의 함축적 전달을 기준으로 한 뉴스, 헤드라인, 기사 요약 자막, ②음성 언어의 보완을 기준으로 한 방언, 외국어, 음성 변조, 부정확한 발음의 보충에 쓰이는 자막, ③의도적 표현 수단인지를 기준으로 한 감정 표현, 연출자의 의도 표현, 흥미와 관심 유지 및 증폭을 위한 자막, ④프로그램의 진행을 기준으로 한 로고, 프로그램 이름, 코너 이름, 장면 전환, 다음 프로그램의 예고, 프로그램 소개를 위한 자막 나뉜다(한성우 2004가 참고). 사용 목적에 따른 또 다른 분류도 가능한데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막과 흥미를 북돋우기 위한 자막이 바로

그것이다. 즉 뉴스나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서 쓰이는 것으로서 정보 전달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막을 정보 전달용 자막, 연예 오락 프로그램에서처럼 출연자의 대사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연출자나 편집자의 의도를 드러내거나 시청자의 시선 집중을 위하여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하는 자막을 흥미 유발형 자막으로 나누는 방법이다(이성 2003, 홍준식 2004 참고).

이런 자막의 특징을 보면 텔레비전 자막 방송의 표준을 제정한 목적이 ①청각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②교육에의 활용, ③부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은표 1997)과는 달리, 그 기능이 부가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더욱 확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자막은 단순히 보조 수단으로만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방송에서 중요한 존재가 된 것이다.

이렇게 자막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자막의 특징과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먼저 자막의 언어 형식과 언어 내용을 나누어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언어 형식에서는 ①소리 나는 대로 적기, ②음절 줄이기, ③문장을 불완전하게 종결하거나 종결어미를 변용하거나 조사를 생략하여 경제성을 추구하기와 같은 것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언어 내용에서는 ①음절 늘리기, ②비표준어 사용하기, ③어미를 변용하거나 호칭과 경어법을 특수하게 사용하기, ④기호를 이용하기 등의 표현성을 추구하기 위한 장치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장소원 2002 참고).

다음으로 자막에 담긴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언어 자체에 대한 연구의 상당수는 자막 언어를 규범적 관점에서 교정하려는 작업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자막 언어의 특성을 밝히고 거기에 들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 내지는 교육 방안이 소개되는 데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 자막 언어가 지닌 문제점이 상당히 밝혀지고 그 대안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자막의 쓰임이 양적으로 더욱 팽창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새로운 양상과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대중매체의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전언(message)를 받는 사람이 다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이선웅 2009).<sup>1)</sup> 그런데

---

1) 이 이외에 대중매체의 언어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더 있다.

- (1) 기본 조건: 특정 매체를 이용한 의사소통이어야 한다.
- (2) 발신자(addresser)와 수신자가 대면적인 상황에 있지 않다.
- (3) 수신자는 발신자로 역할 교대를 하지 않는다.

방송을 제작하는 사람은 소수이지만, 그 프로그램을 보는 다수의 시청자는 이를 이해한다는 의미이므로 시청자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시청자들 다수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해서 통신을 하고 있으며 이때 쓰는 문자 언어는 방송 자막의 말과 닮은 것들이 많다. 따라서 이 둘 간의 비교 및 관련성 연구 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도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자막 언어에 대한 순화론적 관점도 중요하지만 보다 풍부하고도 정밀한 분석 연구가 이루어져 자막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sup>2)</sup>

### 3. 프로그램 종류에 따른 자막 언어의 양상

#### 3.1. 형태적 양상 - 글자체, 색상, 띠의 사용

##### (1) 『8시 뉴스』

여기에 사용되는 글자체는 각이 지고 반듯한 고딕체 계열이 쓰이고 있고 대체로 글자 크기가 큰 편이다. 글자의 색깔은 사용되는 띠(밴드)의 색깔에 따라서 다른데, 파란색 띠에는 흰색 글자가 흰색 밴드에는 검은색 글자가 쓰이고 있다.

##### (2) 『출발! 모닝 와이드』

이 프로그램에서도 띠가 사용된다. 그리고 글자체는 각이 지지 않은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탤릭체가 쓰이기도 하는 등 뉴스에 비하면 한결 다양하게 쓰인다. 글자 크기는 대체로 큰 편이나 큰 것부터 다소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다소 다양하게 쓰이는 편이다. 그리고 글자의 색깔도 흰색, 파란색, 보라색, 청록색, 자주색 등이 쓰여 다양해지고 있으며, 줄을 달리하여 제시되는 자막인 경우 윗줄과 아랫줄이 색깔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그림자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글자의 색깔과 그림자의 색깔이 달리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출연자의 발화 내용이 한 자막 내에 동시에 기록될 때 색깔을 달리하여 발화한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표시하는 용도로 글자의 색깔이 이용되기도 한다.

2) 이와 관련하여 통신 언어를 순화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회 방언의 한 하위 방언으로 논의한 신승용(2005)의 논의가 주목된다. 이 논의에서 통신 언어를 하나의 사회 방언으로 다룬 것은 인터넷 통신이라는 제한된 환경에서만 통신 언어를 쓰고 그 이외의 환경에서는 이 통신 언어가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중시한 결과이다.

### (3) 『한밤의 TV 연예』

여기에서는 출연자의 소개, 장소 소개 등에 띠가 사용되고 있으나 내용의 전달에는 띠가 잘 사용되지 않는다. 이 띠의 모양도 단순히 사각형을 떠나서 화살표 모양으로 한다든지 끝 부분을 살짝 접는다든지 하여 변화를 주고 있다. 글자체는 부드러운 글자체도 많이 쓰며 디자인 요소가 부각이 되는 글자체를 쓰는 등 모양에 변화를 주고 있다. 그리고 수시로 이 글자체를 바꾸어 가며 사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글자의 색깔은 흰색, 파란색, 보라색, 청록색, 자주색, 노란색, 빨간색, 연두색, 보라색 등이 쓰여 다양하다. 또한 자막에 인물의 사진을 삽입하여 자막을 입체적으로 사용하는 양상이 관찰된다. 그리고 인터뷰 장면을 자막으로 처리할 때에는 질문과 대답에 해당하는 자막의 색깔을 달리함으로써 시각적으로 이 둘을 구분하고 있다. 자막이 두 줄 이상 제시될 때에는 윗줄이나 아랫줄에 오는 자막 가운데 하나는 글자 크기를 작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일한 정보를 전달하는 자막에서는 윗줄에 오는 것이 작게 나타난다.

### (4) 『패밀리가 떴다』

여기에서는 출연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코너를 소개하거나 출연자의 심리 등을 표현할 때에 띠가 사용된다. 이 띠의 색깔도 빨간색, 노란색, 고동색 등으로 다양하며 모양은 단순히 사각형인 것도 있으나 장식을 가미하여 화려하게 꾸민 것도 있다. 글자체는 고딕체류와 같이 자막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헤드라인체, 부드럽고 산뜻한 느낌이 드는 글자체, 이탤릭체 등이 실로 다양하게 쓰이며, 지속적으로 이런 글자체가 바뀌어 쓰이는 양상을 보인다. 자막의 색깔은 흰색, 파란색, 보라색, 청록색, 자주색, 노란색, 빨간색, 연두색, 보라색이 사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파스텔 계열의 색깔이 사용되기도 하고 같은 색깔이라도 그 짙고 옅음을 조절되어 있다. 그리고 단순히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된 내용을 전하는 자막의 경우는 크고 반듯한 글자체가 쓰이나, 출연자의 감정을 전달하거나 출연자의 행동상의 특징을 나타내거나 제작자의 논평 등을 할 때에는 정형화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글자체가 쓰인다. 또한 한 자막 내에서도 글자의 색을 이중 혹은 삼중으로 처리하여 시각적인 미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고, 한 자막 내에서도 글자의 크기에 변화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 또한 자막이 수평으로 제시되지 않고 약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기운 사선형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3.2. 자막이 이용되는 양상

#### (1) 『8시 뉴스』

여기에서 자막이 제시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화면 속의 상황이나 장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뉴스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제목을 뽑아서 뉴스를 소개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기자나 앵커나 전달하는 뉴스 가운데 핵심이 되는 내용을 뽑아서 요약해서 제시하는 경우이다. 이에는 관련 동영상을 내보는 상태에서 자막을 하단에 제시하는 방식과 아예 동영상을 중지하고 자막만을 이용하여 제시되는 방식 두 가지가 쓰인다. 셋째는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의 발화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서 제시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실외에서 촬영을 하여 음향 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음성 변조를 하여 정확히 알아듣기 어렵거나, 지나치게 구어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거나, 출연자의 말이 중언부언하여 그 요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경우 등에 널리 사용된다.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는 기자나 앵커의 보도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몇 개에 대해서만 불완전한 문장의 형태로 그 내용을 전달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자막은 뉴스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며, 뉴스 자막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이 한 말을 자막으로 옮기는 것은 정확한 내용 전달을 기하기 위한 것인데, 완전한 형태의 문장으로 제시되는 양상을 보인다.

#### (2) 『출발! 모닝 와이드』

여기에서 자막이 이용되는 경우는 크게 네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는 화면 속의 상황이나 장소, 출연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각 코너의 제목을 뽑아서 소개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진행자가 전달하는 내용 가운데 핵심이 되는 내용을 뽑아서 요약해서 제시하는 경우이다. 여기에서도 관련 동영상을 내보는 상태에서 자막을 하단에 제시하는 방식과 적기는 하지만 아예 동영상을 중지하고 자막만을 이용하여 핵심이 되는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는 방식 두 가지가 쓰인다. 셋째는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의 발화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서 제시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뉴스와 달리 이 프로그램에서는 거의 모든 인터뷰에 대해서 자막을 제시하여 상대적으로 제시되는 자막의 양이 많다. 넷째는 진행자의 질문의 핵심을 자막으로 제시하는 경우이다.

이 프로그램에 이용되는 자막의 길이는 뉴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길다. 또한 인터뷰 자막을 낼 때에는 출연자가 발화한 것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인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자막 상단이나 자막 내에 질문을 병기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글자 크기나 글자체, 색깔을 달리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질문과 답변을 구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양상은 뉴스와는 다소 다른 것인데 뉴스에 비하면 자막 제시의 양상이 다양하고 입체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 (3) 『한밤의 TV 연예』

여기에서 자막이 이용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는 출연자나 상황, 현재 진행 중인 코너나 다음 코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하거나 설명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인터뷰를 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외국인의 인터뷰에 대한 번역문을 제시하는 것이 포함된다. 셋째는 출연자의 감정을 표출할 때 사용되는 경우이다. 이때는 단순히 자막만 제시되는 경우도 있고, 말풍선을 만들고 그 안에 자막을 넣어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넷째는 출연자와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내보낼 때 제작자의 질문을 직접 내보내지 않고 그 요지를 표시하고자 할 때에 제시된다.

### (4) 『패밀리가 떴다』

여기에서 자막이 이용되는 경우는 크게 다섯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는 프로그램에서 대한 설명이나 해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이다. 이에는 출연자의 설명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된다.

둘째는 출연자의 대사를 옮겨서 제시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대체로 출연자의 대사를 거의 다 옮기는 경우도 있고 요점만을 옮기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예능·오락 프로그램인 탓에 대사의 길이가 그렇지 길지 않은 관계로 자막의 길이도 대체로 짧은 편이다.

셋째는 제작진의 논평이나 프로그램 진행상의 발언과 같이 제작진의 생각이나 의도를 드러내는 경우이다. 이는 이 프로그램의 진행에 제작진이 적극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살핀 세 개의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와 같은 경향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넷째는 의태어나 부호를 이용하여 출연자의 행동·표정·심리나 상황 자체를 묘사하는 데에 제시되는 경우이다. ‘부름, 찌릿, 민망, 휘청’ 등의 의태어가 표시되거나, ‘!!!, !!!!!’ 등의 부호가 제시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때 의태어를 표시

할 때에 해당 자막의 주변에 다른 모양을 넣거나 하여 그 분위기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는 화면 바깥에 있는 출연자의 대사를 전하기 위해서 대사를 말한 출연자가 있는 쪽에서 소리가 나오는 것을 형상화한 자막이 제시되는 경우이다. 가령 화면의 왼쪽에 출연자가 있을 경우에는 ‘<자막’, 화면의 오른쪽에 출연자가 있을 때에는 ‘자막>’을 이용하여 출연자의 위치를 표시한다. 이것은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많이 출연자가 등장하는 탓에 전체 화면을 잡았을 경우에는 누가 발화를 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 3.3. 표기의 양상

#### (1) 『8시 뉴스』

뉴스에 쓰인 자막의 표기는 대체로는 문어와 어문 규정을 준수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경향은 인터뷰를 자막으로 처리할 때에 발화 내용 가운데 지나치게 구어적이거나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것들을(예: 그래 가지구→그렇게 해서, 오바→오버) 바꾸어 표기한 예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띄어쓰기 등이 어문 규정에 맞지 않게 제시되거나(예: 일주일동안, 왔다갔다 하는게 될 것 같아요), 발화자의 종결 어미를 잘못 옮긴 경우(예: 큰 실수하신 겁니다(실제 발화)→큰 실수 하신 거다(자막))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아 띄어쓰기가 잘못된 예들이 표기상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문장 부호의 사용은 좀 혼란스럽다. 문장 종결을 나타내는 곳에 온점(.) 사용은 잘 이루어지는 편이다.<sup>3)</sup> 그러나 줄임표(……)의 사용은 문제가 있다. ‘국무총리실·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12개’ 등과 같이 ‘등(等)’에 해당하는 말이 (...)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어문 규정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흔히 (.)나 (...)을 사용하는 경향이 널리 관찰되는 것과 나란한 현상이다. 그리고 ‘스페인 1-0 네덜란드’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스페인 1 : 0 네덜란드’와 같이 (: )으로 표기되어야 할 것이 (-)으로 표기된 예가 있어, 스포츠 뉴스에서는 ‘롯데 2 : 1 두산’과 같이 규정대로 표기된 것과 차이를 보여, 일관된 표기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보여 준다.

3) 그러나 뉴스를 벗어나 시사 교양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 출연자의 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온점(.)의 사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차이를 보인다. 예) “유학하고 나서 잠깐의 실무경력을 쌓고 돌아올 때까지만 그렇게(미국 국적 갖는 것)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결정을 했고요” / “저희가 오만하고 동물이고요 브루나이하고 5.5 동물입니다”

### (2) 『출발! 모닝 와이드』

이 프로그램에 쓰인 자막의 표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완전한 문장으로 끝났는데도 온점(.)을 잘 찍지 않는 경향이 널리 관찰된다는 것이다. 완전한 문장으로 끝난 거의 모든 인터뷰 자막의 끝에 온점이 쓰이지 않았다. 그리고 설명을 하는 데에 쓰인 쌍점(:)을 쓸 때에 앞뒤를 모두 붙이고서 쓰는 경향이 있다. 공간의 여유가 있는데도 이런 양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느낌표의 사용이 상당히 관찰된다는 것도 주요한 양상이다. 이는 뉴스에서는 관찰하기 어려웠던 양상으로 감정적 요소를 활용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덜 딱딱한 이 프로그램의 특성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 (3) 『한밤의 TV 연예』

이 프로그램에서도 주목되는 것은 문장 부호의 사용이다. 『8시 뉴스』나 『출발! 모닝 와이드』에 비해 이 프로그램에는 느낌표(!), 물음표(?), 줄임표(...), 물결표(~)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반면에 종결 어미 다음에서의 온점(.)의 사용은 거의 보이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접속 조사인 ‘와/과’가 와야 할 자리에 (&)나 (\*)와 같은 부호를 사용하여 접속의 기능을 나타내기도 한다.

다음으로 출연자가 표준 발음을 구사하지 못하거나 준말을 사용하거나 비속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자막은 바로잡아 제시되는 경향이 보인다. 이와 같은 양상은 뉴스나 교양 프로그램에서도 관찰된 양상으로 표준어로 자막을 제시하는 기본 원칙에 충실하고자 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살아계신 자신의 아버지를 일러 ‘아버님’이라고 가리킨 경우에도 자막에서는 ‘아버지’로 써 줌으로써 표준 화법에 맞게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엄지원 보다 아름다운 스타 엄지원”과 같이 조사를 띄어 쓴 경우도 있고, ‘테이프 교체중’과 같이 ‘중’을 앞말과 띄어서 쓰지 않아, 띄어쓰기가 잘 못된 자막이 쓰이기도 했다. 또한 체언 다음의 ‘같은’을 앞말에 붙여 쓴 예가 많이 보이며, ‘인기있는, 치료전, 치료후, ‘어려보이다’와 같이 띄어 써야 할 부분을 붙여 쓴 예들도 상당히 보인다.

또한 웃음을 나타내는 데에 ‘ㅋㅋ, ㅋㅋㅋ’와 같이 초성에 쓰인 자음만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음절을 해체하고 그 가운데에서 초성만을 취한 것으로 탈규범적인 것이다. 자음을 두 개만 쓴 것에 비해서 세 개를 쓴 것은 웃음의 정도가 강한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issue, new, photo, start, CULTWO IS COMEBACK, R&B’와 같이

영어를 자막에 그대로 노출하거나, 둘 사이의 대비를 나타낼 때에 쓰이는 의존 명사 ‘대(對)’ 대신에 영어 약자인 VS를 쓰는 경향이 관찰되는 등 외래어를 그대로 쓰는 경향이 관찰된다.

(4) 『패밀리가 떴다』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문장 부호 내지는 여러 부호가 매우 많이 쓰인다는 것이다. 이런 것에는 (!) (?), (...), (~), (?!), (&), (♥), (♫) 등이 있다. 실제로 이들이 쓰인 양상을 부호별로 정리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2] 자막에 사용되는 문장 부호 및 여러 부호

부호	자막의 예
!	너무 잘해요~, 입방정 떨지 마!!, 와아악~!!!, 이 상태로 바로 도전?!, !, !!!, !!!!!
?	오~ 제법 차는데...?, 기사도 정신 발휘하는...?, 또 봉선의 심리전??, ????
...	일단 연습부터..., 도전에 앞서 연습의 기회가..., 자신만만 양발로 찰까요? 어떻게..., 영성한 자세로...고작 두 개!, 긴장한 윤아...
~	덜덜덜~, 덜덜덜~~~, 은이의 친절한 코치~, 파이팅~, 네가 잘했다~
?!	웬 닭살...?!, 제기차기의 전통자세?!, 생각보단 근수가 있구나?!, 바닥만 보이고 물고기가 안 보인다?!, 버럭 뭐?!
&	은이&택연, 상렬&경실, 조권&소이현, 동민&윤아, 희철&정아, 상현&봉선
♥	정아♥희철 팀, 넌 어쩔 그렇게 자상하니~♥, 맛있겠다 ♥, 조권♥소이현 커플 탄생
♫	♫네가 잘했다~, ♫오빠 한번 믿어봐~

이런 부호의 사용은 『한밤의 TV 연예』에서도 관찰되는 것이기는 하나 『패밀리가 떴다』에서의 사용 빈도가 월등히 높다. 또한 같은 기호를 두 개 혹은 세 개를 연이어 쓰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다른 기호를 두 개 연이어 쓰는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 영어를 한글로 표기하지 않고 알파벳 그대로 표기한 예들도 ‘VS, wow, GO GO’ 등에서 관찰되어 『한밤의 TV 연예』에서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것과 나란한 양상을 보인다. 이런 면을 볼 때 외래어를 원어 그대로 표기하는 방식이 연예·오락 프로그램에서는 상당히 관찰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 3.4. 사용 어휘의 양상

#### (1) 『8시 뉴스』

이 프로그램은 하루 동안의 소식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뉴스다보니 정제되고 사전에 기초한 정제된 언어가 널리 쓰인다. 그리고 구어체에서 널리 쓰이는 어형의 경우 문어체로 바꾸어 제시되는 등 문자 언어로서의 자막의 전형적인 양상을 가장 잘 보여 준다.

#### (2) 『출발! 모닝 와이드』

이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어휘는 대체로 뉴스와 비슷하나 주부들이 널리 쓰는 말과 같이 생활 속에서 쓰이는 어휘들이 많이 쓰이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요즘 새태를 반영한 ‘원푸드 다이어트’와 같은 용어의 사용이 눈에 띈다.

#### (3) 『한밤의 TV 연예』

이 프로그램의 자막에 쓰인 말에는 줄임말이나 신조어가 꽤 쓰인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밀당(밀고 당기기), 흑형(흑인 형님), 얼마큼(얼마만큼), 셀카(셀프카메라), 핫팅’ 등과 어휘 형태소와 문법 형태소가 줄어든 것을 그대로 표기한 ‘그 시절엔’, ‘어섭니다’ 등의 예들이 있다. 다음으로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느끼버전, 감적버전, 까아~버전’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밀당, 흑형’과 같은 말은 頭字語의 성격을 지닌 것이고 흑인 가수 어서의 인터뷰 내용 가운데 인사말을 옮기는 데 “방가 방가~어섭니다”와 소리 나는 대로 그 형태를 적은 말들도 있다.

그리고 ‘뉴스 다이어리, 롤모델, 핫 아이템’과 같은 외래어 구를 거르지 않은 채 자막에 그대로 사용한 예들도 보인다. 이 중 ‘뉴스, 모델, 아이템’ 등은 실생활에서도 널리 쓰이는 말이지만 하나 ‘롤’과 같이 잘 쓰지 않는 외래어도 사용되었다.

#### (4) 『패밀리가 떴다』

이 프로그램의 자막에 쓰인 말은 그 유형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신조어나 신조 방식의 어휘가 상당히 많이 쓰인다. 가령 ‘청순녀, 훈남, 급홍분, 급소심, 급허기진’과 같은 이에 해당한다.

둘째, 여기만으로 이루어진 의태·의성 표현이 많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릅, 찌릿, 걱정, 민망, 휘청, 찢찢, 뻘뻘, 째째, 짜증, 간죽, 앙탈, 비장, 벌러덩, 눈치 눈치, 오~대단, 빼끗, 깡깡, 섭섭, 중얼, 출쌩, 불안, 답답, 막막, 버럭, 깜짝, 까칠, 앙탈, 무감각, 간절, 무안, 허탈, 깨갱, 흐뭇, 에고에고’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출연자의 심리 상태나 언행 등에 대한 느낌 따위를 표현하는 데에 쓰이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좀 더 입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요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사용 빈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이처럼 여기만을 가지고서 자막으로서 표현을 하는 것은 완전한 어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면에서 낮은 면이 분명히 있다.

셋째, 외래어 및 외국어가 많이 쓰인다. 이에 해당하는 예로 ‘아트, 커플, 파트너, 쿨한 척, 타임, 미라클, 럭셔리, 굿잡, 미라클, 댄스, 스텝, 러브라인, 타이밍, 니킥’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에는 상당한 사용 계층을 확보하여 낮은 느낌이 적은 것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것도 적지 않다. 그리고 외래어 가운데에서도 ‘굿잡, 러브라인’과 같은 구 구성이 쓰인다는 점에서 상당히 외래어의 쓰임이 확대된 양상을 보여 준다.

넷째, 요즘의 세태를 반영하는 어휘들이 쓰인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품 등 근육’, ‘럭셔리’ 등을 들 수 있다.

### 3.5. 문장의 양상

#### (1) 『8시 뉴스』

이 프로그램의 자막에 쓰인 문장의 양상이라고 한다면 먼저 불완전 문장이 많이 쓰이며 조사의 생략이 상당히 널리 관찰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 (2) 『출발! 모닝 와이드』

이 프로그램의 자막에 쓰인 문장은 대체로 평이하나 “체지방 분해와 콜레스테롤에 효과적인 전어”와 같이 필요한 문장 성분의 일부가 탈락한 예들이 보인다.

#### (3) 『한밤의 TV 연예』

이 프로그램의 자막에 쓰인 문장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된 채 제시되는 것들이 많다는 점이다. 이에 해당하는 예로 낚시를

하는 상황에서 나온 “그러나 꼼짝도 않는...”, “슈퍼주니어 5집 감사에는...”, “상견례를 하기로 한” 등을 들 수 있다.

#### (4) 『패밀리가 떴다』

이 프로그램의 자막에 쓰인 문장은 완전한 서술문으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문장 성분의 일부가 제시되지 않은 문장들이 많다. 예를 들면 “본인이 너무도 자랑스러운..., 급한 마음에 짜증, 냇가 설명하기 애매한..., 어이없는, 어느덧 아트 모내기 끝이 보이는...”과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나 ‘...’과 같은 줄임표를 이용하여 문장 성분을 생략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 4. 자막 언어의 특징 분석 및 관련 요인 고찰

### 4.1. 형태상의 특징 및 관련 요인

글자체의 종류와 색상의 종류는 ‘8시 뉴스→출발! 모닝 와이드→한밤의 TV 연예→패밀리가 떴다’로 갈수록 다양해진다. 즉 보도 프로그램, 교양 프로그램, 연예, 오락 프로그램과 같은 성격에 따라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인다고 정리할 수 있다. 글자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뉴스 프로그램은 단순함과 차분함, 각진 이미지와 냉정한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는 반면에 교양 프로그램에서는 각진 글자체의 사용이 줄어들고 좀 부드러운 글자체의 사용이 늘어난다. 반면에 연예·오락 프로그램에서는 부드럽고 개성 있는 글자체가 많이 쓰이는데 이는 그만큼 이 프로그램이 격식보다는 개성을 드러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특성은 글자의 색깔에서 더욱 확연히 나타난다. 『8시 뉴스』에서는 글자 색으로 흰색과 검은색을 쓰고 띠의 색깔로는 파란색과 흰색을 쓰는데, 이는 깨끗하고 객관적이고 신뢰감이 있는 느낌을 전해 준다. 『출발! 모닝 와이드』에서도 뉴스와 같은 유의 색이 사용되나 화제에 따라서는 보라, 자주와 같은 색깔도 쓰여서 뉴스와 같은 딱딱함은 느껴지지 않는다. 다양한 색이 사용되는 경향은 『한밤의 TV 연예』로 가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패밀리에서는 더욱 극대화되어 화려함을 느낄 정도이다. 이는 연예·오락 프로그램이 화려함, 다양함, 부드러움, 재미를 추구하는 성격의 프로그램이라는 점과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청자층이 뉴스나 교양 프로그램은 주로 성인인데 비해서 연예·오락 프로그램은 젊은층과 청소년들이 주된 시청자층이라는 점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 4.2. 자막이 이용되는 경우의 특징 및 관련 요인

자막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상황, 장소, 핵심 내용, 출연자의 인터뷰나 발화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 이용된다. 정보 전달이 주된 목적인 뉴스에서는 프로그램 진행 중에 동영상을 멈추고 화면 전체를 자막을 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교양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양상이 간혹 관찰된다. 반면 연예·오락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양상이 없어서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모든 프로그램의 1차적인 정보를 시청자에게 전달해 주는 것과는 달리 연예·오락 프로그램에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출연자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시하는 데에 자막을 쓰는 경우가 눈에 띈다. 특히 『패밀리가 떴다』에서 이런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자막을 단순히 정보 전달의 수단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재미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 즉, 자막을 제작진이 프로그램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재미와 성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제작진이 출연자들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고 있는 것과 같은 특징을 느끼게 하는데 소설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여 등장인물의 마음속까지 작가가 읽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연예·오락 프로그램의 경우는 출연진이 많고 프로그램의 진행이 상당히 빨라서 동영상만으로는 그 정보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문자나 기호를 이용하여 정보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입체적인 성격과 진행 속도에 맞추어 자막도 그 기능이 다양해지는 것으로서 단순히 보조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 준다. 이는 자막의 역할이 뉴스나 교양 프로그램에 비해서 격상된 것임을 보여 준다.

## 4.3. 표기상의 특징 및 관련 요인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8시 뉴스』→『출발! 모닝 와이드』→『한밤의 TV 연예』→『패밀리가 떴다』의 순으로 갈수록 규범의 영향력이 느슨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을 추구하는 프로그램과 흥미를 추구하는 프로그램의 성격과 상관관계를 맺는 것으로 긴장된 프로그램과 이완된 프로그램의 차이를 보여 준다.

이 중 몇 가지 주목되는 것이 있었는데, 먼저 문장 부호나 기호의 사용에서 눈에 띄는 점이 많다. 문장 부호의 사용에서는 우선 온점(.)을 잘 찍지 않는 경향이 교양 프로그램, 연예, 오락프로그램에 걸쳐서 넓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관찰되었는데, 표제어가 아닌 데에도 이와 같이 온점(.)을 찍지 않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sup>4)</sup>

다음으로 문장 부호를 겹쳐 쓰거나 여러 부호를 병행해서 쓰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은 『패밀리가 떴다』에서 집중적으로 관찰된다. 먼저 동일한 부호를 겹쳐서 쓰는 것은 해당 부호가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할 때 행동이나 느낌의 정도가 강하다는 것을 표시하려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이 프로그램에서 ‘덜덜덜’이 ‘덜덜덜~’, ‘덜덜덜~ ~ ~’과 같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부호가 여러 개 쓰인 것이 ‘덜덜덜’의 정도가 강함을 표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특징은 문장 부호로서가 아닌 심리나 분위기를 표시하는 부호로서 쓰인 느낌표(!)의 경우에 확연히 드러난다. 이런 용도의 느낌표(!)는 1개만 쓰인 경우도 있고, 3개, 5개가 쓰인 경우도 있는데, 중복되어 쓰일 때에는 ‘!→!!→!!!’, ‘!→!!→!!!→!!!!→!!!!!’과 같이 시간차를 두고 연속적으로 제시되어 느낌표(!)로 나타내고자 하는 심리나 분위기의 정도가 점점 세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또한 이 부호가 쓰인 장면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또 봉선의 심리전??’의 경우도 ‘또’라는 말을 참고하여 볼 때 봉선의 심리전이 한 번 있었는데 다시 봉선의 심리전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정도가 강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부호를 병행해서 쓰는 경우는 ‘~!, ~!!!, ...?, ...?’ 등의 사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을 예로 들어 보면 ‘제기차기의 전통자세?!, 생각보단 근수가 있구나?!’와 같은 자막은 단순한 물음이라기보다는 반문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면에서 복합적인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부호가 병행해서 쓰이는 경우에는 느낌표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출연자나 제작진의 복합적인 느낌을 전달하려는 목적이 강함을

---

4) 그런데 이와 같은 양상은 SBS뿐만이 아니라 MBC, KBS 및 여러 케이블 방송사의 프로그램에서도 두루 관찰되는 현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실태 조사 및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패밀리가 떴다』에서는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와 같이 의태어를 적는 데에 초성만을 적은 예들이 관찰되었다. 이와 같이 초성만으로 의태어를 적는 것과 부호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양상은 다음과 같은 10대나 20대가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통신 언어 및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의 사용 양상과 유사한 면이 있다.<sup>5)</sup>

[표 3] 통신 언어의 의태어 및 부호의 표기

구분	실례 <sup>6)</sup>
의태어 표기	ㅎㅎㅎ(←ㅎㅎㅎ), ㅋㅋㅋ(←ㅋㅋㅋ), 키디키디(←키디키디), 츠카츠(←추카추카←축하축하), ㄱ사ㄱ사(←감사감사)
부호	언니얌~ 훌페이줘~넘 이뿌닷.../지수니미 다 채김져웃!!!!/ 메~~~에~~~렁/강, 다음에 보는게 어떨까요?? 월울쫂..??

이를 보면 방송 자막의 표기 양상은 인터넷 통신상에서의 언어 사용 양상과 유사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통신 언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의 표기는 방송 자막에 비하면 그 정도가 한결 높다. 그 근거 중의 하나로 이모티콘의 사용이 통신 언어에서는 아주 흔한 현상이나 방송 자막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연예, 오락 프로그램의 자막 표기가 이와 같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의 통신 언어와 관련된 면이 있는 것은 이들의 시청자가 주로 10대와 20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뉴스나 교양 프로그램과 연예·오락 프로그램의 표기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시청자층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5) 이와 같이 자음과 모음을 분리하여 표기하는 양상은 인터넷에서 대화를 하면 게임을 하는 유아들의 통신 언어에서도 많이 나타남이 연구된 바 있다(홍정호 2008 참고). 따라서 인터넷 환경에서 이런 언어 사용 양상은 아주 어린 나이에 습득할 정도로 상당히 넓게 퍼져 있다.

6) 이 예들은 노진서(2004), 신승용(2005), 박철주(2006) 등을 참고하여 뽑은 것이다.

#### 4.4. 사용 어휘상의 특징 및 관련 요인

어휘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보면 뉴스나 교양 프로그램에서는 비교적 정제된 어휘가 쓰인다. 반면에 연예·오락 프로그램에서는 줄임말, 신조어, 외래어, 의태어, 유행어 등이 많이 쓰이는 경향이 관찰된다.

첫째, 줄임말의 예로는 ‘밀당(←밀고 당기기), 흑형(←흑인 형님), 얼만큼(←얼마만큼), 셀카(←셀프카메라), 핫팅(←화이팅←파이팅)’ 등이 있다. 이 중 ‘밀당, 흑형’과 같은 말은 頭字語의 성격을 지닌 것이고, ‘핫팅’은 축약되면서 받침이 첨가된 예로 외래어 표기법과는 맞지 않은 표기이다.

둘째, 신조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느끼버전, 감쪽버전, 까야~버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구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이나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다.<sup>7)</sup> 이는 고유어와 외래어의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일종의 혼종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급홍분, 급소심, 급허기진’과 같이 ‘급’을 접두사처럼 써서 체언이나 용언의 어기에 연결한 예들이 많이 보인다.

셋째, ‘뉴스 다이어리, 롤모델, 핫 아이템, 니키킨, 아트, 커플, 파트너, 쿨한 척, 타임, 미라클, 럭셔리, 굿잡, 미라클, 댄스, 스텝, 러브라인, 타이밍’과 같이 외래어들이 널리 쓰인다. 이와 같은 외래어의 쓰임에서 주목되는 것은 영어로 된 구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외래어가 하나의 어휘에서만 쓰이기보다도 구 차원까지 그 쓰임이 확대되는 양상을 반영한 것으로 요즘의 외래어 사용이 확대된 실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넷째, 의태 표현이 많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름, 찌릿, 걱정, 민망, 휘청, 찼찼, 빠히, 짜증, 간죽, 앙탈, 비장, 벌러덩, 눈치 눈치, 삐끗, 킁킁, 섭섭, 증얼, 출썩, 불안, 답답, 막막, 버럭, 감짝, 까칠, 앙탈, 무감각, 간절, 무안, 허탈, 깨갱, 흐뭇, 에고에고’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출연자의 심리 상태나 언행 등에 대한 느낌 따위를 표현하는 데에 쓰이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좀 더 입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요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사용 빈도가 매우 높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는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것도 많이 있어서 국어의 어휘 사용 면에서 볼 때에는 어색하다. 어근이든 어간이든 이처럼 어기만을 가지고서 감정이나 행동을 묘사하는 자막으로서 쓰는 것은 완전한 어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면에서 낮은 것이다.

7) ‘까야~버전’이 구임을 보여 주는 근거로 생각된다. 그런데 ‘느끼버전, 감쪽버전, 까야~버전’ 등의 예를 복합어로 본다면 ‘어근+(외래어) 명사’의 구성으로 된 것으로 비통사적인 구성 방식으로 이루어진 말이 된다.

다섯째, 요즘의 세태를 반영하는 어휘들이 쓰인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품 등 근육’, ‘럭셔리’ 등을 들 수 있다.

여섯째, 공격적인 내용을 담은 어휘나 표현이 쓰인다. 이런 경향은 『패밀리가 떴다』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나 게임 도중에 펼쳐진 여러 돌발 상황에서 흥분한 출연자가 보인 언행을 자막으로 표시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경향이 반영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이와 같은 어휘의 사용 양상은 양적으로 볼 때 『한밤의 TV 연예』보다 『패밀리가 떴다』에서 더 두드러진다. 전자는 보도 프로그램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전달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후자에 비해서 10대나 20대의 언어사용 양상을 덜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하여 보면, 세대의 언어사용의 경향이 이런 어휘 사용의 양상과 상관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인터넷 통신 언어나 휴대전화 문자 언어의 사용 양상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통신 언어의 준말 및 의태어 표기

구분	실례 <sup>8)</sup>
준말	그러케(←그렇게)/어소세요(←어서오세요)/설(←서울)/섬(←시험)/넬(←내일)/화올(←화요일)/첨(←처음)/잼(←재미)/근데(←그런데)/어케(←어떻게)/함(←한번)/강(←그냥)/하튼(←하여튼)/막방(←마지막 방송)/빠(←오빠)/컴(←컴퓨터)/등업(←등급 업그레이드)/눈팅(눈으로 하는 채팅)/멜친(메일 친구)/노템(노 아이템)/멜팅(메일 미팅)/ 즐겜(즐거운 게임)
의태어	므훗, 허걱, 빠싱, 휘리릭, 뽀뽀, 샤방, 뽀샤시

이와 같은 양상을 보면 인터넷 통신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서 준말이나 의태어가 널리 쓰이는 것과 연예·오락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표현이 널리 쓰이는 것이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나 『패밀리가 왔다』의 의태어 사용은 신조어라고 볼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의태어로서의 용법도 지니게 되었다는 면에서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요즘의 의태어 사용이 대폭 증가하는 세태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이 중 준말은 노진서(2004), 박철주(2006)을 참고하여 뽑은 것이고, 의태어는 박철주(2007)에서 뽑은 것이다.

그리고 이들 이외에도 만화에서 보이는 의태어들도 굉장히 많은데(박철주 2007 참고)<sup>9)</sup>, 만화에서 쓰이는 의태어는 방송에서 쓰이는 것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패밀리가 떴다』에서도 말풍선을 이용하여 출연자의 심리나 생각을 표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여 보면 만화에서의 제시 방식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4.5. 사용 문장의 특징 및 관련 요인

방송 자막에 쓰인 문장들은 출연자의 발화를 그대로 옮겨서 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가 불완전 문장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문장으로 제시하기에는 공간의 제약 화면 가운데 대체로 아래 부분만을 이용해야 하는 제약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연예·오락 프로그램에서는 “본인이 너무도 자랑스러운...” 등과 같이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진 채 제시되는 자막이 참으로 많다. 이는 단순히 공간의 제약으로만 볼 수는 없고, 의도적으로 선택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체로 줄임표를 이용하여 끝을 맺고 있는 이런 형태의 문장은 여운을 남기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실제 프로그램상에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제시되지 못한 말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이를 통해서 볼 때 이런 형태의 문장이 최종적인 판단은 시청자의 몫으로 남겨 두는 장치로써 이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한편으로는 시청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차원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은 필수 성분이 빠져 있는 문장의 제시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는 면에서 진짜 생략이 필요한 부분에서 제작진이 기대한 바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해 줄지는 의문이다.

---

9)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푸컱, 삐질삐질, 뜨아, 찌릿, 뽕, 풍, 띠용, 샤링, 찜, 찝찝, 뽕뽕, 탁탁탁, 푸다닥, 다단, 투다다다, 척척척, 파앗, 타앗, 슈우욱, 파파박, 피웅, 파바바, 파파팻, 깨굴, 띠잉, 뽕용, 둥, 두둥, 쿵, 째, 짜잔, 쿵, 쿠궁, 쿵야, 뽕롱, 팻, 파앗, 뽕까번쩍’ 등이 있다.

## 5. 나오며

이상으로 보도, 교양, 연예, 오락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별 방송 자막의 형태, 제시 양상, 표기, 어휘, 문장 등의 양상 및 기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예, 오락 프로그램으로 갈수록 자막의 형태나 기능이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막을 다양한 용도로 쓸수록 자막을 통해서 제작진이 프로그램에 많은 개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언어 자체에 관한 특징으로서는 연예·오락 프로그램으로 올수록 부호, 줄임말, 신조어, 외래어, 의태어 등이 많이 쓰이는 양상을 보였다. 이런 경향은 10대와 20대 등의 젊은층의 언어사용 양상이 많이 반영된 특징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젊은층이 컴퓨터 통신이나 게임을 통하여 온라인상으로 다양한 대화를 나누는 방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컴퓨터 통신이 발달하기 전에는 방송과 신문 언어의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하였으나, 컴퓨터 통신이 발달한 이후에는 사람들이 컴퓨터와 접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컴퓨터 통신상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고, 여기에서 형성된 언어사용 습관이 방송 언어에도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방송 언어의 실태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통신 언어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방송 언어와 컴퓨터 통신 언어 사이의 관계를 정밀하고 입체적으로 파악하여 상호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방송 언어의 정체성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방송 자막의 언어사용 실태는 컴퓨터 통신 언어의 언어사용 실태와 비교할 때 그래도 규범에서 어긋난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다.<sup>10)</sup> 이런 점에서 방송사가 방송 자막의 언어를 잘 정비하여 제시한다면 우려하고 있는 언어의 오염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디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며, 국어 교육적인 용도로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10) 이와 관련한 내용은 인터넷 통신 언어의 사용 현황에 관한 이시훈(2004)의 연구에서 논의된 내용과 유사성을 지닌다.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은 은어의 사용, 외래어와 외국어의 사용, 방언형 용어의 사용, 폭력적·공격적 언어 사용, 욕설의 기호 표현 사용이 인터넷 포털의 통신 언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반면 방송사의 포털 사이트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 〈 참고문헌 〉

- 강준만(2008), 「TV ‘자막공해’를 위한 변명」, 『신문과 방송』, 한국언론진흥재단, 52-53.
- 김봉섭·이인희(2007), 「언어를 매개로 하는 실재감 구성요인 연구-통신언어와 문자언어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2, 한국방송학회, 138-178.
- 김중신(2009), 「TV 자막 언어의 서사성과 의미에 대한 연구-리얼 프로그램 〈1박 2일〉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22, 한국독서학회, 49-77.
- 노진서(2004), 「언어 유희적 측면에서 본 통신 언어의 특성」, 『인문사회과학 논문집』 33, 광운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51-68.
- 박건숙(2010), 「인터넷 통신에 나타난 정보 지시 표현의 언어학적 연구-형태 및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31, 한국어교육학회, 281-309.
- 박철주(2006), 「PC 통신언어 명사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교육』 119, 한국어교육학회, 457-486.
- 박철주(2007), 「신조 의태어의 실태와 문제」, 『한국어학』 35, 한국어학회, 305-333.
- 박철주(2008), 「통신언어의 생성 기제 연구-XP+XP 축약형 명사와 X+X 축약형 명사를 중심으로」, 『언어과학연구』 45, 43-64.
- 신승용(2005), 「사회방언으로의 통신언어의 위상 재정립」, 『한민족어문학』 46, 한민족어문학회, 75-102.
- 윤여탁·손예희·송여주·정지민(2009), 「학교 현장에서의 인터넷 언어 사용 실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36, 국어교육학회, 425-463.
- 이명진(2008), 「TV 프로그램 속 영상자막의 활용 및 표현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27,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 27-40.
- 이선웅(2009), 「대중매체 언어 연구의 현황과 과제-신문, 방송, 인터넷 통신 언어에 대한 최근 연구를 중심으로」, 『어문학』 103, 한국어문학회, 117-142.
- 이 성(2003), 「프로그램별 유형별 방송 자막의 활용 현황과 그 문제점에 대한 연구: 공중파 방송 3사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단국대 석사논문.
- 이수연(1998), 「텔레비전의 서술방식과 시청자의 주체성(subjectivity): 코믹한 자막의 예를 통하여」, 『98 한국방송학회 가을철 학술대회』, 한국방송학회, 7-24.
- 이시훈(2004), 「인터넷 통신언어의 사용 현황과 인식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4-1, 한국지역언론학연합회, 177-221.

- 이은표(1997), 「TV 자막 방송의 개념 및 파급효과」, 『방송공학회지』 2-4, 한국방송공학회, 13-16.
- 이주행(1999), 「텔레비전 자막에 쓰인 언어에 관한 연구」, 『화법연구』 1, 한국화법학회, 201-220.
- 이주희(2010), 「통신언어의 표기와 음운적 특성」, 『언어연구(Linguistic Research)』 27(1), 경희대 언어연구소, 1-18.
- 장소원·남윤진·이홍식·이은경(2002), 『말의 세상, 세상의 말』, 월인.
- 정수영(2009), 「TV 영상자막의 특징 및 기능에 관한 연구: 지상파TV 3사의 리얼 버라이어티쇼를 중심으로」, 『한국언어학보』 53-6, 153-176.
- 주형일(2000),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의 생산과 수용에 대한 매체기호학적 연구를 위한 제언: 한국 텔레비전 자막 사용이 갖는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5, 한국언론정보학회, 75-115.
- 한성우(2004가), 「자막의 효율적 이용 방안에 대한 연구」, 『방송과 우리말』 창간호, 문화방송 우리말위원회, 186-272.
- 한성우(2004나), 「텔레비전 자막의 작성과 활용에 대한 연구」, 『텍스트언어학』 17, 텍스트언어학회, 377-402.
- 홍정호(2008), 「네트워크 기반 게임의 통신언어에 나타나는 유아 언어파괴, 은어 및 비속어 사용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논총』 17, 부산유아교육학회, 63-79.
- 홍종선(2010), 「텔레비전 방송 자막의 한글 연구」, 『우리어문연구』 37, 우리어문학회, 31-54.
- 홍준식(2004), 「텔레비전 오락프로그램의 자막사용에 대한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 라디오 인터뷰의 담화 구조와 말하기 전략에 대한 국어 교육적 검토

문 병 열 (홍익대) · 최 혜 림 (SBS)

## 1. 서론

현행 국어 교육과정은 이전의 개별적·독립적·탈맥락적인 지식의 학습을 지양하고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국어의 생생한 모습을 학습의 대상 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 또한 ‘실제’ 범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국어 교육과정은 다양한 대중 매체의 언어를 학습의 대상 자료로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말하기 전략을 분석하고 학습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매체 언어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알 수 있게 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대중 매체에는 TV 프로그램과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다. 이 중 라디오 프로그램은 TV 프로그램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성들을 보여주는데 라디오의 진행자는 영상매체의 진행자와는 달리 자신의 청취자를 마치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듯 대하면서 말을 하며, 청취자들의 반응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는 특성을 지닌다.<sup>1)</sup> 이러한 특성은 인터뷰 형식의 담화에서도 나타난다. 진행자와 대담자의 모습이 영상을 통해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라디오 프로그램의 인터뷰 진행 양상은 영상매체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현행 8학년 듣기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두 사람 이상의 진행자나 참여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여 라디오 프로그램의 특성 이해하고 진행자의 말하기 전략을 분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매체 언어에 대한 이해와 함께 매체 언어에서 사용되는 말하기 전략을 학습하기 위한 것이다.

---

1) 교육과학기술부(2008: 54)에서 발췌 요약함.

이는 현행 국어 교육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기도 하다.

본고는 라디오 프로그램 중 특히 인터뷰를 대상으로 하여 국어과 8학년 듣기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과 내용 요소를 고려하여 라디오 인터뷰의 담화 구조와 담화 참여자들의 말하기 전략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말하기 전략에는 접속 부사, 접속 어미, 간투사 등 여러 기능 요소들이 사용되는데 본고는 이중 접속 기능어들의 용법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다.

## 2. 라디오 인터뷰의 담화 구조 분석

라디오 프로그램의 인터뷰는 하나의 담화 또는 텍스트를 구성한다.<sup>2)</sup> ‘의미론적으로 연결된 내적 구조를 가지는 언어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윤석민 1989: 5). 라디오 인터뷰가 하나의 텍스트인 이상 이는 의미적인 내적 구조를 가질 것이고, 이에 대응되는 언어적인 연결고리를 보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전자를 ‘담화 구조’로, 후자를 ‘말하기 전략’으로 파악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라디오 인터뷰를 하나의 텍스트로 간주할 경우 라디오 인터뷰가 속하는 텍스트의 부류는 대략 다음과 같다.

Brinker(1985/2002)에 의한 텍스트의 분류

기준	분류		예
텍스트 기능	제보 텍스트		뉴스, 보도, 서평 등
	호소 텍스트		광고, 논평, 법규 등
	책무 텍스트		계약, 보증서 등
	접촉 텍스트		감사, 조의문 편지 등
	선언 텍스트		유언, 임명장 등
의사소통 형태	대화적		직접(대면) 대화, 전화
	독화적	구두적	TV, 라디오 등
		문자적	편지, 신문기사, 서적 등
행위 영역	사적		사적인 대화, 편지 등
	공적		법규, 안내문 등
	공공적		대중 매체
텍스트 주제	발화 시점과 주제와의 관계		
	생산자 및 수용자와 주제와의 관계		
주제 전개 방식	기술		뉴스, 보고 등
	서사		문학 작품
	설명		교재, 학술논문 등
	논증		서평, 학술논문 등

위의 표 중 음영이 들어간 부분이 라디오 인터뷰와 관련되는 텍스트 종류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1) 분석 대상 프로그램

- ㄱ. SBS 라디오 프로그램
  - 정석문의 섹션라디오
  - 최영주의 SBS전망대
  - 한수진의 오늘
  - 배성재의 행복한 아침
- ㄴ. MBC 라디오 프로그램
  - 손석희의 시선집중
- ㄷ. KBS 라디오 프로그램
  - 황정민의 FM대행진

(1)은 모두 두 사람 이상의 진행자나 참여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인터뷰’를 포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터뷰’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인터뷰 이외의 부분들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텍스트 분석을 위한 텍스트의 구성 요소에 대한 논의는 학자마다 이견을 보인다. Longacre(1979: 115-134)의 ‘텍스트 --- 문단 --- 문장’, Hinds(1979: 140-145)의 ‘글분절(Segment)’, 전병선(1995: 25-28)의 ‘단편’, ‘문장군’, 유동엽(2008)의 ‘소텍스트’, ‘글분절’ 등이 그것이다. 본고는 라디오 인터뷰의 텍스트 구성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것이다.

### (2) 라디오 인터뷰의 텍스트 구성 요소

텍스트(T) --- 소텍스트(t) --- 글분절(s) --- 문장

하나의 라디오 인터뷰를 텍스트(T)로 하고, 텍스트의 하위 구성요소로 소텍스트(t)를 상정하고 소텍스트의 하위 구성요소로 글분절(s)을 설정한다. 이들 텍스트 구성요소들은 모두 의미적인 단위로 개별 문장들을 묶은 것이다.

위와 같은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라디오 인터뷰의 주제 전개 구조를 살펴보면 라디오 인터뷰 텍스트는 주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보인다.

### (3) 라디오 인터뷰의 주제 전개 구조



다음은 “정석문의 섹션 라디오”, “배성재의 행복한 아침”, “황정민의 FM 대행진” 등의 인터뷰 텍스트 구조를 보인 것이다.

### (4) 인터뷰 텍스트의 담화 구조

ㄱ. 정석문의 섹션 라디오 1부(10. 07. 11)

주제: 스포츠 관련 이야기(T)

주제 도입부	s1: 스포츠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들을 들어봅니다. s2: 스포츠 무림기행 경향신문의 이용균 기자와 함께 합니다. s3: 안녕하세요? s4: 네, 안녕하세요.	- 주제 제시 - 대담자 소개 - 인사
주제 발전부 I	s5: 우리를 이기고 사강에 올랐던 우루과이가 네덜란드한테 졌었는데, s6: 포를란 선수가 설욕을 꿈꿨었다면서요? ⋮ s97: 예, 그게 아주 익숙해지기 쉽다고 그러합니다. s98: 야구에서도 형제 야구 선수 이런 거 많잖아요. ⋮ s127: 가장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 정수근, 정수성이 형제가 아, 가장 지금까지 주목받았던 형제 야구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 가족끼리 같은 팀의 선수 또는 감독(t1) - 축구의 경우(t1.1) - 야구의 경우(t1.2)

주제 발전부 II	s128: 자 이제 다른 얘기 좀 해 보죠. s129: 이제 월드컵 경승전만 이제 하루 앞두고 있는데, 흐, 여기서 네덜란드가 이기면 진짜 네덜란드는 한 경기도 패하지 않고 전승이죠? ⋮ s190: 스페인도 뭐, 우승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팀이죠. s191: 이 메이저 리그에서 이렇게 전승 우승팀이 있었어요? ⋮ s219: 그리고 2005년 삼성이 두산을 4:0, 4:0으로 이기면서 우승한 것이 다섯 번째였습니다. s220: 이번에 과연 네덜란드가 전승으로 우승하면 진짜 이거 대기록인데, ⋮ s222: 예선부터 전승은 안 깨질 것 같아요.	- 전승 우승(t2) - 축구의 경우(t2.1)  - 야구의 경우(t2.2)  - 소텍스트(t2) 정리
주제 종결부	s224: 말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s225: 고맙습니다. s226: 네, 감사합니다. s227: 경향신문의 이용균 기자였습니다. s228: 섹션라디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s229: 잠시 뒤 2부에서 글로벌 포커스와 섹션 연구실로 함께 하겠습니다.	- 텍스트(T) 주제 정리 - 인사 - 대담자 재언급 - 인터뷰 마무리

ㄴ. 배성재의 행복한 아침 - 〈김현정의 인생의 달인〉 (10. 07. 31)

주제: 혼자 여행 하기(T)

주제 도입부	s1: 2% 부족한 당신에게 생활의 팁을. s2: 조언이 필요한 당신에게 도움되는 한 마디를 s3: 오늘도 김현정 씨와 함께 합니다. s4: 인생의 달인.  s5: 허잇 뭐 이런 거 왜 안 해요? ⋮ s55: 아, 미안합니다.	- 프로그램 오프닝 - 대담자 소개 - 인사
--------	---	--------------------------------

	<p>s56: 자, 이번 주랑 다음 주가 이제 휴가 최대 성수기잖아요.</p> <p>s57: 해외여행 가는 분들이 워낙 많다 그래서 공항이 굉장히 붐빌 거라고 그래요.</p> <p>⋮</p> <p>s73: 음, 그리고 제가 워낙 집을 좋아해서 여행 자체도 별로 즐기는 편이 아니에요.</p> <p>s74: 자, 그 요즘 국외든 국내든 배낭여행을 많이 혼자 가는 분들이 나홀로 여행의 기술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p>	<p>- 주제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p> <p>- 주제 제시 혼자 가는 여행(T)</p>
<p>주제 발전부 I</p>	<p>s75: 혼자 저는 뭐 국내 말고는 해외는 이렇게 거의 잘 못 다니는 편인데</p> <p>⋮</p> <p>s89: 혼자하는 여행의 기술 오늘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p> <p>s90: 뭐가 있을까요?</p> <p>s99: 혼자하는 여행의 기술 첫째, 낯선 곳이니 가능하다.</p> <p>s100: 녀살을 키워라.</p> <p>⋮</p> <p>s186: 아빠가 자꾸 집에만 계실려고 한다고 너무 원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p> <p>s187: 자, 김현정 씨와 함께 나홀로 여행의 기술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삼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p> <p>⋮</p> <p>s204: 자, 다음은 뭔가요?</p>	<p>- 소주제 관련 이야기</p> <p>- 혼자하는 여행 비법1 (t1)</p> <p>- 소주제 정리</p>
<p>주제 발전부 II</p>	<p>s205: 나홀로 여행의 기술 바로 두 번째, 자신만의 휴대용 장난감을 사수하라.</p> <p>⋮</p> <p>s289: 모 모 하자는 거야? 이 분.</p> <p>s290: 그런 것도 있습니다.</p> <p>s291: 자, 분위기를 행구기 위해서 노라조 노래를 틀을게요. 카레.</p> <p>⋮</p> <p>s292: 노라조의 카레 듣고 왔습니다.</p> <p>s293: 노래 듣는 동안 우리가 많은 얘기를 나눴죠?</p>	<p>- 혼자하는 여행 비법2 (t2)</p> <p>- 소주제 정리</p>

<p>주제 발전부 Ⅲ</p> <p>주제 발전부 Ⅲ</p>	<p>s304: 이제 세 번째로 가봐야죠? s305: 네. 세 번째, 뽀뽀한 일정을 피하라.</p> <p>⋮</p> <p>s356: 네. 너무 겁 먹지 말고 그렇게 좀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네. s357: 혼자 하는 여행에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s358: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을 만들 수 있는 또 사전 공부나 언어 같은 거, 동선에 대한 파악 이런 거 중요한 거 같아요.</p> <p>⋮</p> <p>s409: 그런데 진짜 어디 가서 돈 그 썩끔 아꼐려고 이렇게 안 해 본 게 막 다시 돌아와가지고 후회되고 s410: 그랬던 적 되게 많아요.</p> <p>s412: 인터넷에 싱글족을 위한 가볍게 떠나기 좋은 여행 코스, 국내편이 하나 있는데, 살짝 소개해 드리면요.</p> <p>⋮</p> <p>s426: 국내 여행 계획하는 분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p>	<p>- 혼자하는 여행 비법3 (t3)</p> <p>- 남은 이야기1(t4)</p> <p>- 남은 이야기2(t5)</p>
<p>주제 종결부</p>	<p>s427: 김현정 씨 왜 갑자기 의기소침해 지셨어요? s428: 아, 끝날 때 돼서.</p> <p>s434: 자, 현정 씨 다음 주에 뵈요. s435: 네. 안녕히 계세요.</p>	<p>- 인사/ 대담자 재언급</p> <p>- 인터뷰 마무리</p>

(4)를 좀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한 편의 인터뷰 텍스트는 짧게는 250문장에서 길게는 450문장 정도의 분량을 지닌다. 이는 방송 시간과 관련된다. 또, 텍스트의 주제 전개 구조가 매우 단순하다. 앞 부분에는 항상 “주제 제시, 대담자 소개, 인사”가 반드시 들어가는데, 이후에 곧바로 본론에 두세 가지의 주제를 다루며 인터뷰 마지막에는 “인사”와 “대담자에 대한 재언급”이 나온다.

인터뷰 담화의 앞부분에 나오는 “주제도입부”는 상당히 고정된 패턴을 보인다. 각 코너의 오프닝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많으며, 그 오프닝들도 서로 매우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5) ㄱ. 배성재의 행복한 아침 - 〈김범용, 세상 속 별별 뉴스〉

이혜승: 희한하고 황당하고

김범용: 어이 없고 놀라운

이혜승: 세상 속 모든 별별 뉴스와 함께합니다.

김범용: 세상 속 별별 뉴스

ㄴ. 배성재의 행복한 아침 - 〈김현정, 인생의 달인〉

배성재: 2% 부족한 당신에게 생활의 팁을

김현정: 조언이 필요한 당신에게 도움되는 한 마디를

배성재: 오늘도 김현정 씨와 함께 합니다.

김현정: 인생의 달인.

ㄷ. 정석문의 섹션라디오

정석문: 세계 경제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섹션, 대한생명의  
경제 연구원의 최성환 박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ㄹ. 황정민의 FM 대행진

황정민: 아주 예전 얘기지만 한때는 일본에 대해 관심만 가져도 이상한  
눈길을 주고 했었어요. … 장항준 감독의 명랑 꾸러기. 안녕하세요  
장항준 감독님.

(5ㄱ)과 (5ㄴ)은 정해진 오프닝이 있는 경우이고, (5ㄷ)과 (5ㄹ)은 따로 오프  
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이다. 이들 모두 “주제 제시”, “대답자 소개 및 인사”가  
포함되어 있다.

“주제도입부” 이후, 인터뷰의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주제발전부”가 이어  
진다. “주제발전부”는 두 개 내지 세 개의 소주제로 이루어지는데, 보통 세 개  
이상의 소주제를 다루지는 않는다. 짧은 인터뷰의 경우에는 소주제가 하나인  
경우도 더러 있다.<sup>3)</sup>

---

3) 〈정석문의 섹션라디오〉에서는 “출근길 교통정보”, “날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경우에는 소주제가 하나밖에 없다.

“주제발전부”에서의 진행자의 역할은 각 프로그램 또는 코너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의 성격이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지 ‘오락 또는 가벼운 일상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진행자의 참여도가 다르다. 주로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그 분야의 전문가인 대담자가 담화의 전체를 구성하고 진행자는 주제 전개를 매끄럽게 만드는 역할만을 하는데 ‘오락 또는 가벼운 일상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진행자가 대담자와 함께 담화의 내용을 구성해 나가는 데 어느 정도 참여하게 된다.

#### (6) ㄱ. 최영주의 SBS 전망대

한수진: 네. 먼저 첫 번째로 골라 오신 검색어가 일제고사 관련된 내용인데 인터넷 세상에서도 이 문제가 역시 화두였네요.

이슬기: 네, 얼마 전 이 시간에도 이 문제에 관해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오는 십삼일에서 십사일 초등 육년생부터 중학교 삼학년 고등학교 이학년을 대상으로 전국 일제고사가 시, 실행이 됩니다. 따라서 일선 학교 곳곳에서 수업 파행 등의 잡음이 잇따르고 있는 데요. 상당수의 학교에서 교감의 지시 아래 정규수업과 보충수업 등이 모두 기출 문제 및 예상문제 풀이로 대체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초등학생들까지두요, 저녁 아홉시까지 보충 학습을 받아야 하구요.

한수진: 안됐죠?

이슬기: 네. 심지어 시험을 잘 본 학생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학교도 등장을 했습니다. 또 지방 교육청의 경우에 자체 제작한 문제지를 일선 학교에 배부하고 공부하기를 종용하기도 하구요.

한수진: 음

이슬기: 일부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제고사용 오엠알 답안지 작성에 컴퓨터 쓰는 연습에 수업 시간을 할애했다고도 합니다. 교육적중에서, 교육청 측에서 감시를 한다고는 하지만요 이런 현상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거 같다는 전망인데요. 얼마 전에도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했다는

한수진: 그러니까요. 네.

이슬기: 기사가 있었습니다.

ㄴ. 배성재의 행복한 아침 <김현정의 인생의 달인>

이혜승: 이삼삼팔 님은 저는 새벽 시장에 야채 노점 하는데 물건 때로 새벽 세시에 가고 오후 일곱시에 마칩니다. 하루가 바쁘니까 지루할 틈이 없어요. 하아. 새벽 세시부터

김현정: 카아, 와아.

이혜승: 오후 일곱시면

김현정: 흐억.

이혜승: 일 끝나면 바로 주무셔야겠네 이 분.

김현정: 진짜.

이혜승: 예.

김현정: 그쵸. 예.

이혜승: 예.

김현정: 부자 되시겠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혜승: 진짜 우리 열심히 살아야대.

김현정: 그러니까요

이혜승: 우리 이렇게 살면 안돼요.

김현정: 그러니까 돈도 자꾸 없구. 남는 것도 없구 그래요.

(6ㄱ)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프로그램 진행자의 역할이 매우 적다. 반면, (6ㄴ)의 경우는 일상의 소소한 사건이나 삶의 지혜 등을 다루는데 때문에 프로그램 진행자와 대담자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주제의 내용을 구성해 가고 있다.

“주제종결부”는 인터뷰 담화의 주제를 정리하고, 대담자와의 인터뷰를 끝내는 부분이다. “대담자와의 인사”, “대담자 재언급”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인 문어 텍스트에서는 텍스트의 마지막 부분에서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부분이 있으나, 인터뷰 담화의 종결부에는 그러한 요약·정리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 (7) ㄱ. 황정민의 FM 대행진

황정민: 네, 떠오르는 일본의 젊은 작가 리치오 쇼스케의 용의 손은 붉게 물들고 원하시는 분들은 에프엠 대행진에 글 올려 주세요. 교보문고에서 두 분께 책 보내드릴게요. 출판 칼럼리스트 한미화 씨였어요. 고맙습니다.

한미화: 예, 감사합니다.

ㄴ. 최영주의 SBS 전망대

한수진: 아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가 되겠네요.

이영미: 네.

한수진: 재밌는 소식 감사합니다. 일요 신문 이영미 기자였습니다. 에스비에스  
전망대 오늘 순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ㄷ. 배성재의 행복한 아침

이혜승: 오늘 현정 씨와 마지막

김현정: 예.

이혜승: 한 시간이었는데요, 그 동안 즐거웠습니다.

김현정: 즐거웠습니다.

이혜승: 감사합니다.

김현정: 허허.

이혜승: 또 봐요.

김현정: 네.

이혜승: 감사합니다. 자. 광고 듣고 올게요.

### 3. 라디오 인터뷰 진행자의 말하기 전략 분석

말하기 전략은 텍스트 또는 담화의 의미적 주제 전개 구조를 실제 언어로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일련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주로 다음과 같이 주제 전개와 관련된 기능들을 위해 사용한다.

#### (8) 주제 전개와 관련된 말하기 전략

ㄱ. 주제 제시 및 전환

ㄴ. 주제 부가

ㄷ. 주제 유지

먼저, 주제 제시 또는 전환과 관련된 전략을 살펴보겠다. 주제 제시 및 전환 전략은 텍스트를 시작할 때, 또는 하나의 텍스트 내에서 소텍스트를 전환시킬 때

사용한다. 주제 제시의 경우에는 특별한 전략이 사용된다기보다 주제어 내지는 주제문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주제 전환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주제 전환의 경우에도 새로 전환될 주제를 그대로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 둘을 묶어서 다루도록 하겠다.

주제 전환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주제 전환’과 ‘비명시적인 주제 전환’이 존재한다. ‘명시적 주제 전환’은 주제 전환과 관련되는 특정 기능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비명시적인 주제 전환’은 주제 전환 관련 기능어를 사용하지 않고 주제어 또는 주제문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비명시적 주제 전환’의 경우가 ‘주제 제시’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명시적 주제 전환’의 예를 살펴보겠다. 텍스트 내부 조직어를 사용하여 주제의 전환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9) ㄱ. 정석문의 섹션라디오

정석문 : 네. 형제도 있었죠? 이번에.

이용균 : 두 명 단지 두 명 형제가 아니라 세 형제가 한꺼번에 대표팀에 뽑히는 아주 진짜 가문의 영광도 **있었는데요**

#### ㄴ. 정석문의 섹션라디오

이용균 : 독일에서 나고 자랐지만 형은 가나를 택하고 동생은 이 독일을 택하게 되는데요.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맞붙었습니다. 그리고 일대일 무승부를 기록했고 둘 모두 십육강에 진출한 덕분에 그나마 이 형제의 난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석문 : 예.

이용균 : 이 독특하게 형제뿐만 아니라 장인 사위가 한 팀에서 뛰는 아주 묘한 장면도 **보였는데요.**

정석문 : 그래요?

(9)는 연결어미 ‘-는데’를 사용하여 주제의 전환이 명시적으로 표현된 경우이다. (9ㄱ)은 부자지간이 월드컵 국가 대표를 하게 된 이야기 중, 형제지간이 국가 대표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의 전환이다. (9ㄴ)은 이에 이어서, 장인과 사위가

한 팀에서 뛰는 경우로의 주제 전환을 보여준다.<sup>4)</sup>

다음으로, 비명시적 주제 전환의 예를 보겠다.

(10) 가. 정석문 : 그렇군요. **자 이제 다른 얘기 좀 해보죠.** 이제 월드컵 결승 전만 이제 하루 앞두고 있는데 흐, 여기서 네덜란드가 이기면 진짜 네덜란드는 한 경기도 패하지 않고 전승이죠?

나. 정석문 : **야구에서도** 형제 야구 선수 이런 거 많잖아요.

다. 정석문 : **이 메이저 리그에서 이렇게 전승 우승팀이 있었어요?**

르. 정석문 : **우리나라에도 아버지와 아들은 있잖아요.**

(10)의 예들은 비명시적으로 주제를 전환한 경우이다. 여기서 ‘비명시적’이라는 것은 특별한 주제 전환 표지 또는 그러한 문법적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주제를 그대로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10가)의 경우에는 “자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 보죠.”와 같이 주제의 전환을 나타내었다. (10나)은 주제어를 제시한 경우이다. 이전 발화까지는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야구”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를 전환하겠다는 것을 주제어 “야구”를 직접 사용하여 나타낸다. (10다, 르)의 경우는 주제문을 직접 사용한 경우이다. “우리나라에도 아버지와 아들은 있잖아요.”, “메이저 리그에서 이렇게 전승 우승팀이 있었어요?”라는 주제문을 사용하여 앞으로의 담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비명시적 주제 전환이 텍스트의 처음에 사용되면, 주제 제시의 기능을 하게 된다.

(11) 정석문 : **스포츠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들을 들어봅니다.**

(11)은 텍스트의 처음 부분에 명시적으로 주제를 제시한 경우이다.

다음으로, “주제 부각”과 관련된 전략들을 살펴보겠다. “주제 부각”은 접속 부사나 연결어미 등의 문법적 장치를 사용하여 명시적으로 표현된다.

4) 이창덕(1994: 246)에서는 ‘는데’의 기능을 ‘상황점검, 상황관리’로 파악하였다.

(12) ㄱ. 이용균 : 네덜란드가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유럽예선이 굉장히 통과하기 어렵잖아요. 강호들이 막 준비하다 보니까.

정석문 : 그럼요. 다 우승후보죠 뭐.

이용균 : 그런데 이 유럽 예선에서도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정석문 : 네.

이용균 : 무승부도 없었어요. 팔 전 전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정석문 : 와, 엄청나네요.

ㄴ. 이용균 : 이 가장 가슴 아픈 형제의 사연은 잘 알려져 있듯이 서로 적으로 만 난 형제네요.

정석문 : 네.

이용균 : 독일의 제롬 보아텡 선수와 가나의 케빈 프린스 보아텡은 형제지만 각각 그 가슴에 단 국기가 달랐습니다.

정석문 : 이번에 만났잖아요. 가나하고

(12ㄱ)은 접속 부사 ‘그런데’를 사용하여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네덜란드의 월드컵 전승 우승 예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중, ‘유럽 예선에서도 전승했음’을 ‘그런데’라는 접속 부사를 통해 연결시키고 있다. 이 경우의 ‘그런데’는 주제 전환의 기능이 아니라 주제를 부각시키는 데에 사용되었다.

(12ㄴ)의 경우는 어미 ‘-잖-’을 통해 주제 부각의 효과를 표현하고 있다. ‘-잖-’은 ‘-지 않-’의 준말로 여기에 녹아있는 ‘-지’의 정보 구조적 기능이 주제 부각 기능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구정보’ 또는 ‘공유된 지식’의 표지로 쓰이는 ‘-지’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주제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형제끼리 서로 다른 팀에 소속되어 월드컵에 출전했는데, 한 명은 ‘독일’ 선수로, 하면은 ‘가나’ 선수로 출전했다.

마지막으로, 주제 유지 전략을 살펴보겠다. 주제 유지와 주제 부각은 사실 그렇게 명확하게 구별되지는 않는다. 담화 맥락상의 초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을 듯하다. 주제 유지에 사용되는 전략은 ‘접속 부사’의 사용과 어휘적인 요소의 사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3) ㄱ. 이용균 : 요즘 주목을 보고 있는 형제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프로 야구에 형제 야구선수는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 모두가 잘하는 경우가 좀 드물었거든요.

정석문 : 네.

이용균 : **근데** 최근 에스케이에 조동화 선수와 삼성의 조동찬 선수가 둘 다 잘하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ㄴ. 이용균 : 이 실력을 끌어올리면서 이천칠년 에스케이와이번스가 우승을 차지할 때 맹활약하면서 이 더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동화 동생 동찬이냐?

(13)의 예들은 접속 부사 ‘근데(그런데)’와 ‘그래서’를 사용하여 주제를 유지하고 있다. 각각이 역접, 순접이라는 기능상의 차이를 보이지만, 담화 기능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듯하다. (13ㄱ)과 (13ㄴ) 모두 주제가 바뀐 것으로 파악하기는 힘들고 여전히 주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3ㄱ)의 경우는 “주제 부각”과도 관련될 수 있을 듯하다.

(14) ㄱ. 정석문 : 포틀란 선수는 삼 대 때지, 삼 대째지만은 삼 대째 축구 선수가 또 있다면서요?

이용균 : **그렇습니다.** 우루과이, 이 남미의 우루과이와 함께 이 중미의 멕시코에 삼대째 축구선수로 뛰는 선수가 있습니다.

ㄴ. 정석문 : 그렇군요. 자 이제 다른 얘기 좀 해보죠. 이제 월드컵 결승전만 이제 하루 앞두고 있는데 흐, 여기서 네덜란드가 이기면 진짜 네덜란드는 한 경기도 패하지 않고 **전승이죠?**

이용균 : 이게 무패가 아니라

정석문 : **전승입니다.** 무승부도 없다는 얘기죠. 예

이용균 : **전승입니다.** 이게 비기는 경기가 하나가 없었어요. 이 스페인과 결승전을 치르게 되는 데요. 네덜란드가 이 본선에서 조별리그 삼승 그리고 십육강 팔강 사강 모두 이기면서 육연승을 달려왔습니다.

(14)의 예들은 모두 어휘를 사용하여 주제를 유지하고 있다. (14ㄱ)과 같이 대용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유지할 수도 있고 (14ㄴ)과 같이 같은 어휘를 반복

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주제를 유지할 수도 있다.

그 밖에도 호칭어, 종결어미, 간투사 등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말하기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

(15) 가. 이용균 : 포를란 선수는 이 아버지와 자신뿐만 아니라 할아버지까지도 국가대표 선수를 지냈던 삼 대째 축구선수인데요.

정석문 : 예

이용균 : 예 그냥 축구선수가 아니라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삼 대가 모두 대표선수였습니다.

정석문 : 아유.

이용균 : 할아버지 후안 카를로스는 천구백육십이년 칠레 월드컵 때 우루과이 대표팀 감독을 맡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선수였어요.

정석문 : 어, 그래요.

나. 이용균 : 뭐 그만큼 뭐 믿고 쓸 수 있는 선수가 될 수도 있겠죠.

정석문 : 그쵸.

이용균 : 이 장인이 보고 있는데 사위가 열심히 안 뛰면

정석문 : 그쵸.

이용균 : 아주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정석문 : 하여튼 근데 이 축구선수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다 디엔에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타고난 운동신경이라든지 이런 게에.

이용균 : 이 실제로 타고난 운동신경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게 되면

정석문 : 그치 환경도요.

다. 정석문 : 네, 섹션 퀴즈입니다. 잘 듣고 단문은 오십 원 장문은 백 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 전화 문자 우물정 일공삼오로 퀴즈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르. 한수진 : 네. 자, 다음은 최저임금 관련 소식인데 참 인상안 어렵게 결정됐잖아요.

(15)의 예들은 간투사 등이 사용된 예이다. 이들의 기능은 주로 담화 내에서 화자의 발화 내용에 청자가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주제 전개 기능과는 크게 관련되지 않지만 자연스러운 담화 상황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15ㄷ, ㄹ)과 같이 주제 전환과 관련하여 사용되기도 하는데, 일종의 말 버릇과 같은 경향을 보인다.

#### 4.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라디오 인터뷰의 텍스트 구조와 말하기 전략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라디오 인터뷰는 라디오 진행자와 대담자 사이의 대화를 통해 구성된다. 그러나 이 대화는 일반적인 대화 상황과는 상당 부분 차이를 보인다. 일단, 라디오 인터뷰의 대화는 구어체의 특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문어적인 특성을 보인다.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공적 발화이기 때문이다. 또, 담화의 전체 구조에 대한 틀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상태에서 대화가 진행된다. 따라서 라디오 진행자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라디오 인터뷰 담화의 전체적인 분석 결과는 구조에 있어서도 그리 복잡하지 않고, 말하기 전략에 있어서도 특이할 바가 없었다. 이 때문에 라디오 진행자의 역할이 상당히 위축된 듯 보인다. 앞으로는 라디오 진행자의 좀더 적극적인 역할이 강화되었으면 한다.

## 〈 참고문헌 〉

- 교육과학기술부(200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II) - 국어, 도덕, 사회, 교육과학기술부.
- 유동엽(2008), 대통령 취임사의 텍스트언어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성만(1994), 텍스트구조의 이해, 텍스트언어학1, 박이정.
- 이은경(1994), 텍스트에서의 접속어미의 기능 - 단편소설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을 대상으로 -, 텍스트언어학2, 박이정.
- 이창덕(1994), '-는데'의 기능과 용법, 텍스트언어학2, 박이정.
- 최지현 외(2007),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역락.
- Brinker, K.(1985), Linguistische Textanalyse. Eine Einführung in Grundbegriffe und Methoden, Berlin.

# 청소년 대상 방송 프로그램의 높임법 연구

김 한 샘 (국립국어원)

## 1. 머리말

전달 매체의 자질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구어에 해당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반 방송의 담화를 분류하자면 대화와 독백 중에 대화에 해당하며, 공적이냐 사적이냐를 따지면 공적인 담화에 해당한다.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공적인 대화인 회의나 토론의 담화와 방송의 담화가 다른 점은 방송의 담화가 기본적으로 대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물론 진행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발화를 생성할 수 있지만 대본이라는 기초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성과 상호 교류성이라는 구어의 특성이 약화되어 나타나고, 이는 방송 언어의 변화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된다.

라디오 방송의 언어는 텔레비전 방송의 언어에 비해 더 보수적이다. 진행자 발화, 음악 소개, 사연 소개, 광고, 초대 손님 혹은 청취자와의 대화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라디오 방송의 형식이 오래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화자를 기준으로 볼 때 일반적인 라디오 방송의 담화는 아래의 세 가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진행자 ⇔ 진행자
진행자 ⇔ 청취자
진행자 ⇔ 출연자

보수적이었던 라디오 방송의 환경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전문 디제이, 아나운서, 중견 연예인이 주된 방송 진행자였던 시대가 가고 현재 인기가 있는 젊은 연예인이 방송을 진행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또 ‘보이는 라디오’라는

형식이 도입되면서 대본 의존도가 낮아지고 출연자의 일상 언어가 방송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 진행자와 초대 손님의 사적 관계가 강화되면서 기존의 정형화되고 격식적인 대화가 무너지고 있다. 국어의 어순과 같은 절대적인 지식은 일상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되지만 높임법과 같이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국어 지식은 자연스럽게 습득하기 어려우므로 국어 교육에서 꼭 따로 다루어야 할 교수·학습의 대상이다. 이런 배경하에 이 글에서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방송 언어에 나타난 높임말 사용의 실태와 국어 교육적 활용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 2. 연구 대상 및 자료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서는 높임법을 높임의 대상에 따라 상대 높임법,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으로 나누고 있으며 실현되는 범주는 어미, 조사, 어휘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한샘(2006)에서는 실현되는 범주에 초점을 맞추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어휘로 드러나는 호칭어와 지칭어의 사용과 변화 양상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김한샘(2006)에서 남은 과제로 제시했던 높임을 나타내는 어미의 사용을 통해 나타나는 통사적인 높임법의 실현과 어휘적 높임과 통사적 높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한샘(2006)의 연구 대상과 겹치는 지칭어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함께 논의한다. 범위는 논의의 집중을 위해 주체 높임법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방송 언어와 같은 음성 언어를 연구하기 위한 자료는 크게 음성 말뭉치<sup>1)</sup>와 구어 말뭉치로 나눌 수 있다. 음성 말뭉치는 음성 인식, 합성 등 공학적인 측면에서 음성 언어를 연구하기 위해 음성을 디지털 방식으로 녹음하고 검색이 가능하도록 음소나 운율 정보를 부가한 자료이다. 반면 구어 말뭉치는 언어학적 분석을 위해 구어의 특징을 보이는 장르의 자료를 문자화하여 구축한 자료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구어 말뭉치 중에서도 라디오 방송을 녹음하고 철자법 전사를 하여 구축한 ‘구어 전사 말뭉치’이다.

---

1) 말뭉치란 언어를 연구하는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 재료로서, 언어의 본질적인 모습을 총체적으로 드러내 보여 줄 수 있는 자료의 집합을 말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크기를 갖추고 내용적으로 다양성과 균형성이 확보된 자료의 집합체를 말한다.(서상규·한영균, 1999)

전사할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올해 연구 주제인 국어 교육의 주된 대상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SBS 김희철의 영스트리트’를 골랐다. 2010년 7월 18~24일의 일주일분, 10,861 개의 발화를 분석했다. 이번 연구를 위해 구축한 구어 전사 원시 말뭉치의 예는 다음과 같다.

김희철 - 냉면 카하 박명수와 제시카 씨 정말 이 노래 굉장히 명곡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명수 형의 냉면 제시카 씨의 냉면 듣고 왔는데 치명적의 유혹의 라디오 김희철의 영스트리트 안녕하세요. 저는 김희철입니다. 아 요런 유행곡 저도 누구랑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요런 유행곡을 하면 누가 있을까요. 제가 요즘 여자 연예인분들을 잘 몰라서 누가 있을까요. 우리 피디 님 작가 님 요즘 아 수지 씨 아 맞다 맞다 아우 까먹고 있었네 모 케 하면 좋게 수지 씨이니까 수지 씨이랑 만약에 하면 냉면이 아니라 수타면 이렇게 수지에 수자.

위와 같은 원시 말뭉치에서 주체 높임을 드러내는 표현들을 추출하기 위해 21세기 세종계획<sup>2)</sup>에서 개발한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해 문법 정보 주석 말뭉치로 가공했다.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		
파일(F) 보기(V) 도움말(H)		
<input type="checkbox"/>		
	원어절	태그결과
김희철 - 냉면 카하 박명수와 제시카 씨 정말 이 노래 굉장히	김희철	김희철/NNP
명곡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명수 형의 냉면 제시카 씨의 냉	-	-/SS
면 듣고 왔는데 치명적의 유혹의 라디오 김희철의 영스트리트	냉면	냉면/NNG
안녕하세요. 저는 김희철입니다. 아 요런 유행곡 저도 누구	카하	카하/NF
랑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요런 유행곡을 하면 누가 있을까요.	박명수와	박명/NNG+수와/NNG
제가 요즘 여자 연예인분들을 잘 몰라서 누가 있을까요. 우	제시카	제시카/NNP
리 피디 님 작가 님 요즘 아 수지 씨 아 맞다 맞다 아우 까먹	씨	씨/NNG
고 있었네 모 케 하면 좋게 수지 씨이니까 수지 씨이랑 만약	정말	정말/MAG
에 하면 냉면이 아니라 수타면 이렇게 수지에 수자.	이	이/MM
	노래	노래/NNG
	굉장히	굉장히/MAG
	명곡	명곡/NNG
	중	중/NNB+에/JKB
	하나잖아요.	하나/NR+이/VCP+잖아요/EF+/....
	우리	우리/NP
	명수	명수/NNG
	형	형/NNG+의/JKG
	냉면	냉면/NNG
	제시카	제시카/NNP
	씨의	씨/NNG+의/JKG
	냉면	냉면/NNG
	듣고	듣고/VV+고/EC
	왔는데	왔/VX+았/EP+는데/EC
	치명적의	치명/NNG+적/XSN+의/JKG
	유혹의	유혹/NNG+의/JKG
	라디오	라디오/NNG
	김희철의	김희철/NNP+의/JKG
	영스트리트	영/NNP+스트리트/NNNG
	안녕하세요.	안녕/NNG+하/XSA+시/EP+머요...
	저는	저/NP+는/JX
	김희철입니다.	김희철/NNP+이/VCP+입니다/E...

2) 1998년부터 국립국어원이 관련 학계와 더불어 추진해 온 국어 정보화 사업으로 언어 정보 문화의 기본 바탕과 자원을 확충하기 위한 국어 정보화 중장기 발전 계획. [www.sejong.or.kr](http://www.sejong.or.kr) 참조.

위의 과정을 통해 주체를 높여 표현할 필요가 있는 발화 250여 개를 추출했으나 높임의 표현과 호응이 제대로 드러났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완전한 발화는 83개에 불과했다. 진행자가 갑자기 화제를 전환하거나 청취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서술어를 생략하는 경우, 출연자가 끼어드는 경우가 많아 연구 자료로 삼을 수 있는 발화의 수가 많지 않았다. 다음 장에서 청소년 대상 라디오 프로그램의 발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논의한다.

### 3. 주체 높임법의 실현 양상 분석

짜여진 형식의 라디오 방송에서 높여야 하는 주체의 유형은 한정적이다. 방송 내용과 관련되는 사람의 범위가 좁기 때문이다. 청취자, 출연자, 제작진, 청취자의 사연에 등장하는 인물, 진행자나 출연자의 지인이 높임의 대상이 된다. 발화 내에서 주체 높임법이 드러나는 것은 주어와 서술어이다. 높임법은 높임법이 맞다, 틀리다의 이분법적 사고를 통해 논하기보다는 높임을 나타내는 표현이 상황 맥락, 사회적 맥락에 어울리는가, 높임을 나타내는 표현들의 호응이 자연스러운가를 살펴야 한다.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의 ‘탐구’에서 ‘높임법이 틀린 문장을 찾아보자.’가 아니라 ‘높임법이 어색하다고 느껴지는 문장을 찾아보다’라고 활동을 제시한 것은 높임법의 이런 성격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 3.1. 주어에 나타난 높임법

주어를 구성하는 체언과 조사에 각각 높임이 실현될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호응을 위해 주로 중복되어 나타난다.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주어에서 실현되는 높임법은 부수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공공 언어의 범주에 속하는 방송 언어에서는 서술어에 기본적으로 드러나는 높임법과 자연스럽게 호응이 되도록 주어에도 최대한 높임법이 실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체 높임을 드러내는 주어는 높임을 나타내는 대명사, 명사를 포함하거나 높임을 나타내는 의존적 요소, 즉 의존 명사나 접미사를 포함한다.

- (1) ㄱ. 여러분들께서 보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짜증을 덜어 드릴게요.
- ㄴ. 여러분들께서는 여행 떠나는 거 좋아하시나요?

- (2) ㄱ. 아버님께서도 장난 아니셨대요.
- ㄴ. 어머님께서 보내 주신 장조림
- ㄷ. 부모님들께서는 사실 속상하시죠.
- ㄹ. 선생님께서 굉장히 속상해 하시죠.

청취자 집단 전체를 높이는 2인칭 복수 대명사 ‘여러분’의 사용은 (1)처럼 매우 흔하게 나타난다. 청취자의 사연과 관련해서는 (2)의 예와 같이 ‘아버님, 어머님, 부모님, 선생님’ 등 청취자와 관련된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를 높여 이르는 어휘가 많이 나타나는데 ‘아버지, 어머니’등의 일반적인 어휘는 비슷한 비율로 함께 쓰이지만 ‘선생, 부모’만 단독으로는 전혀 쓰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미 복수를 나타내는 표현에 굳이 복수 접미사 ‘들’을 붙여서 ‘복수’의 자질이 잉여적으로 나타나는 예가 많이 눈에 뜨인다. (1ㄱ), (1ㄴ), (2ㄱ)과 같은 발화에서 볼 수 있다. ‘여러분’을 단독으로 쓰는 예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여러분들’로 표현하는 것은 김한샘(2006)에서 살펴본 1996년, 2006년의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의 지칭어 사용 양상과 비교할 때 큰 변화라고 하겠다. 1만 개가 넘는 발화를 모두 살펴보아도 ‘여러분들’이라는 표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 (3) ㄱ. 서승우 씨께서 보내 주셨구요.
- ㄴ. 레이디제인 씨께서 원더걸스 노래 아니냐고 해 주셨는데 ? ㄴ. 레이디제인 님께서 원더걸스 노래 아니냐고 해 주셨는데
- ㄷ. 우리 동해 씨와 함께 닭을 거의 한 사람당 세 그릇씩 먹었습니다.
- (4) ㄱ. 유현호 님께서 보내 주신 사연입니다.
- ㄴ. 이칠이칠 님께서 보내 주신 건데요.
- ? ㄴ. 이칠이칠 씨께서 보내 주신 건데요.
- (5) ㄱ. 두 분께서 시원하게 걸려 주셔서
- ㄴ. 오늘 많은 분들께서 걱정해 주셨는데
- ㄷ.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문자로 지금 보내 주시면

높임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는 (3)~(5)와 같이 ‘씨, 님, 분’ 등이 쓰였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씨’를 ‘((성년이 된 사람의 성이나 성명, 이름 아래에 쓰여)) 그 사람을 높이거나 대접하여 부르거나 이르는 말’로 풀이했으며 ‘님’은

‘씨’보다 높임의 뜻을 나타낸다고 했다. 사전 풀이에만 기대자면 ‘씨’와 ‘님’은 높임의 정도라는 맥락에 따라 교체해서 쓸 수 있을 듯하나 실제로 자료 분석을 해 보니 교체해서 쓰이지 않는 예가 발견되었다. 라디오 방송 전사 말뭉치에서 ‘씨’의 앞에는 이름이나 예명이 오는데 예명 뒤에 쓰인 ‘씨’를 ‘님’으로 바꿔 쓰는 것은 어색하다. ‘님’의 앞에는 이름이나 문자 메시지로 사연을 보낸 사람의 전화번호 뒷자리가 오는데 전화번호 뒷자리로 청취자를 표현할 때에는 ‘씨’를 붙이는 예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진행자와 예명을 쓰는 출연자, 진행자와 전화번호 뒷자리로 지칭되는 청취자의 심리적 거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예계 동료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씨’를, 방송의 수요자인 청취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님’을 쓰는 것이다. 심리적인 거리를 의도적으로 좁히려는 전략적인 표현도 눈에 띈다. (3ㄷ), (5ㄷ)처럼 지칭어 앞에 의미적으로는 불필요한 ‘우리’를 붙여 동료 연예인, 청취자와 친밀한 관계임을 강조한다.

(3ㄱ)과 (4ㄱ)의 예에서 ‘씨’와 ‘님’은 서로 바꾸어 써도 성립한다. 높임의 등급에 대한 느낌이 차이가 나는 정도이다. 그런데 약 5년 전만 해도 라디오 방송에서는 (4ㄱ)처럼 사람 이름 뒤에 ‘님’을 붙이는 일은 드물었다. 김한샘(2006)에서 일상생활에서는 은행이나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이미 ‘님’을 붙인 말이 널리 쓰이고 있고 사전에도 이런 용법이 등재되었으나 라디오 방송에서는 아직까지 ‘님’보다는 ‘씨’를 공식적인 표현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이름에 높임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를 붙여서 청취자를 지칭하는 경우의 95%가 ‘씨’ 대신 ‘님’을 선택했다.

(5)에서 예를 보인 의존 명사 ‘분’은 수 관형사, 용언의 관형사형 등의 관형 어구를 동반하며 주로 복수의 사람을 지칭하는 데에 쓰인다.

- (6) ?ㄱ. 아버지가 나이를 착각하신 게 아닐까요.
- ?ㄴ. 아버님이 잠시 잊고 계셨겠죠.
- ?ㄷ. 아버지께서 딸의 나이를 모르는군요.
- ㄹ. 부모님께서 챙겨 보내 주시는 반찬

한국어의 조사 중 ‘높임’의 자질을 가지는 주격 조사는 ‘께서’ 한 가지뿐이다. 이 조사의 쓰임이 높임을 나타내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앞에 오는 체언이 높임을 나타내는 말이거나 주체를 높여야 하는 상황인 경우 ‘께서’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위의 (6)에 보인 예들 중에서 높임법이 가장 자연스럽게 드러난

발화는 (5ㄷ)이다. (6ㄱ)~(6ㄷ)이 공교롭게도 모두 교포 출신 연예인 출연자의 발화라는 것은 높임법이 한국어의 문법 범주 중 난이도가 높은 범주이며 별도의 교수·학습이 필요하다는 기존의 논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

### 3.2. 서술어에 나타난 높임법

- (7) ㄱ. 김성자님께서 사연이 대박이라고 하시면서  
     ㄴ. 여러분들께서 제 외모를 계속 찬양해 주십니다.
- (8) ㄱ. 많은 분들께서 닭도리탕으로 알고 계시는데 닭볶음탕입니다.  
     ㄴ. 이은혜님께서 가만히 계셨어요.

주체 높임법의 가장 주된 표지는 (7)의 발화에 나타난 것과 같은 선어말 어미 ‘-으(시)-’이다. (8)처럼 높임을 나타내는 용언에 기대는 경우도 가끔 발견된다. (8)에서는 ‘있다’ 대신 ‘계시다’를 써서 주체 높임법을 실현했다.

### 3.3. 높임법 실현 요소 간의 호응

3.1과 3.2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체 높임법은 주어와 서술어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 이때 주어와 서술어의 높임의 수위가 일치하지 않으면 어색한 발화가 된다. 다시 말하면 주어와 서술어의 높임의 호응이 자연스러운 발화의 요건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라디오 방송 전사 말뭉치를 살펴보니 높임법을 나타내는 요소들이 호응하지 않아 어색한 발화가 다수 나타났다. 구체적인 통계는 아래와 표와 같다.

발화의 적절성	부적절한 높임법 실현 요소	빈도	비율(%)
자연스러운 발화		63	73.3
어색한 발화	지칭어	6	7
	조사	4	4.7
	선어말 어미	11	12.8
	특수 용언	2	2.3
합계		86	100

- (9) ?ㄱ. 시어머니께서 계시다고요?  
 ㄱ. 시어머님께서 계시다고요?  
 ?ㄴ. 수지께서 제 나이를 알고 계셨어요.  
 ㄴ. 수지 씨께서 제 나이를 알고 계셨어요.  
 ?ㄷ. 아버님이 잠깐 잊고 계셨겠죠.  
 ㄷ. 아버님께서 잠깐 잊고 계셨겠죠.

(9ㄱ)의 ‘시어머니’는 조사 ‘께서’와 동사 ‘계시다’와 자연스러운 호응을 이루도록 ‘시어머님’으로 어휘를 바꾸어 (9ㄱ)과 같이 말하는 것이 더 낫다. (9ㄴ)도 이름을 그대로 써서 조사와 동사의 높임법 실현과 어긋난 예이다. 출연자가 진행자보다 나이가 많이 어리다고 하더라도 방송 출연자에 대한 예의를 지킨다는 측면에서 의존 명사 ‘씨’를 넣어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9ㄷ)의 발화는 주격 조사가 부적절한 예이다. (9ㄷ)처럼 ‘아버님’, ‘계시다’와 호응하는 조사 ‘께서’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 (10) ?ㄱ. 어머님들께서는 그만큼 자유 시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ㄱ. 어머님들께서는 그만큼 자유 시간이 줄어드시는 거잖아요.  
 ?ㄴ. 박미진 님께서 이렇게 이름만 불러주면  
 ㄴ. 박미진 님께서 이렇게 이름만 불러주시면  
 (11) ?ㄱ. 현수민 님께서 그 조카 분께 이렇게 말하세요.  
 ㄱ. 현수민 님께서 그 조카 분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ㄴ. 부모님께서 말하잖아요.  
 ㄷ. 부모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10ㄱ)과 (10ㄴ)은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으(시)-’의 누락으로 서술어가 주어와 호응을 이루지 못하는 예이다. 선어말 어미 ‘-으(시)-’를 추가하여 (10ㄱ), (10ㄴ)와 같이 수정하면 자연스러운 발화가 된다. (11ㄱ)과 (11ㄴ)은 높임의 자질을 지닌 ‘말씀하다’ 대신 ‘말하다’를 사용해 어색한 문장들이다. (8)에서 언급한 ‘계시다’와 달리 ‘말씀하다’는 선어말 어미 ‘-시-’를 더 추가할 수 있다. 어휘 사용의 문제만 있는 (11ㄱ)보다 선어말 어미까지 누락된 (11ㄴ)이 더 어색한 발화이다.

#### 4. 라디오 방송 텍스트를 활용한 높임법 교육

국어 생활 문화가 강조되고 있고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국어 높임법의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높임법의 교육이 규범적으로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구본관(2008)에서도 높임법의 교육은 현대어에서의 사용을 고려하되 역동적인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젊은 세대가 진행하고 주된 청취자가 청소년인 라디오 방송의 콘텐츠는 3.3과 같이 어색한 문장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 분석의 대상으로서 가치를 가지는 오류 말뭉치로 활용이 가능하고, 규범과 거리가 있는 현실 언어의 생생함을 보여 주며 발화 전략을 교육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이번 연구와 김한샘(2006)에서 구축한 라디오 방송 전사 말뭉치를 활용해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 수준에서 포함할 만한 탐구 학습 내용을 구상해 보았다.

#### 〈탐구〉

1. 라디오 방송을 전사한 다음 언어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여 보자.

제 이: 조지훈님께서 아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일 듯. 최현실의 나는 널 몰라.  
김희철: 아. 나는 널 몰라.  
제 이: 네.  
김희철: 니가 뭔데 이런 노래죠? 아, 엠.  
제 이: 네. 아. 네. 계속 더 부르실 거예요, 노래?  
김희철: 아니, 아니요. 안 부릅니다.  
제 이: 김주영님께서 글 쓰신 분이 동안이라 아버지가 나이를 착각하신 게 아닐까요. 그래도 나이 두 살 올려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낫잖아요.  
김희철: 그렇죠.  
제 이: 그냥 서른이라고 하세요. 신화의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김희철: 아 세월의 흔적.  
제 이: 네.  
김희철: 다 버리고.  
제 이: 그리고 장보배님께서 아버님이 잠시 잊고 계셨겠죠. 그래서 신청합니다. 더블에스오공일의 내 머리가 나빠서.

- 1) 밑줄 친 발화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말하여 보자.
- 2) 밑줄 친 발화를 높임의 정도가 높은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

2. 다음은 서로 다른 시기의 라디오 전사 자료이다. 잘 읽고 물음에 답하여 보자.

(가) MBC 여성시대(1996)

손 숙: 네~ 저희도 또 편지쇼 첫 날이니까, 한 주가 시작되는 첫 날에 첫 편지. 굉장히 열심히 골랐습니다. 부천시 소사구의 배석자 씨 사연인데요.

(편지)

김승현: 큰 일 날 뻔 하셨네요. 큰 일 날 뻔. 급물살 때문에. 아니 근데... 저는...

손 숙: 혼자 하시나?

김승현: 그러긴 해요. 저는 지금 단체 뭐 레프팅하는 건 봤는데..

손 숙: 아니 생전 안하시던.. 처음하시는 분을 혼자서 레프팅을 보내?

김승현: 아니 혼자서..그건 말이 안되지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손 숙: 한 번 여쭙봐야짱 뭐.

김승현: 여보세요?

(전화인터뷰)

배석자: 여보세요.

손 숙: 안녕하세요?

김승현: 배석자 씨!

배석자: 네. 안녕하세요.

손 숙: 오래사시겠네...하하하하

김승현: 아이 참나...아니 진짜 배짱도... 아니 근데 혼자.. 타신거예요? 보트를요?

배석자: 아니 그러니깐 그게요.

(나) SBS 영스트리트(2010)

김희철: 문자로 사육오칠 님. 너무 보고 싶은 영화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다 봤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조조로 저 혼자 봤어요. 쓰리디 영화라 안경까지 쓰고 그 와중에 팝콘까지 다 먹었어요. 예유 아침부터 그 짓을 혼자 했더니 아직까지 기분이 영 짱이네요. 짱입니다.

자 일팔공팔 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말두 잘 안하구 잘 웃지도 않았더니 엄마가 기운차리라고 하시면서 얼음 동동 띄운 물냉면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 물냉면 정말 맛있죠.

김희철: 영스벅스 어떤 사연. 자 계속 소개해드릴게요. 김희원 님 의 사연입니다. 저희 오빠 와 저는 무려 열세 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귀여운 조카가 두 명이나 있죠. 일곱 살짜리 남자애와 다섯 살 짜리 여자애인데요. 오빠 와 새언니 가 맞벌이를 해서 제가 종종 조카들을 돌보곤 합니다. 물론 약간의 용돈을 받는 조건으로 말이죠. 그런데요 분명 일 년 전 만 해도 물총으로 총싸움 해주고 인형놀이만 해줘도 고모 짱짱 하면서 저를 잘 따랐는데요. 이젠 공놀이 그림 그리지 가위바위보 이 정도로는 성에 안 차는가 봅니다.

1. (가)과 (나) 자료에서 청취자를 지칭하는 표현을 찾아보자.
2. (가)에서 사용된 지칭어와 (나)에 사용된 지칭어가 어떻게 다르며, 지칭어가 변화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 5. 맺음말

높임의 대상을 발화에 등장하는 ‘주체’로 한정하여 높임법의 실현 양상을 살펴 보았다. 형식이 짜여져 있고 대본에 의존적이므로 비교적 보수적인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높임법의 체계가 약화되고 있으며 그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원래 이 주제를 택했을 때는 불과 했수로 5년 전인 2006년의 방송에 나타난 양상과 차이가 있으리라고 예측하지 못했으나 다른 각도로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겹치는 영역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가 뚜렷해 이를 함께 분석하게 되었다. 한국 문화를 반영하는 한국어의 특성인 높임법의 체계가 실제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게 되었다.

국어 문화에 있어서의 높임법의 의미와 높임법을 실현하는 요소들의 사용 방법 및 호응을 제대로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잘못 사용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실현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언어생활을 영위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중하여 높여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어에 이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국어 교육에서 높임법을 제대로 다루어야 할 당위성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진행자와 출연자의 발화가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바르고 자연스러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교육과학기술부(2008),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② 국어』.  
교육부(1997), 『국어과 교육 과정(제7차 교육과정)』.  
교육부(2000),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국어-』.  
교육인적자원부(2002), 『고등학교 문법 교사용 지도서』.  
교육인적자원부(2002), 『고등학교 문법』.  
교육인적자원부(2007), 『국어과 교육과정』.  
구본관(2008), 문법 교육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선청어문 36, 서울대 국어교육과  
김정호(2004), 국어 높임법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언어학적 접근, 겨레어문학 33, 겨레어문학회  
김한샘(2006), 경어법의 변화 양상 분석, 국립국어원.SBS  
남기심(2001), 『현대 국어 통사론』, 태학사  
양영희(2010), 국어 높임법의 올바른 교육을 위한 몇 가지 제언, 학습자중심교과 교육연구 10,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 TV 토론 프로그램 분석

## - 사회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 보 라 미 (국립국어원)

### 1. 머리말

토론은 정해진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경쟁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대립 관계에서의 발화는 토론장과 같은 공식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의 주장과 반대 의견을 갖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을 중요한 능력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달시키는 것을 주된 교육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국어 교육에서도 토론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박은미(2009)에서는 기존 토론에 관한 연구들을 ‘토론의 지식, 토론 교육의 내용, 토론 교육의 수업 모형’에 관한 주제로 이루어졌다고 구분하였고, 2007 국어과 교육과정의 토론 교수 내용은 토론 텍스트가 갖는 중요한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이처럼 토론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토론자의 능력에 주목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방법을 분석하고 이를 가르치는 것을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토론에 참여하는 ‘토론자’가 아니라 토론을 진행하는 ‘사회자’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합리적으로 전달하여 상대방을 설득하는 능력이 물론 중요하지만 대립 관계를 중재하고 논의를 진행시키는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0년 1월~8월까지 방영된 SBS, KBS, MBC의 TV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sup>1)</sup>을 분석하여 사회자가 갖는 역할을 토론 텍스트의 구조적 측면과 내용 전개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1) 분석대상은 SBS 시사토론(29편), MBC 100분 토론(30편), KBS 생방송 심야토론(26편)으로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 2. 토론 텍스트 구조 측면에서의 사회자 역할

생방송 TV 토론 프로그램은 시사성이 강한 토론주제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을 가진 토론자들의 참여로 진행된다. 그러나 TV 매체를 통해 방송되기 때문에 방청객과 시청자라는 참여 대상이 추가되며, 이들의 참여에 따라 진행 양상이 달라지는 특성을 가진다. 토론자들끼리 논쟁을 하는 동안에는 방청객과 시청자들은 논쟁에 직접 끼어들 수 없지만 사회자가 방청객이나 시청자에게 발언권을 주었을 때 이들은 관찰자의 입장에서 토론에 직접 참여하는 토론자의 입장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TV 토론 프로그램의 중요한 텍스트 구조적 특징으로 작용하며, 사회자는 주어진 시간적 한계 안에서 이러한 방송 프로그램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토론 프로그램 사회자는 각자의 발화 스타일에 따라 토론을 진행하는 양상이 사뭇 다르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토론 텍스트의 (거시적) 구조 측면에서 사회자의 역할은 토론의 흐름을 이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다.

SBS, KBS, MBC의 방송 토론회 진행 과정을 거시적 담화 구조 관점에서 살펴보면, 사회자의 인사로 토론회가 시작되고 토론 주제에 관한 심층 논의가 진행된다. 그리고 현장 방청객과 시청자 참여(전화 통화) 후 그 내용과 관련하여 토론이 전개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자의 마무리로 토론회가 끝난다. 이를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토론 시작하기 → 토론의 전개 → 방청객·시청자 참여  
→ 토론의 전개 → 토론의 마무리

토론 프로그램의 시작 부분은 사회자 인사와 토론 주제에 대한 소개 그리고 토론 배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이루어졌다. KBS와 SBS는 사회자의 인사로 토론을 시작하고(“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야토론 민경욱입니다(KB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형민입니다(SBS)”) 토론 주제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MBC는 진행자 이외에 아나운서가 토론 주제를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MBC는 토론의 논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토론자 이외에 아나운서, 기자 등의 출현으로 토론 주제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경향을 보인다.

시작부분에서 사회자의 또 다른 역할은 토론 참여자들을 소개하고 방청객과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화 및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한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있었다.

사회자 역할	내용(예)
토론 주제 소개	<p>〈SBS 2010.3.12〉 아동성범죄, 어떻게 막나?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길태에 대해서 몇 시간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조두순 사건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터진 이번 사건, 온 국민이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그 끔찍한 경험 이후에 당국은 과연 그 동안 뭘 했나. 또 관련 법안 처리에 등한시한 국회는 또 뭐라고 할 것인가.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말로 이런 비극적인 일을 다시 격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SBS 시사토론은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집중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p> <p>〈KBS 2010.1.9〉 2010 최대현안 일자리 창출, 해법을 찾는다.  지난 해 경제 위기를 넘느라고 힘들어서 그런지 새해 들어 경제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일자리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 위기의 그늘은 서서히 벗어나고 있지만 일자리는 그다지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구조적으로 경제와 기업이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공식적인 실업률은 3.3%로 실업자가 81만 명 정도라지만 실제로는 300만 명이나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단기간 취업자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사정 때문에 새해 들어 정부는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까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방송 심야토론에서는 한해를 시작하면서 서민 경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문제를 토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또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p>
토론자 소개	<p>〈SBS 2010.3.12〉 아동성범죄, 어떻게 막나?  토론참석자 소개해 드립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지내신 ○○○ 변호사 모셨습니다. 그 옆에 경찰청 ○○○ 청소년 과장 나오셨습니다. 경기대 대학원 범죄 심리학과 ○○○ 교수 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교 ○○○ 교수 소개합니다.</p> <p>〈KBS 2010.1.9〉 2010 최대현안 일자리 창출, 해법을 찾는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각계 전문가 여섯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p>
방청객 소개	<p>〈SBS 2010.3.12〉 아동성범죄, 어떻게 막나?  방청석에는 오늘도 시민토론단을 비롯해서, 시민여러분들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p>

	<p>〈KBS 2010.1.9〉 2010 최대현안 일자리 창출, 해법을 찾는다. 오늘 방청석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참여를 희망해 주신 방청객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p>
시청자 참여 안내	<p>〈KBS 2010.1.9〉 2010 최대현안 일자리 창출, 해법을 찾는다.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이용하실 분은 서울 지역번호 02-785-2400번 이용해 주시고요. 네티즌 여러분은 심야 토론 게시판과 100자 토론란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에 올려 주신 의견들은 토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틈틈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p> <p>〈MBC 2010.8.26〉 인사청문회, 이대로 좋은가?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립니다. 02-784-3300번 또는 인터넷 MBC홈페이지에 의견 남겨주시면 토론 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p>

토론 시작 부분에서의 사회자 역할은 ‘토론 주제 소개, 토론자 소개, 방청객 소개, 시청자 참여 안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방청객 소개’와 ‘시청자 참여 안내’는 방송 프로그램이라는 요인으로 비롯된 것이지 일상생활의 토론 현장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토론을 시작한 이후, 사회자는 토론 참여자에게 본격적인 질문을 물으면서 토론을 진행해 간다. 이 때 방송 프로그램에서 사회자의 첫 질문은 토론의 주제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 관련 주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토론자에게 첫 질문을 하여 토론 주제에 대해 개략적인 내용을 정리한 다음, 토론 주제에 대한 토론자들의 입장을 들으면서 주요 논의를 이끌 수 있으며 혹은 토론자 전체에게 발언권을 주면서 각자의 입장을 들을 수도 있다.

- 미국도 북한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대북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그 이야기 부터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 ○ 박사 어떻게 보세요? 현재 한반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SBS 2010.7.30〉 긴급진단! 한반도 위기

-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간단히 몇 말씀 나눠보죠. 먼저 ○ ○ ○ 교수님, 도요타의 리콜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가 도요타 자동차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 걸로 보시나요?

- ○○○ 교수님께서서는 지엠 연구소에서도 오랫동안 근무를 하신 자동차 산업 공학자신데요. 공학자의 입장에서 이번 리콜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KBS 2010.2.6〉 도요타 사상최대 리콜, 파장과 교훈은?

- 우선 이번 청문회를 좀 평가해 보죠.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이 가능할 텐데요. 먼저 검증이 제대로 잘 됐다고 보시는지요? (→ 토론자 모두에게 발언권 줌)

〈MBC 2010.8.26〉 인사청문회, 이대로 좋은가?

위 발췌 내용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자의 첫 질문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토론은 전개된다. 이 때 사회자는 토론자의 발언 시간을 조정하거나 입장을 정리해 주면서 토론을 진행해 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토론 텍스트 내용 전개 측면에서 사회자가 갖는 역할과 함께 다루도록 하겠다.

토론이 계속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회자는 방청객과 시청자들의 참여 시간을 가짐으로써 토론 텍스트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이는 TV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 구조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토론회에서 전화연결을 통해 토론회 밖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KBS, 2010.8.28〉 인사청문회, 그 평가와 과제는?

사회자	여기서 이제 방청객들을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말씀 좀 듣고 토론을 이어갈까 합니다. 먼저 어떤 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방청객	발언
사회자	네, 많이 긴장하셨나봐요. 말씀 고맙습니다. 또 다음 분 말씀 들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방청객	발언
사회자	예, 말씀 고맙습니다. 이제 전화 연결해볼까요. 첫 번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의 누구신지요?
시청자	발언
사회자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발언
사회자	예, 말씀 고맙습니다.

○ 〈MBC 2010.8.26〉 인사청문회, 이대로 좋은가?

사회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청자 의견 듣고 토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시청자	여보세요?
사회자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시청자	김포에 사는 ○○○입니다.
사회자	네, 네. 말씀해 주시죠.
시청자	발언
사회자	청문회제도를 보완해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군요. 다음 분
시청자	여보세요?
사회자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시청자	충주 시에 사는 ○○○입니다.
사회자	말씀해 주시죠.
시청자	발언
사회자	네, 흠결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국민을 위해 봉사할 사람은 말이죠. 그런 말씀이시군요. 고맙습니다. 다음 시민논객 질문 받겠습니다. 누구에게 질문하실지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방청객과 시청자 참여는 방송이라는 매체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반적인 토론 텍스트의 구조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자는 방청객과 시청자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토론자들 사이의 뜨거워진 토론 열기를 잠재울 수도 있으며, 토론 질문의 폭을 넓혀 내용을 심화할 수도 있다.

사회자는 토론자에게 시청자 의견과 관련하여 질문을 던지기도 하면서, 방청객과 시청자 참여가 끝난 후에도 토론을 계속 진행한다. 그리고 최종 발언할 기회를 주며 토론의 마무리를 준비하고 최종적으로는 토론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인사를 하면서 토론을 끝낸다.

〈KBS, 2010.8.28〉 인사청문회, 그 평가와 과제는?

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도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네 분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박 교수님.

사회자: 혹시 네 분 중에 나 이 말 만큼은 꼭 하고 싶다 남은 게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사회자: 네 말씀 고맙습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의 내용들이 올바른 개선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일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KBS 생방송 심야토론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SBS 2010.6.3〉 6.2 지방선거가 남긴 것은?

사회자: 네. 이번 선거 결과로 그렇게 정치변화에 어떤 변곡점 분시령이 되면 참 얼마나 좋을까 생각 듭니다. 이번 선거결과를 겸허한 마음으로 사상 패배로 받아들이겠다 0.6% 득표율 차이로 신승한 오세훈 후보의 말인데 이 말에 진심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민심의 매서움 유권자인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 그 의미를 되새길 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 되새기는 일이 패자의 몫만은 아닐 겁니다. 지금은 승리의 달콤함에 취해있을 테지마는 오히려 이런 때 승자들이 국민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뽑아줬는지 그런 것을 헤아리면서 초심을 세우고 앞으로 봉사과 헌신을 그런 다짐을 해볼 때 아닌가 싶습니다. SBS 특집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의 (거시적) 구조 측면에서 사회자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사회자는 '토론회 시작하기 → 토론의 전개 → 방청객·시청자 참여 → 토론의 전개 → 토론의 마무리'에서 각각의 단계의 변화를 이끌었다. 다시 말해, 사회자는 토론회를 시작하는 인사말과 토론회를 끝내는 인사말을 통해 토론 텍스트의 시작과 끝을 분명히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사회자는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시키고 방청객과 시청자의 참여를 이끌기도 하였다. 이러한 역할은 SBS, KBS, MBC의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었으며, 사회자의 진행 없이는 토론자들 간의 논쟁만으로는 원활한 토론회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었다. 다음 절에서는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내용 전개 측면에서 토론자들의 논쟁을 심화시키거나 대립을 중재시키는 사회자의 역할을 고찰해 본다.

### 3. 토론 텍스트 내용 전개 측면에서의 사회자 역할

‘토론의 전개’는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으로 토론의 전체 부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회자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토론 전체를 진행하고, 주어진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발언자를 지적하고, 새로운 주제를 선택하고 전환하는 등의 다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토론을 이끄는 것이다(Edelsky & Adams 1990, 송경숙 2002:284).

앞서 언급한 것처럼 토론자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토론 자체는 대립적인 논쟁의 특성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 입장에서 대립적 관계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논의를 중재하여 원활하게 논의를 진행할 중립적 인물이 필요하게 되고, 사회자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토론 텍스트의 내용이 전개되면서 사회자가 갖는 중요한 역할은 토론의 대립을 심화시키거나 중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송경숙(2002)에서는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의 담화 구조를 분석하고, 토론에 참여한 토론자들이 주어진 안건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나타내는데 사회자의 지명을 받은 토론자가 토론 주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면, 대립되는 의견을 갖고 있는 참석자가 반대 의견이나 반론을 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반론이 이어지면 사회자는 각자의 주장에 대해 확인성 질문을 추가로 던질 수 있고 부연 설명과 답변을 들은 후, 사회자는 요약하면서 다른 참석자들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전개 흐름은 SBS, MBC, KBS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발견되었으며, 아래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A 토론자 발언</li><li>2. 사회자: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듣지요. 진행상의 협조말씀을 구하면, 한 번에 너무 길게 말씀하면 토론이...</li><li>3. B 토론자 발언</li><li>4. A 토론자 발언 ↔ B 토론자 발언 (3회 지속)</li><li>5. 사회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li><li>6. B 토론자 발언</li><li>7. 사회자: 알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평가를 여쭙았는데 A 토론자는 여태까지 법안이 처리된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이것이 이념의 문제로 변질된 것이고 국민적 합의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C 토론자께서는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li></ol> |
|--|

8. C 토론자 발언
9. 사회자: C 토론자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토론해야 될 것이 원안이 좋다, 수정안이 좋다 이렇게 양쪽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쪽 안이 더 바람직한 안인지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 토론자에게 여쭙보죠. 원안과 정부 수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행정부처를 이전하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 이 대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0. B 토론자 발언
11. 사회자: 알겠습니다. D 토론자 발언을 들어보아야 할 것 같은데.
12. D 토론자 발언
13. 사회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사실 제 질문은 하나하나 따져야 할 점들이 꽤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여쭙았던 것은 행정부처 이전 뺀 것, 그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사실 정확히 안 나왔는데,
14. B 토론자 발언
15. 사회자: 특혜 얘기는 좀 나중에
16. B 토론자 발언
17. 사회자: 죄송합니다만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린 것이 행정부처 이전을 빼고 수정안을 만든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특혜 부분만 계속 말씀을 하셔서
18. B 토론자 발언
19. 사회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A 토론자에게 여쭙볼게요. 자, 수도권 과밀해소, 국토 균형발전, 이것을 크게 내걸고 사실은 행정부처 이전을 결정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안은, 그러면 행정부처 이점을 뺀 이 수정안,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20. 사회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A 토론자님이 마이크가 넘어가면 길게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다시 한 번 환기시켜 드립니다.

위 대화는 2010.1.15에 방영된 SBS 시사토론 “긴급진단! 세종시 수정안”에서 가져온 것으로, 토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토론자 간의 논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사회자의 갖는 역할을 살펴볼 수 있다. 실제 토론자들 간의 발언 내용을 발췌하지 않았지만 A와 B가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사회자가 A~D 토론자들에게 골고루 발언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논의의 흐름이 끊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 또한 사회자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데, 위 지문에서는 사회자가 이야기를 끊는 상황을 목격할 수 있다. A 토론자의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2에서 사회자는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듣지요”로 발언을 중지시키고 있다. 그리고 A에게 경고를 주면서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협조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20에서도 볼 수 있

듯이 A의 이야기가 또 길어지자 발언을 중지시키고 다시 한 번 길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주고 있다.

이처럼 사회자는 발언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토론자 개인이 가지는 논의의 흐름을 끊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토론 참여자 전체가 골고루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한 쪽의 발언이 길어져서 논의가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회자는 개인 토론자의 발언을 조정함으로써 전체 토론 전개에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 7과 9의 대화를 보면, 사회자는 선행 토론자가 이야기한 내용을 요약·정리하면서 발언권을 다른 토론자에게 넘기고 있다. 이처럼 사회자가 다른 토론자에게 발언권을 넘길 때에는 크게 두 가지 입장에서 논의를 이끌 수 있다.

토론은 특정 주제에 대하여 의견이 찬성과 반대로 분명하게 나눈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토론의 흐름은 대립적인 의견을 나누며 진행되거나 찬성과 반대 중 같은 입장인 사람들이 논의를 지지하기 위한 발언을 하면서 진행될 수 있다. 사회자는 논쟁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대 의견을 가진 토론자에게 발언권을 넘길 수 있으며, 혹은 심화된 대립 관계를 약화시키기 위해 다른 주제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다른 토론자에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사회자는 이처럼 상반된 진행 방식으로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교수께서도 이런 흐름에 동의하십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혹시 반론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기회 드리겠습니다.”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논의를 지속시키고 있다.

이처럼 토론 프로그램의 사회자는 발언 순서 조정 등을 통해 논의를 지속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전체 토론의 내용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토론에서 사회자가 가지는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어 교육적 적용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 4. 국어 교육적 함의

임철성(2010:119-120)은 ‘문어가 지식 중심적 사고와 관련된다면, 구어는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며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생성 시키고 발전시키며 구어는 참여자들을 결속시키기도 하고, 삶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직접적이고 일상적인 방식’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구어로 진행되는 담화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따라 그 양상과 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담화 참여자로서 역할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토론 담화에서 사회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효과적인 방법으로 토론을 이끌 수 있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7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듣기 영역 중, ‘일상생활 또는 시사적 쟁점을 주제로 한 모둠 토론’에서 ‘토론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한다.’라는 성취 기준 아래 다음과 같은 4가지의 내용 요소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 토론의 특성 이해하기
- 토론의 논제와 토론자의 역할 이해하기
- 찬반양론의 주장과 근거 파악하기
- 주장과 근거의 적절성 평가하기

7학년 국어과 말하기 영역의 교육과정에서는 ‘인터넷 토론’을 교육목표로 삼았고, 고등학교 1학년인 10학년 듣기 영역에서는 ‘시사 문제나 사회적 쟁점을 논제로 한 토론’의 교육내용 아래 ‘토론을 듣고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논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을 성취목적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논제와 하위 쟁점 파악하기, 찬반 양측의 주장과 근거 비교하기, 논제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된 내용 정리하기, 논제와 관련된 자료 더 찾아보기’와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국어 교육에서 ‘토론’은 듣기·말하기 영역에서 주로 다루고 있지만, 학습 연령에 따라 토론 텍스트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사적 문제나 사회적 쟁점을 토대로 고차원적인 사고력이 필요한 활동으로 교육 내용이 바뀌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토론 참여자와 사회자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어과 심화 과목인 ‘화법’에서도 담화 유형으로 토론을 제시<sup>2)</sup>하고 있으며, 김혜련, 이남주(2009)에서는 실제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매체 언어 교육적 관점에서 메타 TV 토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화법 능력을 신장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다.

TV 토론의 메타적 점검(김혜련, 이남주 2009:194 수정 인용)

참여자 유형	점검요소	메타적 점검 발문 자료
사회자	토론 시작하기	토론을 시작할 때 논제에 관한 배경지식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참여자 소개	토론자를 어떻게 소개하는가(차례로/배경지식과 관련하여/논제와의 관련성 여부 등)
	발화 점검 및 조정	토론자의 의견 대립 중재 토론자의 발언 내용 요약 토론자의 발언 내용 정정
	발언권 부여	발언권 주기와 빼앗기
	화제 구조조정 및 전이	화제의 도입과 마무리, 화제 유지
토론자	정확하고 분명한 언어로 선택한 입장을 표명하는가 반박을 위한 주장과 근거를 명료하게 제시하는가	

2) <표 2> 개정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화법 교육의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lt;지식&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법의 성격</li> <li>○ 화법의 요소</li> <li>○ 화법의 유형</li> <li>○ 화법과 매체</li> </ul>	<p>&lt;담화 유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화</li> <li>○ 면접</li> <li>○ 토의</li> <li>○ 토론</li> <li>○ 협상</li> <li>○ 발표</li> <li>○ 연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기능&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과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구성</li> <li>- 언어적·반어적·비언어적 표현</li> <li>- 의사소통 전략</li> <li>- 매체 활용</li> </ul> </li> <li>○ 사회적 상호 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 인식</li> <li>- 대인 관계의 형성과 발전</li> <li>- 주도와 협력</li> <li>- 말하기 불안 해소</li> </ul> </li> <li>○ 의사소통의 점검과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과 생산의 점검과 조정</li> <li>- 사회적 상호 작용의 점검과 조정</li> </ul> </li> </ul>	

앞서 구조적 측면과 토론 내용 전개 측면에서 논의되었던 사회자의 역할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국어과 교육과정의 세부 교육 내용에 적용해 볼 수 있다. 학생들에게 실제 토론 프로그램 장면을 보여주고 사회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직접 찾아보게 할 수도 있으며, 텍스트 구조적 측면에서 다른 사회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토론 텍스트의 구조를 추측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김혜련·이남주(2009)에서 논의된 메타적 점검 발문의 구체적인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자가 ‘토론을 시작할 때 논제에 관한 배경지식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토론자의 의견 대립을 중재하거나 토론자의 발언 내용을 요약·정정’할 때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화법 교육과도 연결하여 다양하게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 5. 맺음말

본고에서는 SBS 시사토론, MBC 100분 토론, KBS 생방송 심야토론을 바탕으로 토론 프로그램 텍스트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사회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토론 텍스트의 구조적 측면과 내용 전개 측면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TV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은 토론 과정에서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사회자는 이러한 구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토론 프로그램의 구조는 ‘토론 시작하기 → 토론의 전개 → 방청객·시청자 참여 → 토론의 전개 → 토론의 마무리’로 이루어졌으며, 각 단계가 바뀔 때마다 사회자는 특정한 발화 양식을 보였다. 즉, 토론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논쟁이 진행되는 것은 사회자의 진행으로 이루어졌으며, TV 토론 프로그램이 가지는 매체적 성격으로 인한 방청객과 시청자 참여 또한 사회자의 안내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토론의 내용적 전개 측면에서 사회자가 기여하는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사회자는 원활한 토론을 이끌기 위해 중립적 입장을 유지한다. 둘째, 사회자는 개인 토론자의 발언을 조정함으로써 전체 토론 전개의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균형을 맞춘다. 셋째, 사회자는 토론자의 발언권을 뺏거나 다른 토론자에게 줄 수 있으며, 이는 논쟁을 강화하거나 대립을 중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자는 다른 주제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다른 토론자에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사회자는 토론자에게 제시된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발언 순서 등을 조정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TV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의 분석을 통해 얻은 사회자의 역할은 국어 교육 말하기와 듣기 영역의 토론 수업에 이용할 수 있으며, 화법 교육의 자료로도 활용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TV 토론 프로그램 분석 결과는 ‘토론의 지식, 토론 교육의 내용, 토론 교육의 수업 모형’에 관한 다양한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으며, 이는 방송 언어 자료를 통한 국어 교육의 적용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 〈 참고문헌 〉

- 김혜련, 이남주(2009), TV 토론에 대한 매체언어교육적 접근을 위한 시론: “메타 TV토론”식 교수, 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새국어교육 83호, 한국국어교육학회. 161쪽~210쪽.
- 박은미(2009), 국어과 교육에서 ‘교육토론’의 내용 연구: 2007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경숙(2002), 담화분석: 대화 및 토론 분석의 실제. 한국문화사.
- 임철성(2010), 바람직한 화법 교육과정 구조와 내용 체계 연구, 국어교육 131호, 한국국어교육학회. 119쪽~140쪽.
- 정민주(2008), 협상의 개념과 전략에 관한 국어교육적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31호, 국어교육학회. 459쪽~485쪽.

## < 부 록 >

<표 1> SBS 시사토론

순서	방영일	방영 주제
1	2010.1.1	2010 한국·한국인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	2010.1.8	2010 한국 경제 재도약의 길은?
3	2010.1.15	긴급진단! 세종시 수정안
4	2010.1.22	2010 한국 정치, 이것부터 바꾸자
5	2010.1.29	사법개혁, 무엇을 어떻게?
6	2010.2.5	남북정상회담 임박했나?
7	2010.2.19	2018 평창의 꿈 이루나?
8	2010.2.26	이명박 정부 2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9	2010.3.5	벤쿠버 올림픽, 무엇을 남겼나?
10	2010.3.12	아동성범죄, 어떻게 막나?
11	2010.4.2	긴급점검 천안함 침몰
12	2010.4.9	천안함 침몰, 남은 의혹은?
13	2010.4.16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누가 적합한가?
14	2010.4.23	김진표 vs 유시민 경기지사 야권 후보 단일화 논란
15	2010.4.30	안상수 vs 송영길 인천시장, 누가 책임자인가?
16	2010.5.14	김문수 vs 유시민 경기지사 후보 맞장토론
17	2010.5.19	오세훈 vs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맞장토론
18	2010.5.21	천안함 발표, 파장은?
19	2010.5.28	지방선거 D-5, 쟁점은?
20	2010.6.3	6.2 지방선거가 남긴 것은?
21	2010.6.4	월드컵 16강, 꿈 이루나?
22	2010.7.9	잇따르는 아동 성범죄, 대책은?
23	2010.7.16	2014 이제는 브라질이다!
24	2010.7.23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25	2010.7.30	긴급진단! 한반도 위기
26	2010.8.6	침·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27	2010.8.13	‘부동산 위기’ 대책은?
28	2010.8.20	이명박 정부 후반기 과제는?
29	2010.8.27	8.8개각 청문회, 무엇을 남겼나?

〈표 2〉 MBC 100분 토론

순서	방영일	방영 주제
1	2010.1.7	2010년 한국경제 희망과 도전
2	2010.1.14	세종시 수정안 논란
3	2010.1.21	법(法)·검(檢) 갈등 어디까지…
4	2010.1.28	‘아바타’, 영화의 미래인가?
5	2010.2.4	2010 부동산, 어디로?
6	2010.2.11	외국인 100만 시대, 우리안의 그들은
7	2010.2.18	설 민심과 6월 지방선거
8	2010.2.25	지난 2년, 앞으로 3년: 이명박 정부 취임 2주년
9	2010.3.7	교육개혁, 어디로?
10	2010.3.11	무상급식, 왜 논란인가?
11	2010.3.18	6.25 지방선거, 쟁점은?
12	2010.3.25	사법제도 개선 논란
13	2010.4.1	〈집중진단〉 천안함 침몰
14	2010.4.8	천안함 침몰사건, 풀리지 않은 의혹들!
15	2010.4.15	지방선거, 쟁점과 전망은?
16	2010.4.22	선택 2010, 지방선거토론 I: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토론
17	2010.5.18	선택 2010, 지방선거토론 II: 서울시장 후보 초청토론
18	2010.5.20	선택 2010, 지방선거토론 III: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토론
19	2010.6.3	지방선거, 정국 어디로…
20	2010.6.10	다시 월드컵! ‘광장’을 말하다
21	2010.6.24	한국전쟁 60년, 위기의 남북관계
22	2010.7.1	전작권 전환 연기, 왜?
23	2010.7.8	다시 불붙는 4대강 사업 논란
24	2010.7.15	민간인 사찰 파문, 무엇이 문제인가?
25	2010.7.22	부동산 대책, 어떻게 해야 하나?
26	2010.7.29	20대의 오늘과 내일, 희망을 찾아서
27	2010.8.5	무엇이 ‘친서민’인가?
28	2010.8.12	반환점 도는 이명박 정부, 과제는?
29	2010.8.19	‘통일세’, 왜 논란인가?
30	2010.8.26	인사청문회, 이대로 좋은가?

〈표 3〉 KBS 생방송 심야토론

순서	방영일	방영 주제
1	2010.1.9	2010 최대현안 '일자리 창출, 해법을 찾는다'
2	2010.1.16	대학 등록금 이대로 좋은가?
3	2010.1.23	법조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4	2010.1.30	북 해안포 사격, 의도는?
5	2010.2.6	도요타 사상최대 리콜, 파장과 교훈은?
6	2010.2.20	불붙은 낙태 논쟁, 생명권인가 선택권인가?
7	2010.2.27	특별기획 국민대토론 이명박정부 2년, 성과와 과제는?
8	2010.3.13	아동 성범죄, 근절책 없나?
9	2010.3.20	학교 무상급식, 어떻게 할 것인가?
10	2010.3.27	사법제도 개선 논란, 쟁점은 무엇인가?
11	2010.4.10	천안함 침몰, 의문과 과제는?
12	2010.4.24	교원단체 명단 공개, 어떻게 볼 것인가?
13	2010.5.1	천안함 사건 이후, 앞으로의 과제는?
14	2010.5.8	김정일 방중, 무엇을 노렸나?
15	2010.5.15	촛불 시위 2년, 광우병 파동을 다시 생각한다.
16	2010.5.29	남북관계 긴장과 경제적 파장
17	2010.6.5	지방선거 이후, 정국 향방은?
18	2010.6.12	지방선거 30대 표심, 무엇을 말하고 있나?
19	2010.6.19	집회·시위의 자유, 어디까지인가?
20	2010.7.3	민선 5기 출범, 지방자치 과제는?
21	2010.7.10	교육정책 갈등, 해법은?
22	2010.7.17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해법은?
23	2010.7.24	학교체벌, 사랑인가 폭력인가?
24	2010.7.31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의 길은?
25	2010.8.7	2010년 가을, 한국정치 어디로?
26	2010.8.28	인사청문회, 그 평가와 과제는?

# TV 뉴스 텍스트의 국어 교육적 분석

정 희 창 (국립국어원)

## 1. 뉴스 텍스트와 국어 교육

TV 뉴스 보도문은 개별적인 사건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완결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한 그림과 함께 음성 언어가 주로 사용되고 문자 언어가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문자 매체에만 의존하는 신문, 잡지의 기사와 다르며 또 음성 언어로만 실현되는 라디오 뉴스 보도문과도 차이가 있다.<sup>1)</sup>

TV 뉴스 보도문에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는 다른 매체에 비해 사회적인 영향력이 무척 크기 때문이다.<sup>2)</sup> TV 뉴스 보도문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시각을 기르는 것은 무척 중요한 사회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뉴스 보도문을 분석하고 좀 더 이해도가 높은 완결된 텍스트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텍스트의 완성도를 높이는 요소를 찾아내는 것은 텍스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 텍스트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 2. 분야별 뉴스 텍스트 분석

TV 뉴스 보도문을 ‘사회, 경제, 문화, 스케치, 사건사고, 전문기사, 일기예보’의 분야별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처럼 분야를 나누는 것은 TV 뉴스 보도문이 분야별 특성을 갖추고 있어서 텍스트를 이해하는 방식 또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

1) TV 뉴스 보도문의 전반적인 텍스트 언어학적인 이해는 ‘장소원(2003)’을 참조할 수 있다.

2) 한국 사람 중 80% 이상이 매일 TV 뉴스를 시청한다고 한다.(김민영 2007)

## 2.1. 사회

<p>폭염에 선풍기도 ‘열 받는다’...밤새 켜놔다 활활<sup>1</sup>(SBS 8. 6.)</p>	<p>제목</p>
<p>계속되는 폭염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기계도 폭발할 지경입니다.<sup>2</sup> 냉방기를 하루 종일 켜놓는 경우가 많아 과열로 불이 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sup>3</sup></p>	<p>앵커 멘트</p>
<p>지난달 서울 신도림동. 건물 노래방에서 희뿌연 연기가 자욱하게 새어 나옵니다. 화재의 원인은 에어컨 실외기 과열,<sup>4</sup> 다행히 불길이 빨리 잡혀 큰 피해는 막았지만 건물 전체로 번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sup>5</sup> 지난 유월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 지하. 창문으로 하얀 연기가 새어 나옵니다. 오래 켜 놓 선풍기가 과열되면서 불이 나 위층으로 번질 뻔 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이렇게 냉방기 과열로 발생한 화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p> <p>[안성녀/서울 난곡동: 선풍기나 에어컨은 요즘에 안 틀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불 난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 하죠.]</p> <p>냉방기 과열로 인한 화재는 서울에서만<sup>6</sup> 지난 이 년 동안 백십 건, 올 들어서도 지난 두 달 동안에만 사십여 건이나 발생했습니다.<sup>7</sup></p> <p>[이환중/서울 관악소방서 진압팀장: 모타에 먼지가 끼게 되면 과열돼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며<sup>8</sup>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실외기의 그 전선이 단락돼 가지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sup>9</sup>]</p> <p>선풍기에 세탁물을 걸쳐 말리는 것도 모터가 과열돼<sup>10</sup>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외출할 땐 반드시 냉방기의 전원 플러그를 빼놓고<sup>11</sup> 냉방기 내부에 먼지가 쌓여 있거나 전선이 벗겨져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sup>12</sup></p>	<p>기자 리포트</p>

- 1) 뉴스 제목이 지나치게 묘사적이다. ‘열받는다...활활’과 같은 표현은 생동감을 주는 효과가 있지만 정보 전달을 위주로 하는 기사의 내용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하기 어렵다. ‘폭염 속 에어컨·선풍기 화재 주의보(KBS)’, ‘선풍기·에어컨 냉방기 화재 속출, 각별한 주의(MBC)’와 같이 정보 전달에 충실한 제목이 적절해 보인다.

- 2) ‘사람뿐만 아니라 기계도 폭발한 지경이다’는 과장된 표현이다. 기사 내용은 폭염으로 냉방기를 무리하게 사용하면서 과열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폭발’과는 거리가 있다.
- 3) 냉방기를 종일 가동하면 반드시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인지 정보 전달이 불충분하다.
- 4) 뉴스 텍스트에서는 명사로 종결하는 표현이 자주 나타난다. 이 기사 리포트에도 ‘서울 신도림동, 실외기 과열, 아파트 지하, 백십 건’과 같은 명사 종결 표현이 등장한다. 명사 종결 표현은 화제를 명확히 드러내고, 뉴스의 긴박감을 조성하며 문장을 강조하는 느낌을 주는 효과가 있다.(양철훈·정희창 외 2008:254)
- 5) ‘건물 전체로 번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의 ‘아찔한’은 과장되고 상투적인 표현이다. 사고치고 아찔하지 않은 사고는 없다. ‘건물 안으로 옮겨 붙어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MBC)’가 적절하다.
- 6) 냉방기 과열 화재 발생이 ‘서울’ 지역의 특징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굳이 ‘서울’로 대표할 필요가 없다. 뉴스 기사를 비교해 보면 ‘SBS, MBC’는 서울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KBS’는 전국의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 7) 지난 이 년간의 화재 발생 건수와 지난 두 달간의 화재 발생 건수를 비교하는 것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예년에 비해 화재 발생률이 높아졌다는 것인지 예년과 같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수치를 인용하는 것이 뉴스 내용을 전달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 8) 선풍기의 경우임을 분명히 밝혀야 오해의 소지가 없다.
- 9) ‘전선이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한다’에서 ‘단락(短絡)’은 일반적인 ‘합선(閣線)’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뷰지만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도록 기자가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선이 합선되는 이유가 밝혀져 있지 않아서 시청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다. 기사의 끝부분에 ‘전선이 벗겨져 있지는 않은지’와 같은 부분이 있지만 이 둘의 연관성을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 ‘에어컨 실외기의 경우 열을 받으면 전선 피복이 벗겨지고 합선이 돼 불이 납니다.(MBC)’와 같은 설명을 인터뷰에서 밝히든지, 아니면 추가하든지 해야 전체 기사를 이해할 수 있다.
- 10) 이 경우도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세탁물을 걸쳐 말리는 것이 왜 모터가 과열되는 원인이 되는지 알기 어렵다. ‘선풍기에 이렇게 세탁물을 널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세탁물이 선풍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도 과부하가 일어나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KBS)와 같은 설명이 필요하다.

- 11) 외출할 때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다른 방송사의 뉴스와 비교해 볼 때 신뢰성이 떨어진다. 플러그를 뽑지 않는 것이 과열의 원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외출할 때는 전원을 끄고(MBC), 장기간 집을 비울 때 전원 플러그까지 뽑아야 한다는 것(KBS)이 더 타당해 보인다.
- 12) ‘외출할 때마다’는 실제로는 ‘전원 플러그를 뽑고’와만 관계가 있지만 문장 구조상으로는 ‘먼지가 쌓였는지 전선이 벗겨져 있는지 확인한다’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 ‘소방재난본부는 냉방기 내부에 먼지가 쌓여 있거나 전선이 벗겨져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고 외출할 땐 반드시 냉방기의 전원 플러그를 빼놓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도로 문장을 바꿀 필요가 있다.

## 2.2. 경제

<p>“생선·채소 사기 겁난다”...6년 만에 ‘최대 상승’<sup>1)</sup>(SBS 8. 2.)</p>	<p>제목</p>
<p>네, 이렇게 주가와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도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물값입니다. 공공요금도 줄지어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sup>2)</sup> 채소와 생선 같은 신선식품 값이 육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 기잡니다.</p>	<p>앵커 멘트</p>
<p>대형마트 채소 코너. 가격표를 보면 장바구니에 물건 담기가 여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무가 많이 올랐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sup>3)</sup> 배추보다 무가 더 지금… 필요하니까 사가는 거죠….]  배추 한 통 값은 이천사백팔십 원으로 일 년 전보다 오십칠 퍼센트나 올랐고, 무 값은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sup>4)</sup> 복숭아 값도 오십육 퍼센트나 올랐습니다. 통계청 조사에서도<sup>5)</sup> 지난 칠월 생선과 채소 등 신선식품의 물가는 지난해 칠월에 비해 십육 퍼센트나 상승했습니다. 이는 이천사년 팔월 이후 육 년 만에 최대치로 전 달보다도 삼 점 팔 퍼센트나 오른 것입니다.<sup>6)</sup></p>	<p>기자 리포트</p>

<p>봄철 이상저온에 이어 최근엔 이상고온과 잦은 비 때문에 <u>작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u>입니다.<sup>7</sup></p> <p>이 달부터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이 예고돼 있습니다. 전기 요금과 버스 요금이 이 달부터 오르고, 도시가스 요금은 다음 달부터 오 퍼센트 가까이 오릅니다.</p> <p>[통계청 물가동향과장: 전기료, 가스료 뭐 이런 게 오르다 보면은 이제, 개인서비스도 이제, 요동칠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봐서 물가 상황이 어, 어떻게 변할 지는 봐야 되고요.]</p> <p><u>장바구니 물가에 더해 공공요금마저 인상 대열에 가세하면서</u><sup>8</sup> 올해 삼 퍼센트 대 물가 상승률이 현실화되는 게<sup>9</sup>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에스비에스 ○○○입니다.</p>	
---	--

- 1) ‘생선, 채소 사기 겁난다’보다는 ‘물가 비상, 큰 폭 상승’ 등의 직접적인 제목이 더 적절하다. 이어지는 ‘6년 만에 최대 상승’을 읽기 전에는 식품 위생에 관한 보도로 오해할 소지도 있다.
- 2) 뉴스 본문에서 공공요금의 인상은 이달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므로 ‘공공요금이 줄지어 인상되고 있다는’ 앵커 멘트는 정확하지 않은 기술이다. 공공요금의 인상이 예고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MBC) 정확하다.
- 3) 뉴스의 내용은 신선 식품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인데 인터뷰는 무 가격의 상승에 초점이 놓여 있어서 전체 신선 식품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논점을 흐릴 가능성이 있다. 전체 신선 식품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타 방송의 인터뷰와 비교해 보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서명옥(서울 방이동): 가뜩이나 장마철인데 물건도 안 좋은데 지금 삼천 원 돈이나 하나까. 그전에 이런 거 저기 뭐야 천팔백 원 막 그랬었어요. (부담이 크시나요?) 어유, 당연히 부담되죠.](KBS)

- 4) 배추 가격의 상승률은 ‘57%’로 정확하게 제시한 반면 무 가격은 배 가까이 올랐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서로 달리 표현함으로써 시청자가 둘을 비교하여 이해하기가 어렵다. 동일한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시청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5) 앞에 제시한 ‘무와 배추, 복숭아의 가격’은 통계청에서 제시한 자료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통계 자료의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6) 전 달에 비해 3.8% 상승했다는 지표는 시청자에게 실감이 나는 수치라고 하기 어렵다. ‘7월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는 것’이 좀 더 현실감 있어 보인다.

- 풍년이었던 작년과 비교해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신선식품이 평균 십육 퍼센트나 올라 육 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칠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 점 육 퍼센트보다 여섯 배 이상 가파른 상승세입니다.(MBC)

다만 위 기사에서는 신선 식품의 경우, 작년과 비교한 상승률을 7월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무리하게 비교함으로써 6배 상승이라는 과장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두 기사를 비교해 보면 칠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6%에 비해 신선 식품의 경우에는 1.2%가 높은 3.8%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 7) ‘작황이 좋지 않다’가 생선과 채소 모두에 관련되는데 ‘생선의 작황이 좋지 않다’는 어색하다.
- 8) ‘장바구니 물가에 더해 공공요금마저 인상 대열에 가세하면서’보다는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오른 데 이어 공공요금까지 인상되면서’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9) ‘물가 상승률이 현실화되는 게’는 어색하다. ‘물가가 오르는 게’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3. 문화

이창동의 ‘시’, 칸 각본상...한국영화 5번째 영광(SBS 5.24.)	제목
이창동 감독이 영화 시로 칸 영화제 각본상을 받았습니다. <u>한국 영화가 칸 본선에서 상을 받은 건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u> ○○○ 특파원이 칸에서 보도합니다.	앵커 멘트
영화 시의 시나리오를 직접 쓰고 연출한 이창동 감독이 오늘 새벽 폐막된 제육십삼 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했습니다.	기자 리포트

<p>한국 영화가 칸영화제 경쟁부문에서 수상한 것은 임권택 감독의 '취화선'이 감독상을 수상한 이천이년 이래 다섯 번째고, 각본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p> <p>이 감독 개인적으로는 이천칠년 밀양으로 전도연에게 여우주연상의 영광을 안긴 데 이어 이번에는 각본상으로 두 번째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sup>2</sup></p> <p>[이창동/‘시’ 감독: 시를 찾고자 하는 마음, 아름다움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걸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한테 이야기하고, 관객들이, 관객들과 같이 느끼려고…]</p> <p>비경쟁부문에서 홍상수 감독이 하하하로 주목할 만한 시선상을 받은 데 이어 한국 영화의 지평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sup>3</sup></p> <p>칸 영화제 최고의 영예인 황금종려상은 태국의 아피차퐁 위라세타쿨 감독의 '영클 분미'에게 돌아갔습니다.</p> <p>제육십삼 회 칸 영화제는 이제 그 화려한 막을 내렸습니다.<sup>4</sup></p> <p>이번 영화제 수상을 통해 우리 영화계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sup>5</sup></p> <p>프랑스 칸에서 에스비에스 ○○○입니다.</p>	
--	--

- 1) 뉴스의 기자 리포트에서 반복되는 특별히 의미가 없는 멘트이다. 각본상으로 선정된 현지의 평가를 소개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인간에 대한 성찰을 밀도 있게 담아냈다, 이런 갈채가 쏟아졌습니다(KBS)’
- 2) 칸 영화제의 수상 경력만을 열거하고 정작 각본상을 수상한 영화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영화에 대한 평가와 수상의 의미 등에 대한 설명 없이 수상 소식만을 언급할 목적이라면 스트레이트 기사로 처리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 영화제의 수상 같은 소재를 다루는 경우라면 좀 더 깊이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 3) 중간에 생략된 부분이 많아 문장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각본상 수상은 홍상수 감독이 주목할 만한 시선상을 받은 것과 함께 한국 영화의 지평이 넓어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가 줄거리인데 중간에 인터뷰가 들어가고 주어를 드러내지 않은 채 기술함으로써 문장 간의 의미적인 연결이 어색하다. 무엇보다도 두 상의 수상이 왜 한국 영화의 지평 확대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시청자로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 4) 뉴스 텍스트 구조상 특별한 의미가 없는 언급이다. 이미 뉴스의 첫머리에서 영화제의 폐막 소식을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 5) 우리 영화가 새롭게 도약할 계기가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러한 언급은 상투적인 표현으로 들리기 쉽다.

## 2.4. 스케치

<p>아이들 ‘웃음소리’ 가득...“오늘은 우리들 세상”(SBS 5.5.)</p>	<p>제목</p>
<p>다음 뉴스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날이었죠? 무엇보다 날씨가 좋아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더 크게 들린 하루였습니다.<sup>1</sup> ○○○ 기자가 어린이날 풍경, 스케치했습니다.<sup>2</sup></p>	<p>앵커 멘트</p>
<p>초록색 우산들이 서울광장을 초록으로 물들였습니다. 다 읽은 책을 집에서 가져와 친구들과 나눠 보고, 우산 위엔 엄마와 함께 정성껏 그림을 그려 넣습니다. 한강 둔치에서는 외국인 이주민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품에서 해맑게 웃으며 오늘의 추억을 가족사진 속에 남깁니다.</p> <p>[박지산(8)/성남 중원초등학교: 너무 좋고요. 날씨도 맑아서 좋, 좋고요. 친구들과 재미, 재밌게 뛰어 놀고요...]</p> <p>동물원은 금세 어린이들 차지가 됐습니다. 어린이들은 책에서만 본 기린과 코끼리에서<sup>3</sup> 눈을 떼지 못합니다. 흥겨운 동요에 맞춰 엄마, 아빠와 함께 즐겁게 춤을 추는 아이들. 어린이들의 귀여운 몸동작에 어른들도 절로 몸이 들썩입니다. 군악대 아저씨들의 공연도, 특전사 아저씨들의 격파시범도 오늘은 모두 어린이들을 위해 준비됐습니다. 비눗방울을 직접 만들어보고 전통놀이를 하며 과거로의 시간여행도<sup>4</sup> 즐겼습니다. 절기 상 입하로 포근했던<sup>5</sup> 어린이날. 오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진 하루였습니다. 에스비에스 ○○○입니다.</p>	<p>기자 리포트</p>

- 1) ‘무엇보다 날씨가 좋아서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는 언급은 초점이 ‘날씨’에 있는 것처럼 들린다. ‘어린이’에게 초점을 두려면 ‘날씨도

좋아서...' 정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날의 실제 날씨 또한 초여름 기온으로 5월의 쾌적한 날씨라고 하기 어려웠다.

- 2) '스케치하다'보다는 '돌아보다, 전하다' 정도가 적절하다. 굳이 외래어를 쓸 이유가 없다.
- 3) 어린이들이 동물을 실제로 본 것이 처음이라는 언급은 기자의 일방적인 짐작일 뿐,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 4) '전통놀이'가 곧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라는 것은 상투적인 표현으로 뉴스의 전체 구조상 특별한 의미가 없는 언급이다.
- 5) '절기상 입하로 포근하다'의 '포근하다'는 표현이 어색하다. '포근하다'는 따뜻한 겨울, 봄 날씨에 어울리는 표현이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입하'가 포근하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실제 날씨 또한 초여름 기온을 기록했으므로 '포근하다'보다는 '덥다'에 가깝다.

## 2.5. 사건사고

휴게소 돌진...10여명 부상(SBS 9.23.)	제목
<p>네, 이렇게 풍성한 한가위였지만 사건사고도 많았습니다. 어젯밤(22일) 한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에 난데없이 승용차가 돌진해 들어오는 바람에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식당 안이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는데, <u>이 순간이 CCTV화면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u><sup>1</sup> CJB ○○○ 기자가 취재했습니다.</p>	앵커 멘트
<p>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괴산휴게소입니다. 손님들로 북적이던 식당 안으로 검은 승용차가 돌진해 들어옵니다. 어린아이를 친 차량은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거나 차를 기다리는 손님들을<sup>2</sup> 잇따라 덮쳤습니다. 몰려든 손님들은 아수라장 속에서 차에 깔린 여성을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p> <p>[휴게소 관계자 : 아비규환이었죠. 사람들이 전부 다 큰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차에 사람이 끼어 있어서 먼저 차를 뒤로 빼는데 주력을 했었죠.]</p> <p>사고가 난 시각은 귀경 차량이 몰리던 어젯밤 9시 40분쯤. 이곳에 주차돼 있던 차량은 굉음과 함께 철제 안전펜스를 넘어 식당을 향해 30여 미터나 돌진했습니다.</p>	기자 리포트

<p>이 사고로 14살 우 모군이 다리가 부러지고,<sup>3</sup> 1살배기 박 모군 일가족 3명 등 모두 11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운전자 측은 급발진에 의한 사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p> <p>[운전자 남편 : 와이프가 시동을 거는 소리가 들렸을 때 갑자기 차가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발진해버린 경우예요.]</p> <p>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sup>4</sup></p>	
--	--

- 1)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표현이다. 앵커 멘트가 다소 장황하므로 ‘~승용차가 돌진해 들어오는 바람에 여러 명이 다치고 식당 안이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CJB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도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방송(KBS)처럼 ‘경찰은 급발진 때문인지, 운전 미숙 탓인지, 수사하고 있습니다.’와 같이 핵심 사항을 요약해 주는 것도 뉴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2) ‘손님’이라는 표현은 식당의 입장에서 기술한 것이다. 뉴스의 입장이라면 ‘사람들’이 적당하다. 다른 방송에서는 추석이고 상행선 휴게소임을 감안하여 ‘귀경객’이라고 했는데 이 또한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 3) 이 문장의 내용을 뒤의 문장에서 포함하므로 ‘-고’로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리가 부러지는 등’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
- 4) 다른 방송에서는 급발진 사고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찰이 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의뢰하기로 했다는(MBC) 내용이 나온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급발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차량을 국과수로 보내 정밀 감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와 같이 보도하는 것이 훨씬 정확한 보도라 할 수 있다. 시청자들은 차량 급발진 사고인지 여부를 궁금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 2.6. 전문기사

<p>바둑은 ‘신선놀음’?...오래 두면 머리 좋아진다<sup>1</sup>(SBS 7.14.)</p>	<p>제목</p>
<p>바둑을 일컬어 인간이 만든 가장 심오한 경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둑을 두면 머리가 좋아질 거라는 막연한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 의학전문 기잡니다.</p>	<p>앵커 멘트</p>
<p><u>프로기사들은 바둑 한 판의 어려움을 인생에 비유합니다.</u><sup>2</sup></p> <p>[유창혁/프로바둑기사: 어떤 부분에서는 전혀 풀어가지 못하는 부분도 생기는데 그 때는 이제 어, 창의력을 좀 발휘해서 상상력이라고 할까요. 자꾸 뭔가를 머릿속에서 만들어요.]<sup>3</sup></p> <p>서울대병원이 십 년 이상 바둑을 뒀 온 사람의 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뇌 자기 공명 영상, 엠알아이로 측정했습니다. 바둑을 둔 사람은 정보를 전달하고 처리하는 뇌의 백질이 일반인 보다 세 배 이상 치밀했습니다. <u>덕분에 뇌의 전두엽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일반인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기억 참고 역할을 하는 뇌의 측두엽에 저장시켰습니다.</u><sup>4</sup></p> <p>[권준수/서울대병원 정신과 교수: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복잡한 것을 쉽게 파악을 하고 기억하는 능력이 발달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p> <p>또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측두엽을 포함한 뇌의 여러 부위가 빠르게 작동했습니다. <u>집중력과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는 겁니다.</u><sup>5</sup></p> <p><u>이차원 평면에서 벌어지는 바둑이 삼차원적인 공간 파악 능력까지 높이는 건 연구팀도 예상치 못한 결론입니다.</u><sup>6</sup></p> <p>바둑이 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어린이들의 학습 능력 개발은 물론 인지능이 저하된 정신과적 질병 치료에도 <u>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u><sup>7</sup></p> <p>에스비에스 ○○○입니다.</p>	<p>기자 리포트</p>

- 1) 바둑이 두뇌 계발에 유익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는 기사의 내용상 제목의 ‘신선놀음?’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바둑 두면 머리 좋아진다·과학적 입증(MBC)’과 같이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바둑과 두뇌 개발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므로 바둑을 인생에 비유하는 것은 거리가 있다. 또한 바로 이어지는 인터뷰와도 연결이 매끄럽지 않다. 동일한 인터뷰이지만 아래의 기사가(KBS) 좀 더 전달력이 높아 보인다.

- 세계바둑 최강전 예선전, 손에 땀을 쥐는 승부가 펼쳐집니다. 삼십팔 년 간 바둑을 뒤 온 유창혁 구단은 바둑계에서도 두뇌회전이 빠른 기사로 유명합니다.

[유창혁 (9단/바둑 프로 기사): 기억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은 기억력보다는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 높은 수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창의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 3) 인터뷰 또한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4) ‘덕분에 ~ 저장시켰습니다.’보다는 ‘덕분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가 적절한 표현이다.
- 5)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보다 뛰어난 것이다.
- 6)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는 정보이므로 시청자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다. 뉴스의 구조상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인다.
- 7) 주어가 ‘효과는’이므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와 연결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는 ‘바둑의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앞으로 바둑을 통한 어린이들의 학습 능력 개발은 물론 정신과적 질병 치료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 2.7. 일기예보

쌀쌀한 주말, 강원 산간...서리, 내륙 짙은 안개(SBS 9.24.)	제목
<p>주말에도 맑고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늘(24일) 아침 설악산에 첫 서리가 내린 데 이어 내일도 강원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농작물 피해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p> <p>또 아침에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야외활동하기에 무난하겠지만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sup>1</sup></p> <p>내일도 우리나라는 북쪽에서 다가서는 찬 공기의 영향을<sup>2</sup>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맑은 뒤 구름만 점차 많아지겠고요.          영동지방은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기온은 서울 13도, 강원 내륙과 산간은 10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많이 쌀쌀하겠고요.<sup>3</sup></p> <p>낮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면서 선선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sup>4</sup></p> <p>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sup>5</sup>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p> <p>다음주 초반에는 제주도와 남해안 쪽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p>	일기예보

- 1) ‘일요일인 모레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와 ‘야외활동하기에 무난하겠지만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의 문장 연결이 부자연스럽다. ‘구름만 많은 가운데 ~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다’는 ‘구름만 많아서 ~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다’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일기 예보를 말할 때 시간적인 순서와는 달리 내일모레의 일기 예보가 중간에 끼어들어 이해하는 데 혼란을 주고 있다.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내일’의 일기를 먼저 말하고 ‘모레’의 일기를 말하는 것이 시청자들이 이해하기가 쉬워 보인다.
- 2) 보통 ‘찬 공기’라고 하면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맑은 후 구름이 점차 많아진다고 하고 있어서 ‘찬 공기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다른 방송사의 일기예보에서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 3) ‘아침 기온은 ~ 내려가면서 ~ 쌀쌀하다’의 구조로 ‘아침 기온은 쌀쌀하다’이므로 문장이 어색하다. ‘아침에는 쌀쌀하다’로 수정해야 한다.

- 4) 문장의 연결이 어색하다. ‘낮 기온은 선선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 보다는 ‘낮 기온은 선선할 정도로 올라서 일교차가 클 것이다’ 정도가 적절하다.
- 5)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가 중간에 끼어들어 전체의 문장이 어색하다.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남해와 동해상에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뉴스 텍스트의 국어 교육적 활용

#### 3.1. 학습 설계안

<p>〈학습 목표〉</p> <p>① 영상, 음성, 문자로 전달되는 TV 뉴스 보도문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p> <p>② 완결된 텍스트로서 뉴스 보도문이 갖추어야 할 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p> <p>③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뉴스 보도문의 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p>	
--	--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관련 자료/ 학습 방법
		교 사	학 생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의 환기, 학습 분위기 조성, 전시 학습 확인 및 발문을 통한 학습 동기 유발</li> </ul>	(생략)	(생략)	문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시 학습 목표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 목표 설명, 안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경지식 떠올리기</li> </ul>	ppt
전개	<p>〈활동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창동 감독의 작품 ‘시’가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받았다는 뉴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일한 내용을 다룬 MBC, KBS, SBS 뉴스 영상 중 하나를 먼저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료의 내용 파악</li> </ul>	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V 뉴스 언어의 특성 (학습 목표 1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이 함께 제시됨</li> <li>- 보도문은 음성으로 전달</li> <li>- 문자는 보조적 수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시한 영상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 질문</li> <li>여러 매체 중 TV의 특성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함</li> <li>여러 TV 프로그램 중 뉴스 보도의 특성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체→TV →뉴스’의 순서로 전달 언어의 특성 생각해서 적어 보기</li> </ul>	질문지 또는 ppt /문답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관련 자료/ 학습 방법
		교 사	학 생	
	<p>&lt;활동2&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일한 내용의 MBC, KBS, SBS 뉴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뉴스 영상 제시</li> <li>세 가지 영상을 통해 뉴스 보도문이 서로 다른 점에 주목하게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뉴스 보도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대강의 내용 파악</li> </ul>	영상 /문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완결된 텍스트로서 뉴스 보도문이 갖추어야 할 요소 (학습 목표 2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제와의 관련성</li> <li>내용 및 형식 간의 논리적 긴밀성</li> <li>정보의 완결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뉴스 보도문이 갖추어야 할 요소를 제시한 영상과 관련하여 설명(대표적인 예를 1~2개만 들 것, 나머지 요소들은 다음 활동에서 학생들이 스스로가 찾을 수 있도록 지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도문의 텍스트적인 특성 이해</li> </ul>	ppt /설명
	<p>&lt;활동3&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송 3사의 보도문을 비교, 점검</li> <li>점검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V 뉴스 언어의 특성 고려</li> <li>뉴스 보도문의 갖추어야 할 요소 고려</li> <li>문장의 정확성 및 간결성 고려</li> </ul> </li> <li>뉴스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뉴스 보도문 작성 (학습 목표 3 관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송 3사의 뉴스 보도문 자료 배부</li> <li>점검 요소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논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별 활동에 함께 참여(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지 못하는 경우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도움)</li> <li>뉴스 시청 및 그 영향력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 공감대 형성</li> <li>뉴스 보도문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별로 방송 3사의 보도문 자료 점검</li> <li>문제가 되는 부분 찾아 이유를 적고 더 나은 쪽으로 내용 선택하기</li> <li>고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된 뉴스 보도문 작성</li> </ul>	자료 /토의
<p>&lt;활동4→다음 차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새로 수정하여 작성한 뉴스 보도문 발표</li> </ul>	(생략)	(생략)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 내용 정리</li> <li>차시 학습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새로 작성한 뉴스 보도문을 TV 뉴스의 특성을 잘 살려 조별로 발표</li> <li>다른 조와의 비교하여 점검, 전체 토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li> <li>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예고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뉴스 발표를 위한 역할 분담 준비</li> </ul>	

### 3.2. 뉴스 텍스트 수정안

아래는 위에서 제시했던 뉴스를 수정한 결과이다.

<p><b>이창동의 ‘시’, 칸 각본상...‘인간 성찰’ 갈채</b></p>	<p>제목</p>
<p>이창동 감독이 영화 시로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받았습니다. 인간에 대한 성찰을 담아냈다는 갈채가 쏟아졌습니다.<sup>1</sup> ○○○ 특파원이 칸에서 보도합니다.</p>	<p>앵커 멘트</p>
<p>[팀 버튼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 각본상은 시의 이창동 감독입니다.]<sup>2</sup></p> <p>이창동 감독의 ‘시’는 인간에 대한 폭넓은 성찰을 밀도 있게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sup>3</sup> 감독 개인으로서 지난 이천칠년 밀양으로 전도연에게 여우주연상의 영광을 안긴 데 이어 이번에는 각본상으로 두 번째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sup>4</sup></p> <p>한국 영화가 칸영화제 경쟁부문에서 수상한 것은 임권택 감독의 ‘취화선’이 감독상을 수상한 이천이년 이래 다섯 번째고, 각본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sup>5</sup></p> <p>[이창동/‘시’ 감독: 시를 찾고자 하는 마음, 아름다움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걸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한테 이야기하고, 관객들이, 관객들과 같이 느끼려고...]</p> <p>이창동 감독의 각본상 수상 외에도 비경쟁부문에서 홍상수 감독이 하하하로 주목할 만한 시선상을 받는 등 한국 영화는 호평을 받으며 세계 영화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sup>6</sup></p> <p>칸 영화제 최고의 영예인 황금종려상은 태국의 아피차퐁 위라세타쿨 감독의 잉클 분미에게 돌아갔습니다.</p> <p>비록 황금종려상은 수상하지 못했지만 이번 영화제 수상을 통해 우리 영화계는 위상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p>	<p>기자 리포트</p>

텍스트를 수정한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영화제의 각본상 수상 사실과 함께 현지의 평가를 전한다.
- 2)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시상자를 호명하는 그림을 제시한다.
- 3) 각본상을 수상하게 된 선정 이유를 밝힌다.

- 4) 감독의 이전 수상 경력을 언급함으로써 역량 있는 감독임을 알려 준다.
- 5) 한국 영화의 수상 경력을 언급함으로써 한국 영화의 위상이 세계적임을 암시한다.
- 6) 다른 한국 영화의 수상과 호평을 소개함으로써 한국 영화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보여 준다.

### 〈 참고 문헌 〉

- 김민영(2007), TV 뉴스 헤드라인에 대한 텍스트 언어학적 고찰, 〈텍스트언어학〉 23, 한국텍스트언어학회. pp95~127.
- 양철훈·정희창 외(2008), 방송 뉴스 쓰기, 랜덤하우스
- 장소원(2003), TV 뉴스 보도문의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 〈텍스트언어학〉 15, 한국텍스트언어학회. pp341~362.
- 장소원(2006), TV뉴스 문장쓰기, 시대의 창.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intended for handwriting practice.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intended for handwriting practice.

□ 연구 책임

이선웅(충남대)  
김한샘(국립국어원)  
손범규(SBS)

□ 공동 연구 · 원고 집필

이선웅(충남대)  
손범규(SBS)  
이준환(국립국어원)  
문병열(홍익대)  
최혜림(SBS)  
김한샘(국립국어원)  
이보라미(국립국어원)  
정희창(국립국어원)

□ 공동 연구 · 실태 조사 및 분석

정혜린(서울대 박사 과정)  
구명성(충남대 석사 과정)  
김혜진(충남대 석사 과정)  
정성애(신라대 석사 과정)

제5회 국립국어원 · SBS 방송언어 공동 연구

## 방송 언어와 국어 교육

2010년 10월 11일 인쇄

2010년 10월 12일 발행

펴낸이 권재일 · 우원길

펴낸곳 국립국어원 · SBS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3동 827

전화 (02) 2669-9722 / 전송 (02) 2669-9727

www.korean.go.kr

